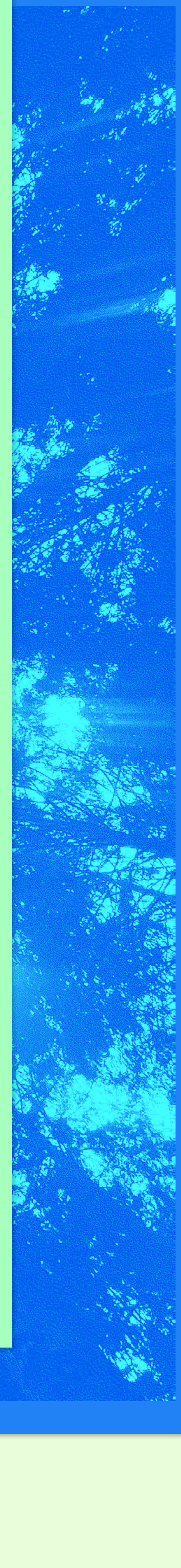
우리가 되는 방법들

WAYS TO MAKE 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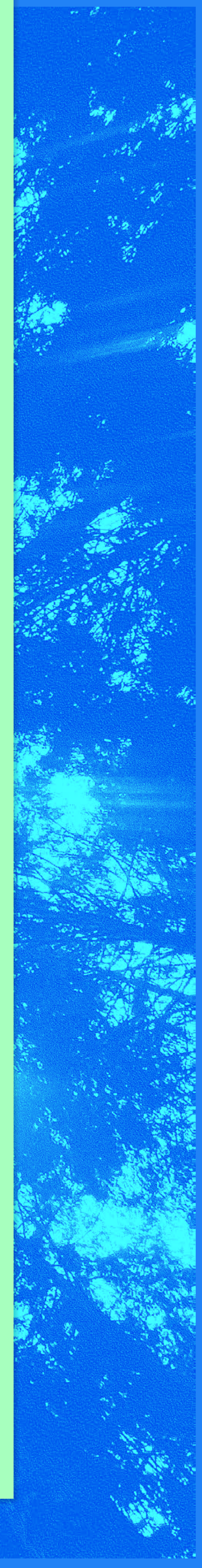
4

8

2022부산비엔날레
큐레토리얼 워크숍 기록집
DOCUMENTATION OF BUSAN BIENNALE 2022 CURATORIAL WORKSHOP

물결 위 우리
WE, ON THE RISING WAVE

4



8

차례

인사 4

우리가 되는 방법들

기획의 글 9

워크숍 소개 15

대화 56

줌-인

개인 글쓰기 65

릴레이 글쓰기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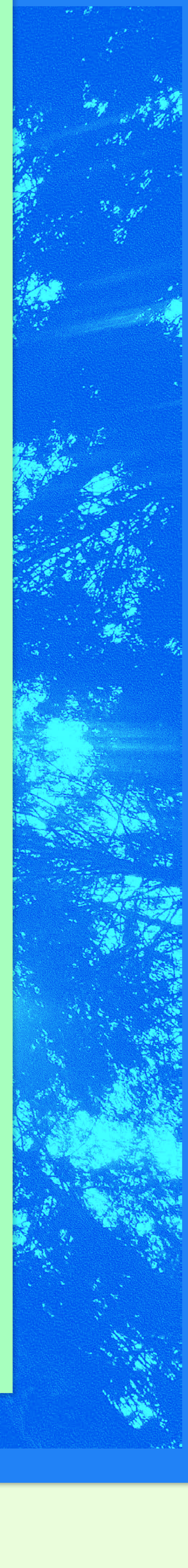
줌-아웃

기록의 글 92

홍수의 흔적 99

참여자 소개 102

콜로폰 104



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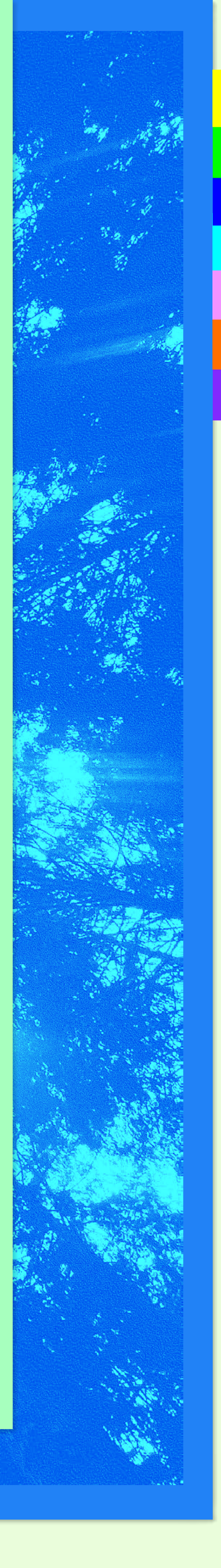
김해주

2022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

4

2022부산비엔날레 큐레토리얼 워크숍은 비엔날레의 한시적 시간을 연장하고 그 자원을 나누며 부산 지역의 다양한 기획자, 활동가와 연결될 계기를 고민하며 시작했습니다. 압축된 시간 발생했다 사라지는 비엔날레는 미술관, 갤러리와 같이 고정된 장소를 기반으로 연속적으로 활동하는 기관, 제도와는 다른 활동 목적과 방식을 가집니다. 다양한 지역과 배경의 작가들과 함께 동시대의 담론에 기반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는 것이 비엔날레가 가진 이점이라면, 이 질문을 전시가 아닌 다른 형식을 통해 장기적으로 남길 수 있는 장치를 생성해 보고 싶었습니다.

큐레토리얼 워크숍을 고안하는 과정은 큐레이팅은 무엇이고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는 질문과 연결되었습니다. 2006년 부산비엔날레에서 코디네이터로 활동하기도 했던 제겐 2000년대 초반 한국에 대형 국제 미술 프로젝트가 쏟아진 시기의 경험이 큐레이팅에 대한 배움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습이기보다는 경험적으로 체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코디네이터, 전시 어시스턴트로 현장에서 일한 경험은 전시의 다양한 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등 실무적인 것을 이해하고 실행해 볼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큐레이팅은 실무의 차원을 넘어서서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요구하는 작업이고, 이를 개인이 구체적으로 발화해 내기가 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지금의 미술 현장은 전시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다양한 접근과 실천이 가능한 활동의 장이 되었고, 각자의 세부적인 입장과 목소리의 표출로 정교화되는 역동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큐레토리얼 워크숍은 기획에 있어 다양한 기획 형식과 방법론을 고안하는 분들을 초대하여 그분들의 경험을 듣고, 이를 기반으로 참여자들이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부산항과 조선소가 내려다 보이는 영도 봉래동의 언덕에서 진행된 첫 번째 워크숍 날, 저는 참여자들께 그간 리서치를 위해 방문한 부산의 장소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전시 장소로 사용하게 될 미술관, 영도, 부산항 제 1부두, 초량의 맥락을 설명했습니다. 한 참여자분께 그 장소들이 과연 부산 시민들의 일상과 가까운 곳인지, 지나치게 역사적 맥락을 부각하여 오히려 실제 경험과 소외되는 장소가 아닌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전시에 있어서 장소성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참여자들 간에 활발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워크숍이 이렇게 비평적 질문을 던지고 각자의 생각과 입장을 정리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기에 이 같은 이야기가 무척 반가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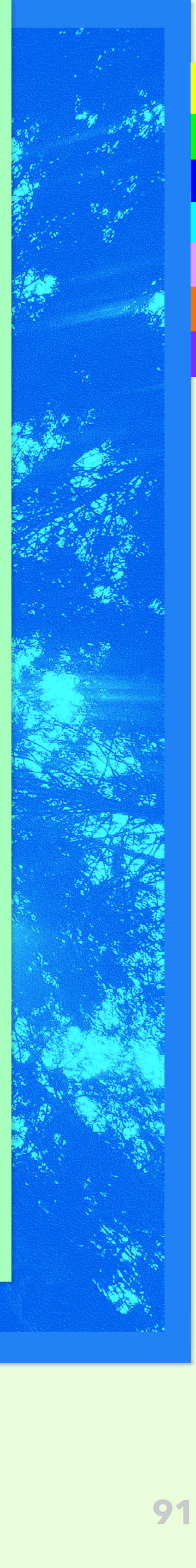
6 인사

‘물결 위 우리’라는 전시 제목에서 마지막까지 결정이 어려웠던 단어는 ‘우리’였습니다. 물결이 지형과 역사를 뜻한다면, 이것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작용 가운데 공동이라는 조건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라는 단어를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라는 말이 포용과 다정함을 담기보다 우리의 외부에 대해 경계 짓는 배타적 뉘앙스로도 남아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마도 거친 ‘우리’들에 부딪혔던 경험들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워크숍 기간 동안 참여자들 간에 ‘우리’에 대한 대화가 많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본 워크숍 속에는 각자의 생각을 표출하면서도 상호 침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 접촉과 충돌이 일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워크숍이 각자의 경험 속에 작은 파장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 주신 우아름 프로그램 매니저와 토요일 귀한 시간을 내어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신 모든 각자의 ‘우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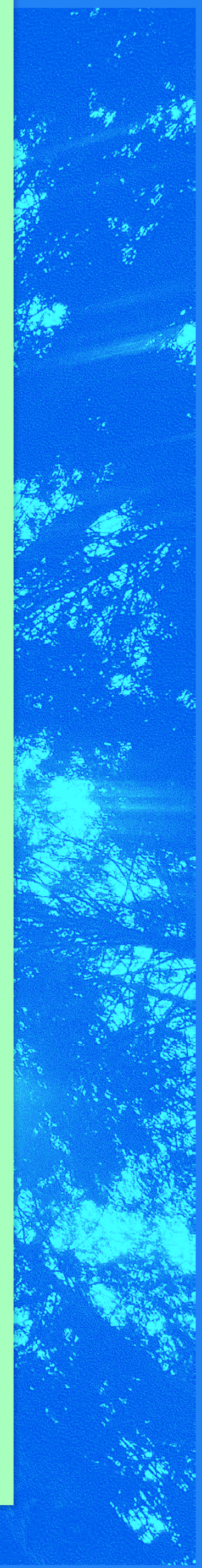
우리가 되는 방법들

열 번의 만남으로 진행된 큐레토리얼
워크숍 과정을 소개합니다.
대화의 여정에 초대한 분들의 그간의
행보를 소개하고, 나누었던 대화 중
주요한 대목을 추려 전달합니다.



기획의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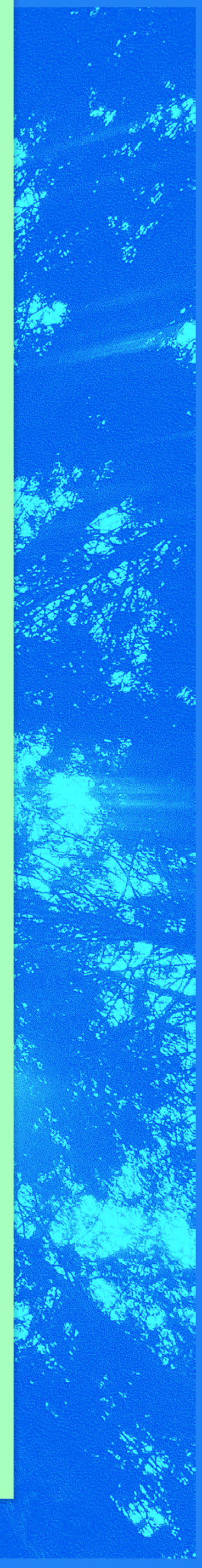
우아름 프로그램 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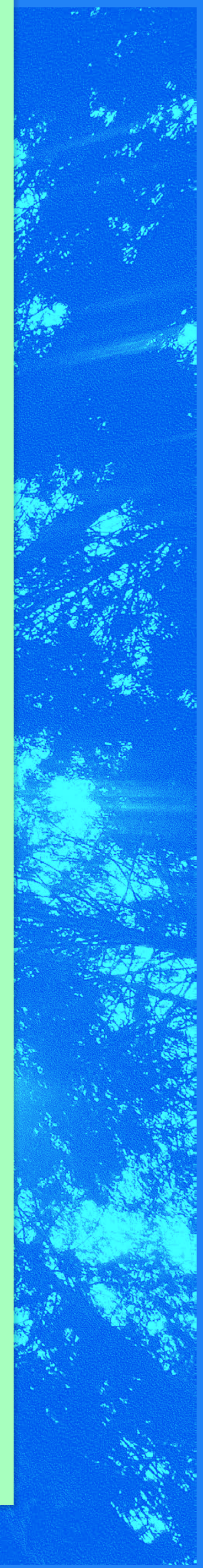
「우리가 되는 방법들」은 큐레토리얼을 제목에 달고 있는 워크숍 프로그램이지만 큐레이팅의 노하우를 배우는 교육이나 실습 과정이 아니다. 큐레이터들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 나누면서 스스로 다음번 실행을 위한 아이디어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마련한 대화의 과정이다. 2022부산비엔날레의 전시 기획에는 21세기의 로컬은 어떠한 의미이고, 커뮤니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질문이 담겨있다. 워크숍 「우리가 되는 방법들」은 이러한 질문을 큐레토리얼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 보는 과정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로컬'과 '우리'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현재의 시공간에서 필요한 큐레토리얼 실천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커뮤니티의 형태와 방법을 모색해본다. 이는 '나'라는 개인의 삶의 반경 가까이에서 미술을 통해 어떤 일을 도모하고 어떤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지, 그런 일을 누구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모색해보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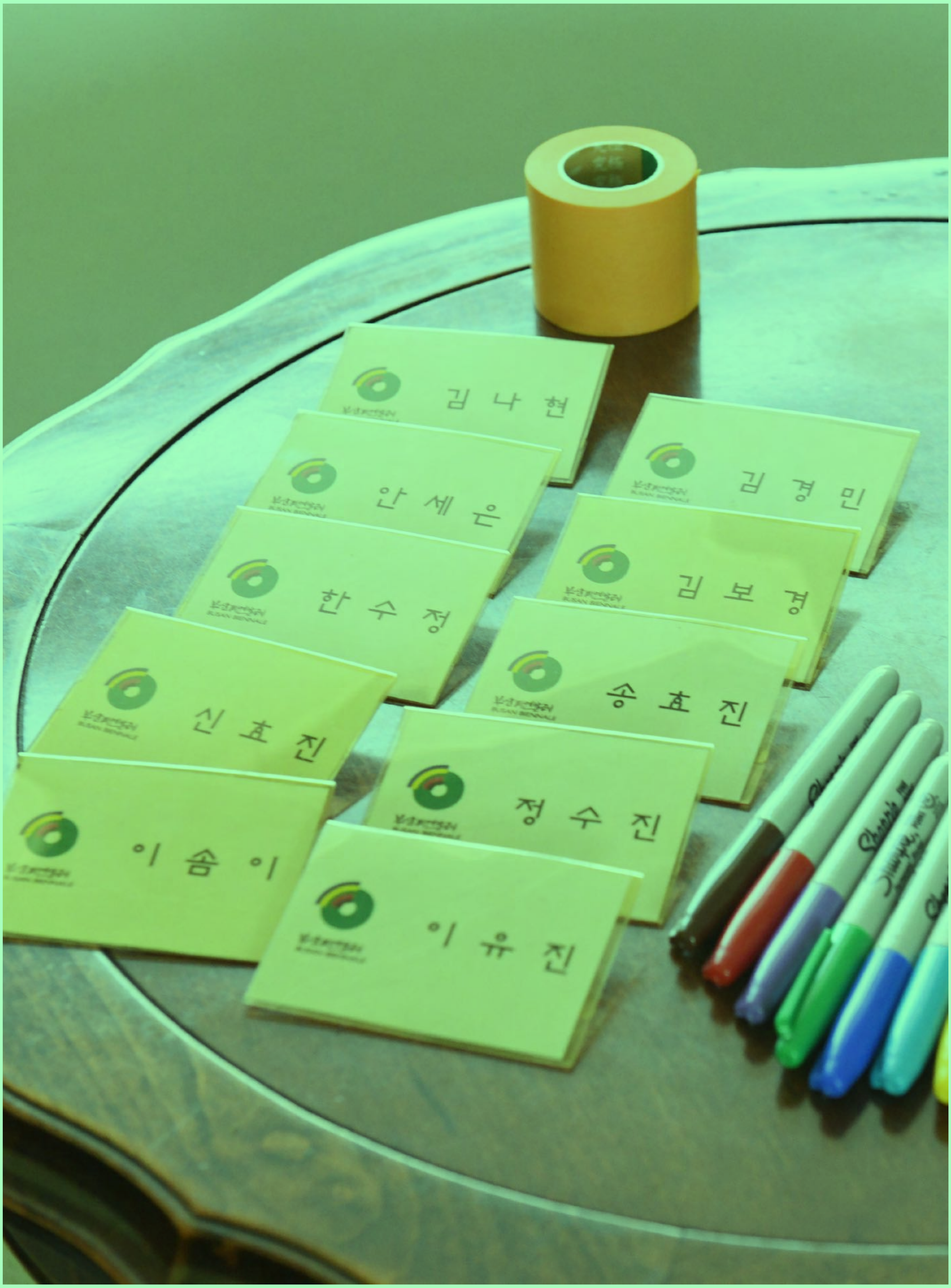
큐레토리얼 과정을 수많은 대화와 만남의 연속으로, 전시를 대화에 참여했던 모두가 관여해 일구어낸 공동의 경험의 순간 혹은 제안으로 바라보면, 그 형태와 방법, 실천의 경로는 다양해진다. 그 실천은 전시장 바깥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 워크숍을 관통하는 질문은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지 않는 가치를 위한 커뮤니티가 왜 만들어지며, 하나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공동의 경험이 되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질문들이다. 이 질문 다발을 풀어가기 위해 본 워크숍에는 정치, 경제, 기술, 로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을 초대해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나누며 '옆으로 가는 생각'을 키워 본다.

워크숍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는 각자의 관심사와 질문을 가지고 워크숍에 참여한다. 다양한 실천을 지속해온 사람들을 초대해 대화하는 열 번의 워크숍 과정에서 각자의 관심사를 내놓고 대화를 나누고, 이 대화의 과정으로부터 발견한 실마리를 글로 쓴다. 글 모음의 방법이 릴레이 편지가 될지, 공동의 기록이 될지, 그밖에 다른 무엇이 될지는 워크숍 참여자들이 함께 결정해 본다. 마지막 열 번째 만남의 장소와 시간, 대화의 주제는 워크숍 참여자들의 공동의 의견으로 결정하기로 열어 둔다. 그렇게 「우리가 되는 방법들」이 시작되었다.



워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대화가 언제나 원활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신중하게 말하려는 마음과 질문을 던지는 마음 모두 워크숍에 모인 우리를 고려하는 데서 나온 마음 씀이었으나, 그 결과가 침묵 혹은 오해로 이어진 순간도 있었다. 진행자로서 가이드를 제시하며 과정을 이끄는 대신 참여자간의 대화를 선택했기에 참여자들이 막막함을 느낀 순간도 더러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 이유로 이 기록집에 담긴 모든 대화와 글쓰기, 마지막 워크숍은 하룻밤을 함께 보내며 원 없이 대화하기로 한 결정은 공동의 것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워크숍에 참석하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떠한 우리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한 이들은 참여자들이었다. 생각지 못한 우리를 만나 많이 배운 여름이었다.




김 나 현
안 세 은
김 경 민
한 수 정
김 보 경
신 효 진
송 효 진
이 솜 이
정 수 진
이 유 진

Weaving The World
MacBook Pro

HJ중공업

첫 번째 만남 4/16

오버뷰, 접속

2022부산비엔날레 기획의 단서들을 듣고, 워크숍 참여자들의 관심사를 공유한다
초청: 김해주(2022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
장소: 끄띠봉산(RTBP)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나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모두 먼 곳에서 이곳 영도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테이블 위 종이 테이프를 끊어서 워크숍에서 사용할 이름을 쓰시고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가슴에 붙여주세요.
한 분씩 돌아가면서 본인의 큐레토리얼 관심사를 나눠볼까요? 나의 관심사를 오픈하고 타인의 관심사에도 관심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오늘은 본인의 관심사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타인의 관심사에 이야기를 건네주면서 서로의 관심을 엮어가도 좋겠습니다.
(...)
오늘은 본 워크숍을 마련한 김해주 2022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을 초청했습니다. 김해주 전시감독은 큐레이터로서 예술의 다양한 형식들의 교차를 통해 움직임이 생성되는 방식에 관심을 갖고, 글쓰기와 기획을 통해 신체, 시간, 기억, 이주, 언어, 공존의 장면을 드러내 왔습니다. 독립기획자로 《안무사회》(2015), 《무빙/이미지》(2016, 2017, 2020)을 기획했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아트선재센터 부관장을 역임하는 동안 다나카 고키, 남화연, 구동희, 리킷 등의 개인전 및 기획전 《먼지 흙 돌》(2020), 《색맹의 섬》(2019) 등의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이 워크숍의 키워드인 ‘로컬’과 ‘우리’는 김해주 전시감독의 기획글에서 발췌한 단어들입니다. 오늘 김해주 감독님은 비엔날레 기획을 위해 부산 로컬을 리서치했던 과정을 공유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 4/16

오버뷰, 접속

2022부산비엔날레

초청: 김해주(2

장소: 끄띠

“부산은 제 고향이고 부산비엔날레는
제가 2006년에 스태프로 참여하기도 했던 전시입니다.
이번에 부산을 리서치하면서 알게 된 것은 부산이 오래된 도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의 모습의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됐어요. 부산 시내에 장소들이 형성된 모습이 어떤 영향
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이번 리서치를 하면서 발견하였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로그북입니다.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간동안 비엔날레 준비를 위해 부산을 다니면서
방문하고 보고듣고 읽은 것들을 보여드리려 해요. 워크숍으로
여러분이 부산 다녀가시는 동안 참고하실 수 있는
이 도시에 대한 가이드가 되면 좋겠어요.”

—

김해주

“안

많

있

한

관

E

(..

오늘

감독는 … 맞고,

글쓰기와 … 획자로

《안무사회》 … 년까지

아트선재센터 … 년 및 기획전

《먼지 흙 돌》(2020), … 의 키워드인

‘로컬’과 ‘우리’는 김해주 전시 … 오늘 김해주 감독님은

비엔날레 기획을 위해 부산 로컬을 리서치했는 …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16

오늘
감독
글쓰기
《안무사회》
아트선재센터
《먼지 흙 돌》(
‘로컬’과 ‘우리’
비엔날레 기획
듣겠습니다.”

오늘

감독

글쓰기

《안무사회》

아트선재센터

《먼지 흙 돌》(2

‘로컬’과 ‘우리’

비엔날레 기획

듣겠습니다.”

#도시_부산

#로그_북

두 번째 만남 4/23

코스모로컬리즘: 새로운 산업과 지구적 로컬 경제의 구상

로컬의 반경 안에서 공유의 감각을 키우기 위한 경제학자의 제안을 듣고 대화한다

초청: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장소: ZOOM

“오늘은 로컬과 글로벌의 관계에서 로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을지 경제학자의 제안을 듣고자 홍기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홍기빈 선생님은 경제학과 외교학, 정치학을 전공하신 후 제도권 바깥에서 대안경제학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여러 매체에서 말과 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홍기빈의 이야기로 풀어보는 거대한 전환’을 진행했고, 현재는 유튜브 ‘홍기빈클럽’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신자유주의적인 지구 정치 경제 연구를 주요 연구 과제 삼고 『아리스토텔레스, 경제를 말하다』, 『살림/살이 경제학을 위하여』, 『비그프로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소유는 춤춘다』, 『코로나 사피엔스』 등을 출간하셨습니다.
번역 또한 선생님의 주요한 지적 실천입니다. 그간 『칼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칼 마르크스』 등을 번역하셨고 제 59회 한국출판 문학상 번역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역과 우리를 놓고 삶의 반경 안에서 어떤 일들을 도모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경제의 틀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겠죠. 그럼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남 4/23

코스모로컬리즘: 새로운 산업과 지구적 로컬 경제의 구상

로컬의 반경 안에서 공유의 감각을 키우기 위한 경제학자의 제안을 듣고 대화한다

초청: 홍기빈(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장소: ZOOM

“오늘은 로컬과 글로벌의 관계에서 로컬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갈 수 있을지 경제학자의 제안을 듣고자 홍기빈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홍기빈 선생님은 경제학과 외교학, 정치학을 전공하신 후 제도권 바깥에서 대안경제학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illegible] 활동하고 계십니다.
팟캐스트 ‘홍기빈의 [illegible]
‘홍기빈클럽’[illegible]
과제 [illegible]
[illegible]

“지구적인 단위에서 생산이 조직된 역사는
길게 보면 백년 됐습니다마는 지금 명백한 한계를 만나고 있어요.
산업혁명 이전의 인류 역사에서 경제활동의 범위는 모든 사람이 태어난
반경 40km를 넘지 않았어요. 물질적 자원의 이동 거리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하지만 탄소발자국을 수반하지 않는 지식의 전파는 좀 다른 얘기예요.
오늘 제 결론은 코스모로컬리즘입니다. 유형적인 것들, 원자재와 식량, 에너지는
최대한 로컬에서 해결하자, 그러나 지식과 무형의 요소는 완전한
코스모폴리타니즘으로 가자는 겁니다.”

—

홍기빈

#코스모로컬리즘

#아나키즘

#지식_커먼즈

#반경40km

세 번째 만남 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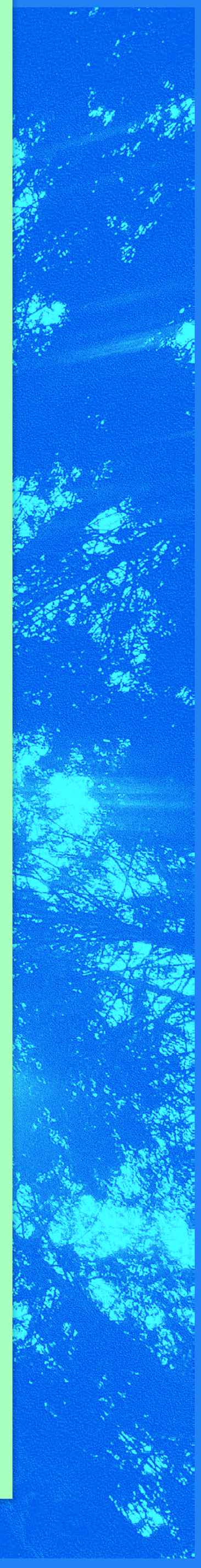
예술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함께 만들기

장애인 공동체와 함께한 워크숍과 포럼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선택한 미술 작품을 대체텍스트로 전환해본다

초청: 최태윤(예술가)

장소: ZOOM

“세 번째 만남, 오늘은 시각예술가 최태윤 님을 초대했습니다. 최태윤 작가는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활동하는 작가이자 교육자, 활동가입니다.
교육 활동가로서 뉴욕의 시적연산학교(School for Poetic Computation, SFPC)을 공동 설립 및 운영했고, 현재는 한국과 아시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드로잉, 전자장치, 설치, 퍼포먼스를 통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며, ‘상냥함’, ‘포용’, ‘정의’, ‘함께하기’, ‘생각을 연결하고 나누기’를 주제로 작업합니다.
작가님께 처음 제안드렸던 주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작가님이 장애인 공동체와 함께한 워크숍의 경험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대체텍스트를 작성해 보는 실습 시간을 제안해 주셨어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경계와 그 내부를 세심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럼 작가님의 이야기와 실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만남 4/30

예술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함께 만들기

장애인 공동체와 함께한 워크숍과 포럼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선택한 미술 작품을 대체텍스트로 전환해본다

초청: 최태윤(예술가)

장소: ZOOM

“세 번째 만남, 오늘은

오가며 활동하는

교육 활동

및 운영했

퍼포먼스를

연결하고 나

작가님께 처음

공동체와 함께한 워크

제안해 주셨어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경계와 그 내부를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럼 작가님의

“시작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장애 예술가가 있나요? 누구인가요?

장애 예술가를 포용적으로 정의해 볼게요. 장애 예술가는 장애인으로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작업하는 작가일 수도 있고, 장애 정체성과 상관 없는 작업을

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장애인 정체성을 가진 작가일 수도 있어요. 비장애인이지만

장애인 커뮤니티와 협업하는 사람들도 장애 예술가일 수 있습니다.

1분 정도 생각해 보세요. 검색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1분 후에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

최태윤

세 번째 만남 4/30

예술의 접근성과 포

장애인 공동체와 함께한 워크숍과 포

초청: 최태윤(예술가)

장소: ZOOM

장애 예술

그 정체성에 대

하지만 일상 생

장애인 ㅊ

1분 정

"세 번째 만남, 오늘은 [illegible]

오가며 활동하는 [illegible]

교육 활동가로서 [illegible]

및 운영했고, 현재는 한국 [illegible]

퍼포먼스를 통해 여러 분야의 전문

연결하고 나누기'를 주제로 작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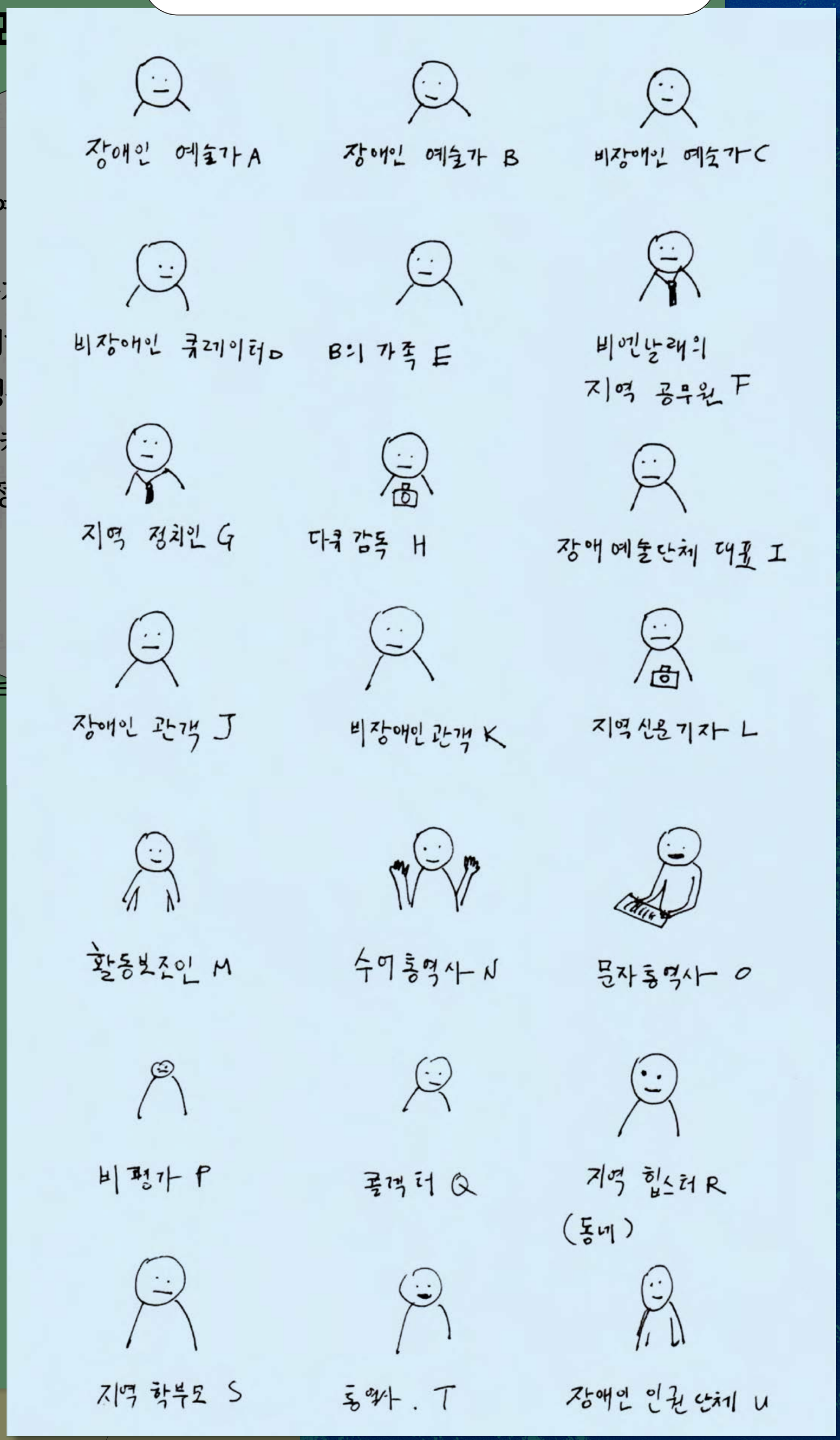
작가님께 처음 제안드렸던 주제는

공동체와 함께한 워크숍의 경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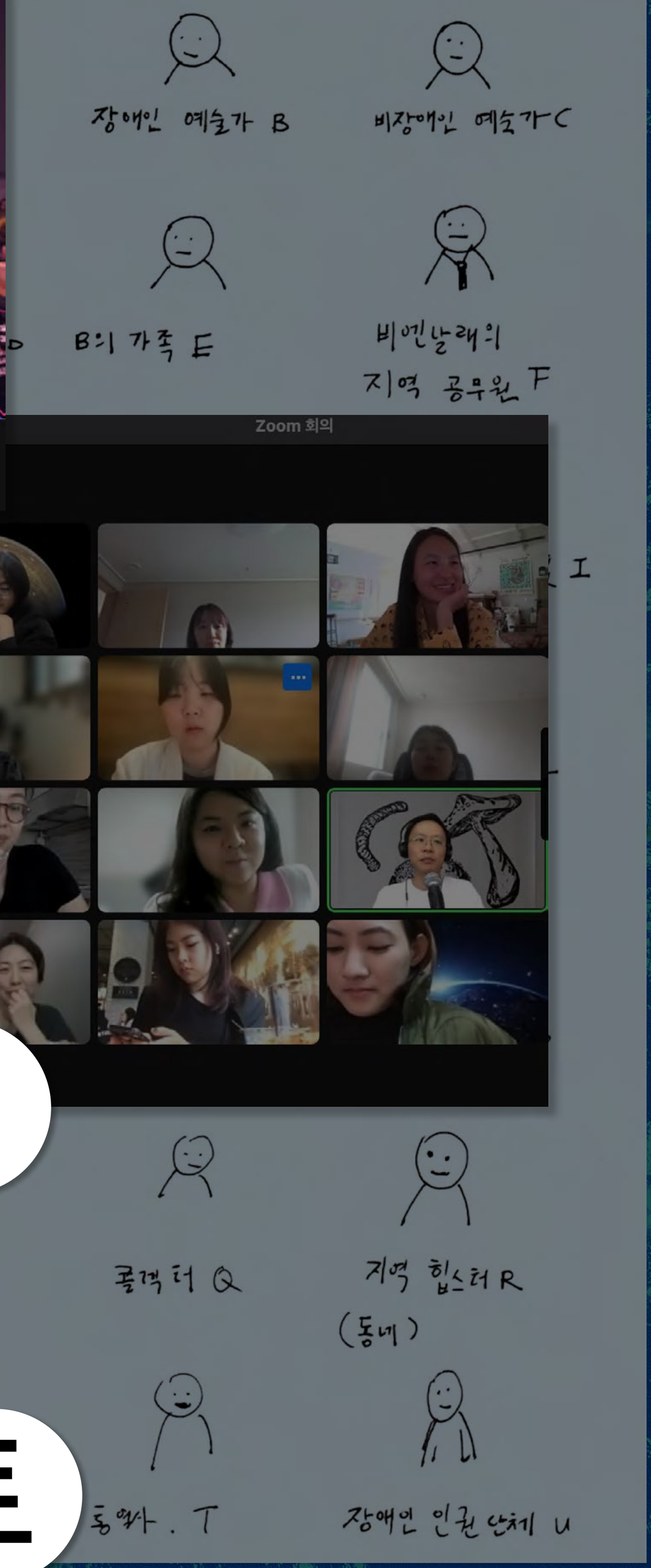
제안해 주셨어요. 결과적으로 '우리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럼 작가님

비엔날레에서 장애인 예술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달라는
제안을 받을 경우,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들



서 장애인 예술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달라는
받을 경우,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우리들



연결하고 나
작가님께 처음
공동체와 함께한 워
제안해 주셨어요. 결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PC의_굴레

#포용성

#대체텍스트

#장애와_갈등

네 번째 만남 5/7

우리의 모양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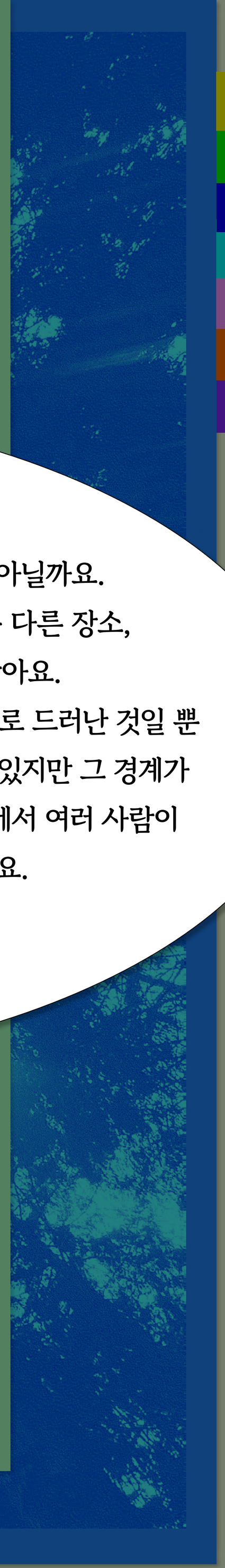
이웃의 반경을 넓히며 협력과 협업을 선보여온 갤러리팩토리 운영에서
중요하게 견지해 온 몇가지 내용과 사례를 모아본다
초청: 홍보라(팩토리2 디렉터)
장소: ZOOM

“안녕하세요. 오늘은 팩토리2의 홍보라 디렉터님을 초청했습니다.
홍보라 디렉터님은 시카고시 문화부에서 문화 교류와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2002년, 갤러리팩토리를 열고 전시기획자이자 예술 행정가로서 다수의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국제예술 행사 기획에 참여하면서 현재까지 공간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팩토리2가 보여준 여러 협업의 모양에 대해 청해 듣고자 초청드리게 됐습니다. 그간 팩토리에서는 독립큐레이터들과 공동 기획한 전시뿐 아니라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디자인 제품을 콜라보로 기획하고 제작, 유통하는 팩토리에디션을 운영하고, 지면을 큐레토리얼 공간 삼는 독립예술잡지 버수스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협업 형태와 유통 경로를 보여줬습니다.
디렉터님께서는 팩토리 공간 운영 뿐 아니라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립생태원 등의 공기관과 공동으로 창덕궁, 광명, 함양, 소록도 등지에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한편, 헬싱키와 밀라노 등 국제 무대에서 공예와 디자인 전시 기획을 선보여 오기도 하셨는데요, 다양한 활동의 근간에 있는 것은 각자의 일이 연결되는 순간에 대한 존중이 아닐까 합니다. 다양한 기획 활동에 있어 중요하게 견지해 오신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네 번째 만남 5/7

우리의 모양들

이웃의 반경을 넓히며 협력과 협업을 선보여온 갤러리팩토리 운영에서
중요하게 견지해 온 몇가지 내용과 사례를 모아본다
초청: 홍보라(팩토리2 디렉터)
장소: Z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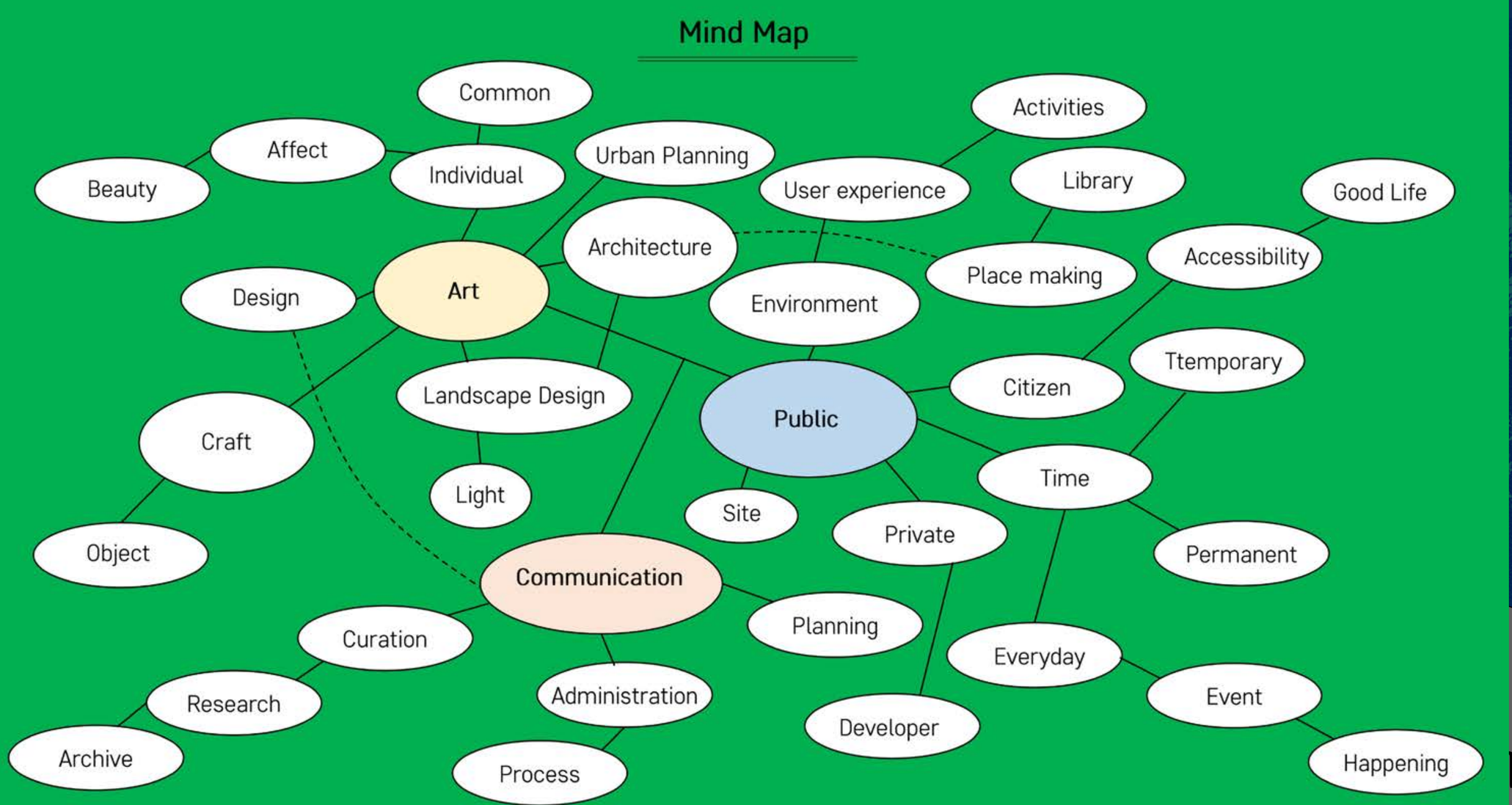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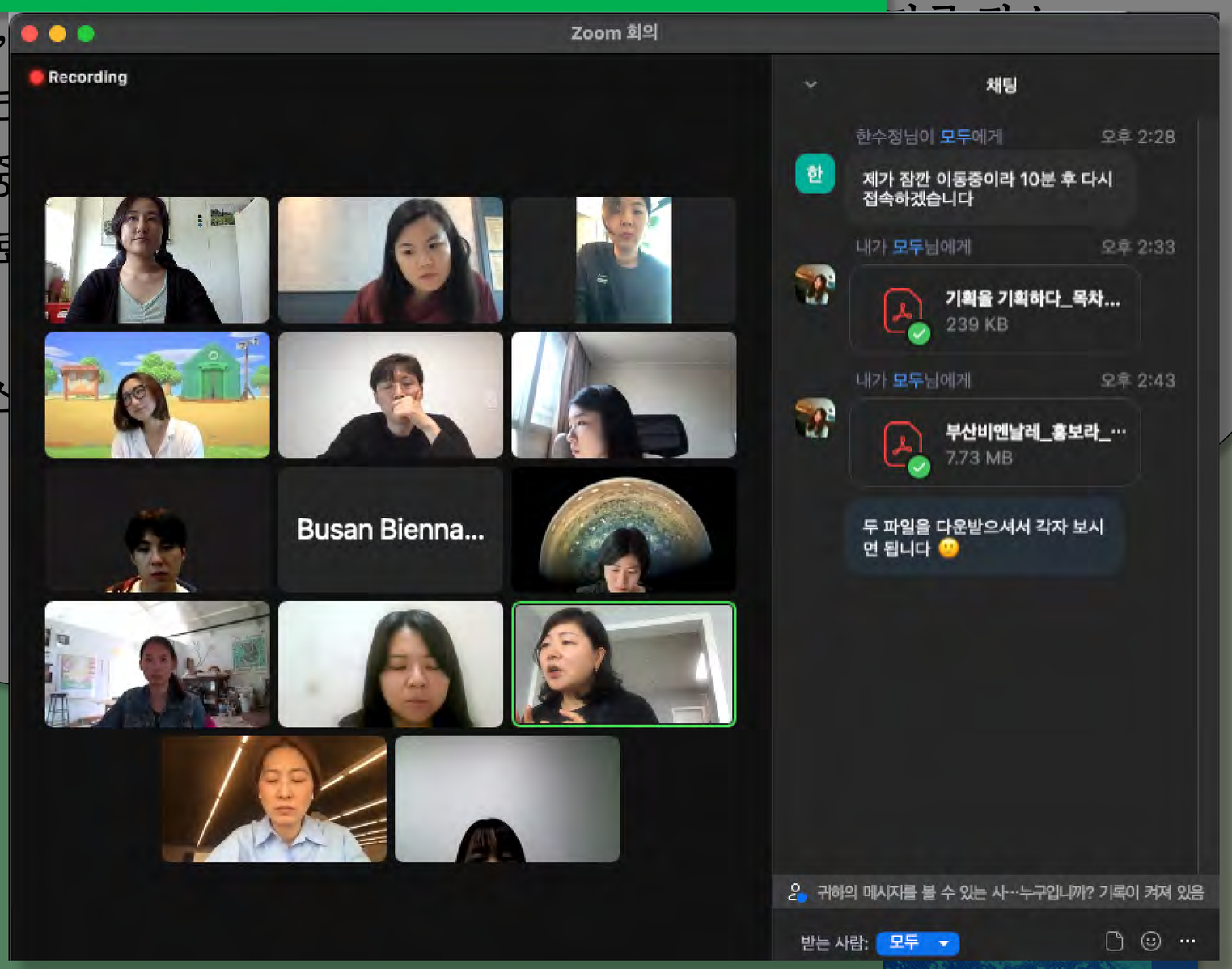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오늘은 팩토리2의 홍보라 디렉터님을 [illegible]
홍보라 디렉터님은 시카고시 문[illegible]
시작했습니다. 한국으[illegible]
다수의 공공예[illegible]
팩토리2[illegible]
독립[illegible]
기[illegible]
비[illegible]
[illegible]
등[illegible]
헬[illegible]
활동의[illegible]
활동에 있[illegible]

“팩토리는 하나의 공간이자 여러 협업을 통해 일하는
기획 사무소이기도 해요. 그것이 팩토리의 다른 결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요.
기업이나 개인, 재단, 공공기관, 큰 기획사와의 협업.. 이렇게 저를 계속 다른 장소,
낯선 곳에 두는 연습을 하면서 유연한 방식으로 살아 남은 것 같아요.
우연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정말 우연인 걸까요? 우연은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
그 아래는 실핏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기 분야의 코어는 분명하게 있지만 그 경계가
올챙이 알같이 말랑하고 끈끈해서 서로 붙어 마음껏 확장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여러 사람이
만나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나오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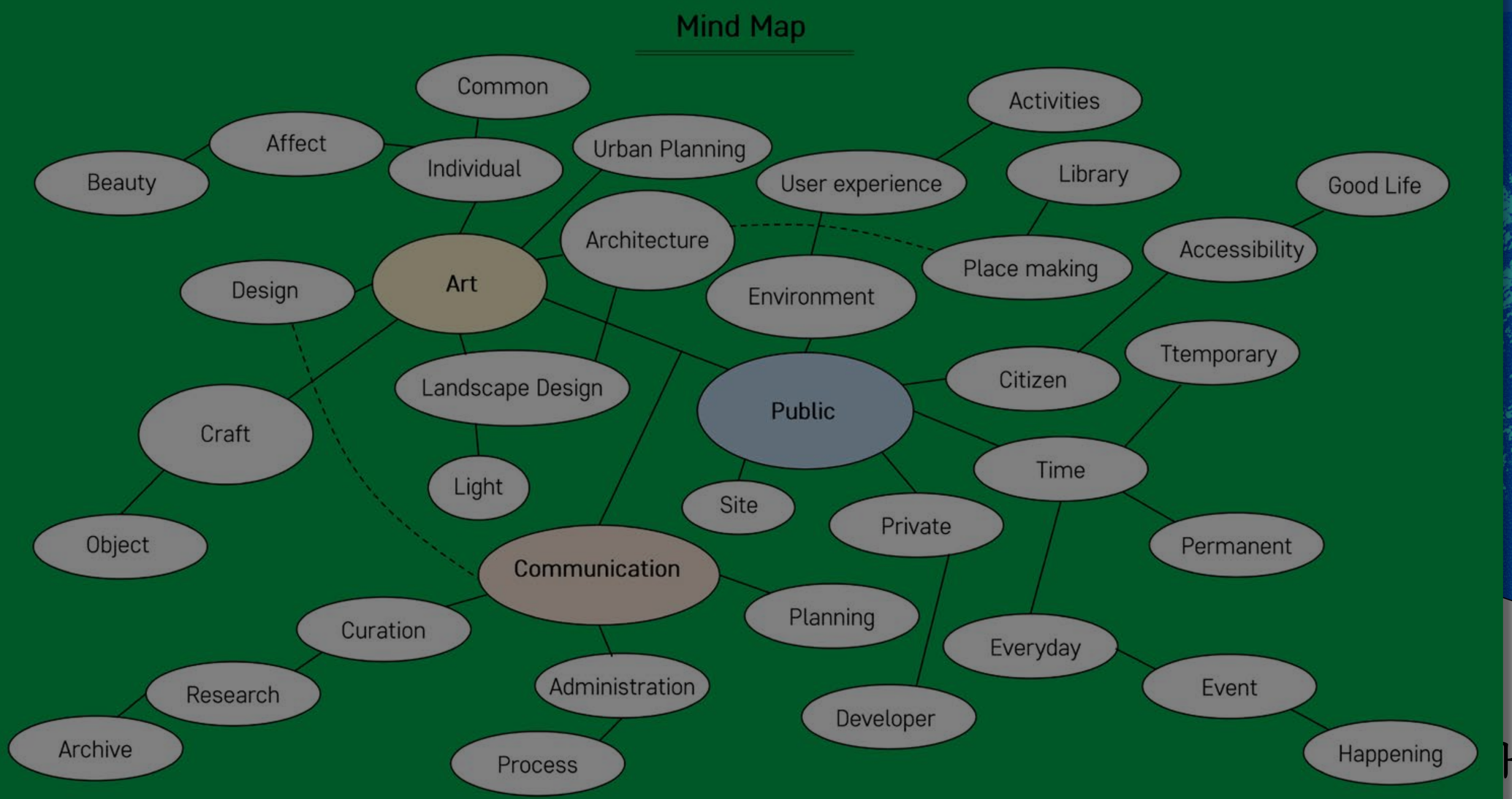
홍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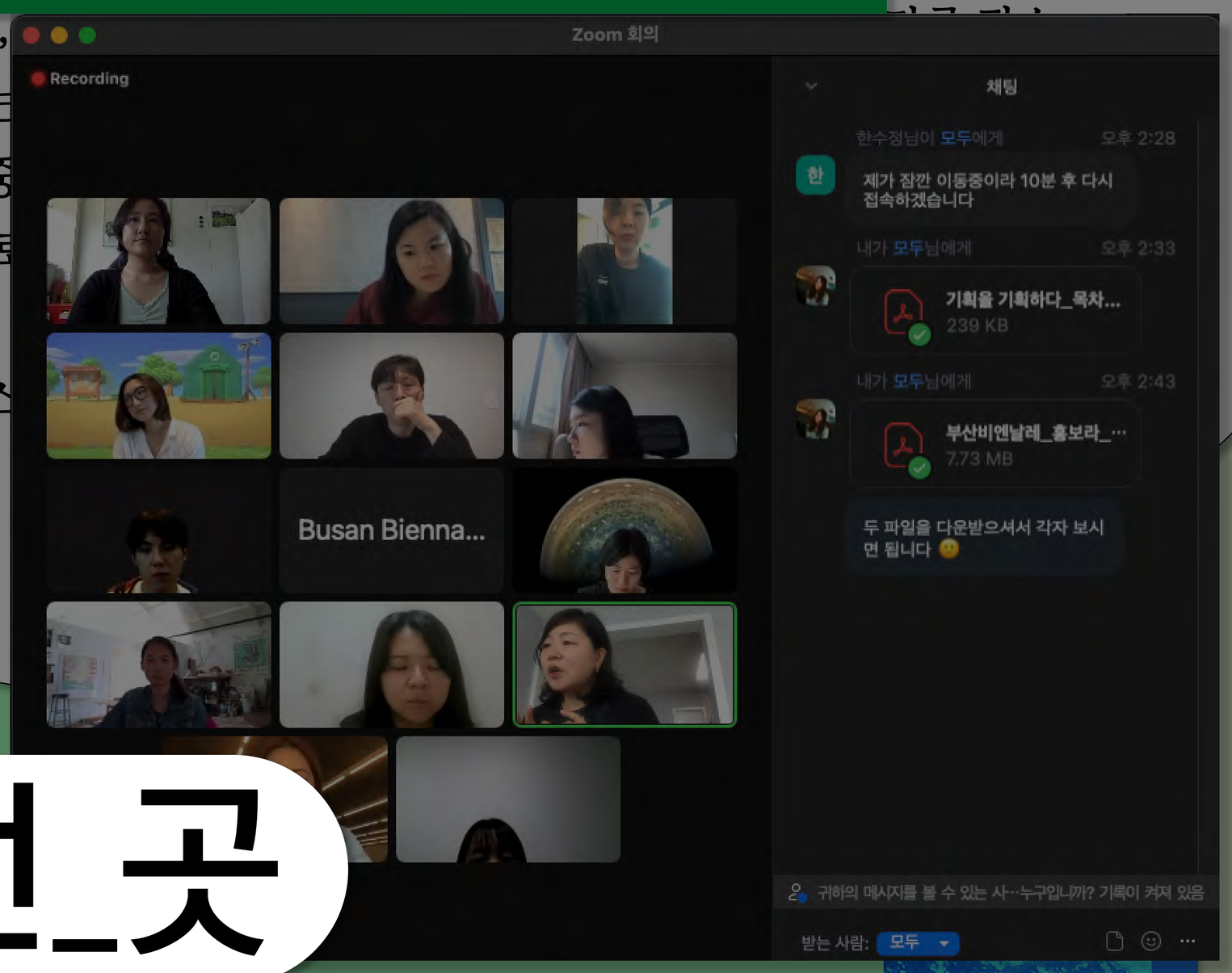




기업이나 개인, 재단,
낯선 곳에 두는
우연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
그 아래는 실핏줄처럼 서로
올챙이 알같이 말랑하고
만나 자연스

헬싱
활동의
활동에 있





기업이나 개인, 재단,
낯선 곳에 두는
우연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
그 아래는 실핏줄처럼 서로
올챙이 알같이 말랑하고
만나 자연스
활동에 있

#낯선_곳

#우연

#개인성_공공성

다섯 번째 만남 5/14

우리의 매뉴얼

공간사일삼의 공간의 공유를 위해 서로가 지켜야할 규칙을 담은 공간사용매뉴얼과
미술 활동장을 위해 시도한 '팩PACK' 이야기를 들어본다
초청: 김윤익(공간 사일삼/팩 디렉터)
장소: ZOOM

“김윤익 디렉터는 2009년 문래동에 터전을 마련하고, 2010년 공간사일삼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얼터너티브 스페이스의 성격을 갖추고 외부 기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작동 가능한 ‘작은 단위의 시스템’을 운영의 주요한 태도로 삼는 가운데, 2015년에는 공간의 사용자와 운영자 사이의 약속을 담은 ‘공간사용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착안해 오늘의 주제 ‘우리의 매뉴얼’을 제안드리게 됐습니다. 2022년 이 매뉴얼은 리뉴얼 게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2017년에는 ‘팩PACK’이라는 이름으로 사방 60cm의 작은 큐브 형태의 압축적인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설정하고, 전시와 판매 시스템을 결합한 유통 플랫폼으로 운영하면서 도시 곳곳의 틈에서 미술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공간사일삼이라는 공간 디렉터이자 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예술사업체 리사익의 디렉터이기도 합니다. 문화예술기획회사로서 NFT, 블록체인, 암호화폐 연구-비대면 시대 예술이 관람객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연구하고, 이를 《힌터랜드》《무엇이든NFT》 등의 연구, 전시 프로젝트로 선보이면서 동시대의 기술 지평에서 예술가의 자율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윤익 디렉터님 말씀 시작해 주세요”

'우리의 매뉴얼' 강의 자료 페이지

다섯 번째 만남 5/14

우리의 매뉴얼

공간사일삼의 공간의 공유를 위해 서로가 지켜야할 규칙을 담은 공간사용매뉴얼과
미술 활동장을 위해 시도한 '팩PACK' 이야기를 들어본다
초청: 김윤익(공간 사일삼/팩 디렉터)
장소: ZOOM

“김윤익 디렉터는 2009년 문래동에 터전을 마련하고, 2010년 공간사일삼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얼터너티브 스페이스의 성격을 갖추고 외부 기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작동 가능한
‘작은 단위의 시스템’을 운영의 주요한 태도로 삼는 가운데, 2015년에는 공간의 사용자와 운영자
사이의 약속을 담은 ‘공간사용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착안해 오늘의 주제 ‘우리의 매뉴얼’을
제안드리게 됐습니다. 2022년 이 매뉴얼은 리뉴얼 게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2017년에는 ‘팩Pack’이라는 이름으로 사방 60cm의 작은 큐브 형태의 압축적인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설정하고, 전시와 판매 시스템을 결합한 유통 플랫폼으로 운영하면서 도시 곳곳의 틈에서
미술을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공간사일삼이라는 공간 디렉터이자 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문화예술사업체 리사익의 디렉터이기도 하죠. 팩 프로그램은 2020년 언택트 시대에 맞춰 온라인
연구-비대면 시대 에
등의 연구, 전시 프로젝트를 선보이면서 동시대의 기술 환경에서 예술가의 작업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럼 김윤익 디렉터의 말을 시작해 주세요.

'우리의 매뉴얼' 강의 자료 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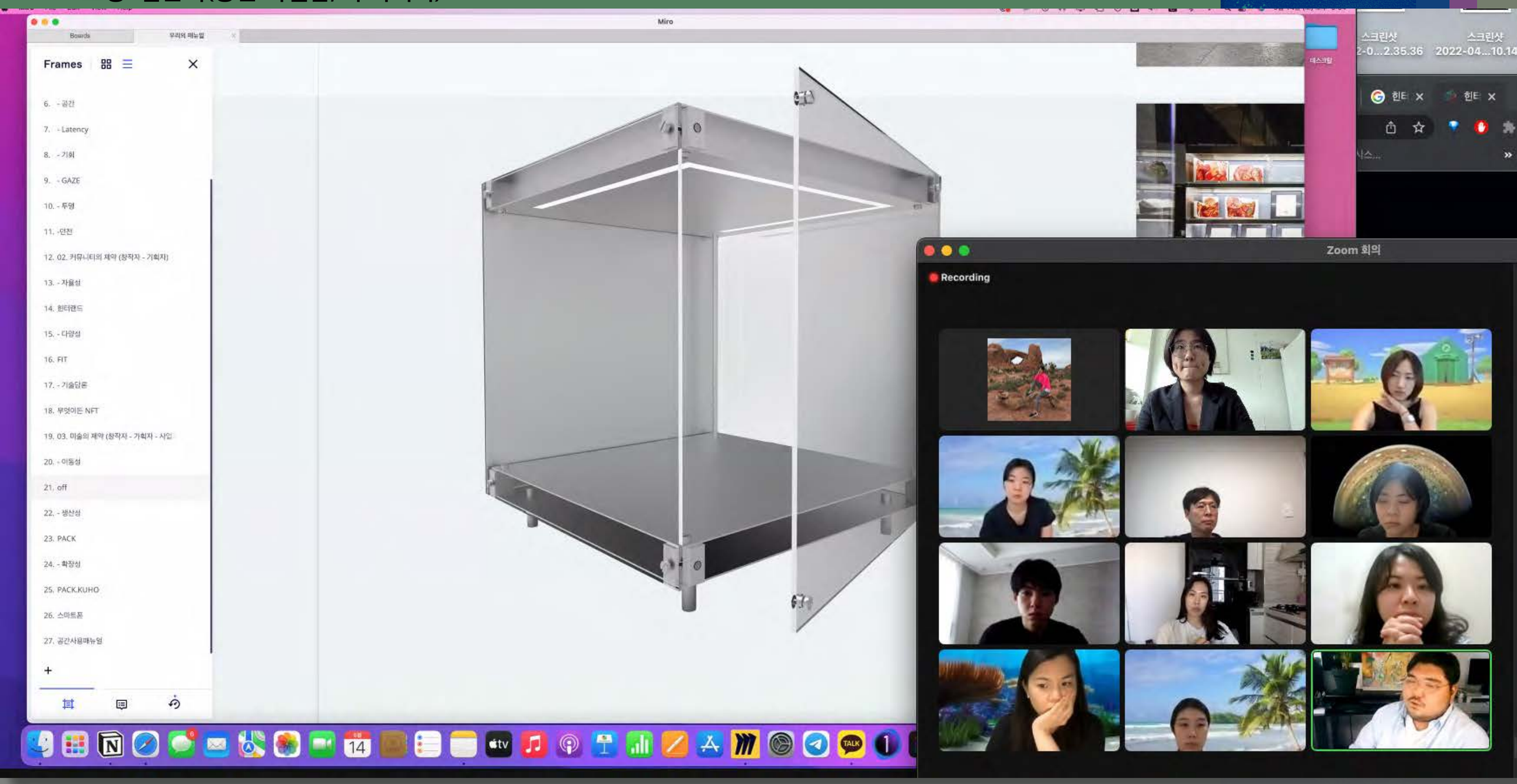
“얼마 전 『생동하는 물질』 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상호 연결성과 배치의 문제로 세계를 감각해보자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채에 걸린 물질을 볼 때, 그 배치는 우연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지구라는 행성 단위에서
필연적인 배치들의 조합이 아닐까요? 마른 나뭇가지와 죽은 쥐, 시체와 플라스틱 뚜껑 등이 걸려있는
배수구를 볼 때, 각각의 사물에 흐르고 있는 맥락은 그 사물을 둘러싼 제약과 관련됩니다.
공간사일삼은 얼터너티브 스페이스이고 팩은 상업 플랫폼인데, 이 두 가지를 연결성과
배치의 문제로 다시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안 받은 주제 ‘매뉴얼’을 제약과 배치라는 개념으로 풀어봤어요. 하나의 공간을 같이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 매뉴얼이잖아요. 공간이라는 대상이 제약 속에 있는 거죠. 저의 활동은 이것이 작동하는
여러 층위를 생각하고 다시 배치해서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사물이 담겨 있는
맥락을 제약으로, 그것들이 한꺼번에 감각되는 상황을
배치의 문제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
김윤익

다섯 번째 만남 5/14

우리의 매뉴얼

공간사일삼의 공간의 공유를 위해 서로가 지켜야할 규칙을 담은 공간사용매뉴얼과
미술 활동장을 위해 시도한 '팩PACK' 이야기를 들어본다
초청: 김윤익(공간 사일삼/팩 디렉터)



배치의 문제로 다시 보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안 받은 주제 '매뉴얼'을 제약과 배치라는 개념으로 풀어봤어요. 하나의 공간을 같이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 매뉴얼이잖아요. 공간이라는 대상이 제약 속에 있는 거죠. 저의 활동은 이것이 작동하는
[illegible]를 생각하고 다시 배치해서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과정입니다. 사물이 담겨 있는
맥락을 제약으로, 그것들이 한꺼번에 감각되는 상황을
배치의 문제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
김윤익

'우리의 매뉴얼' 강의 자료 페이지

#제약 #배치 #자율성

야할 규칙을 담은 공간사용매뉴얼과
어본다

제안

간을 같이 사용하기 위해
동은 이것이 작동하는
사물이 담겨 있는

'우리의 매뉴

Maps

여섯 번째 만남 5/21

부산, 미술, 현재

부산에서 대안적인 미술씬을 선보여 온 공간 힘과 오픈스페이스 배를 초청하여,
지역에서 미술 하기의 현재에 관해 대화해본다
초청: 김정훈(오픈 스페이스 배 프로그램 디렉터) × 김선영(공간 힘 큐레이터)
장소: 공간 힘 세미나실

“그간 줌에서 만나는 시간을 이어왔는데요, 이제부터는 부산의 문화예술 공간에 직접 방문해 설립과 운영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안공간 두 곳을 한자리에 초청드리게 됐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두 공간의 교류에도 쓰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공간 모두 모든 운영진이 함께 참여해주셔서 무척 뜻깊습니다.
오픈스페이스 배는 2006년 설립해 오랜시간 지역의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 터전을 옮기는 등 변화를 겪는 중에도 작가 레지던시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유지해왔습니다. 공간 힘은 2014년 개관해 사회 참여적인 큐레토리얼을 보여주는 비영리 예술공간입니다. 두 공간은 활동의 결이 조금 다르지만, 모두 지역의 미술에 있어 중요한 실천입니다.
오픈스페이스 배의 김정훈 프로그램 디렉터님, 공간 힘의 김선영 큐레이터님, 먼저 두 공간의 설립 동기와 운영 방식, 연례 프로그램(전시, 워크숍,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지역에서 미술 공간을 운영하는 현실에 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만남 5/21

부산, 미술, 현재

부산에서 대안적인

지역에

변화

개관해 사회 참

다르지만, 모두 지역의 미술에 있

오픈스페이스 배의 김정훈

동기와 운영 방식, 연

지역에서 미술 공

“2020년부터는 소규모 인원으로 토론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실기를 전공하던 시절, 큐레이터를
꿈꾸면서 교수님께 찾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니 농담처럼 유학을
가거나 서울에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분들을
동료 삼고 싶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

김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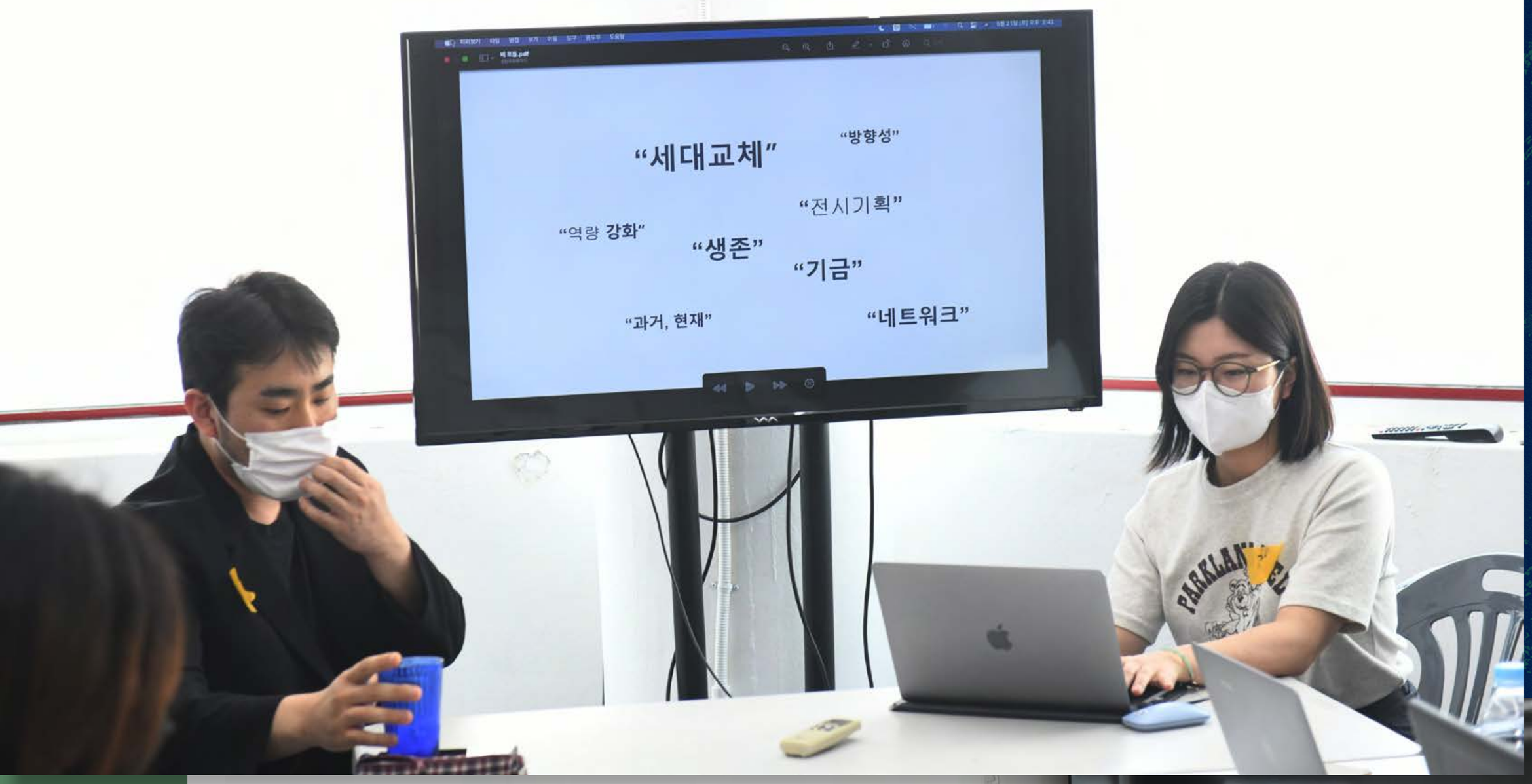
등,

히은 2014년

“배 운영진은 최근에 세대교체를 겪었습니다.
그간 배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에 웬만한 작가 분들이 거쳐갔습니다.
이제 기성 세대가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세대교체를 바탕으로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려 합니다. 현재는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얼마만큼 우리 모습대로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간 지원 기금을 받지 못해서 어려운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재정비할 수 있는 재밌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열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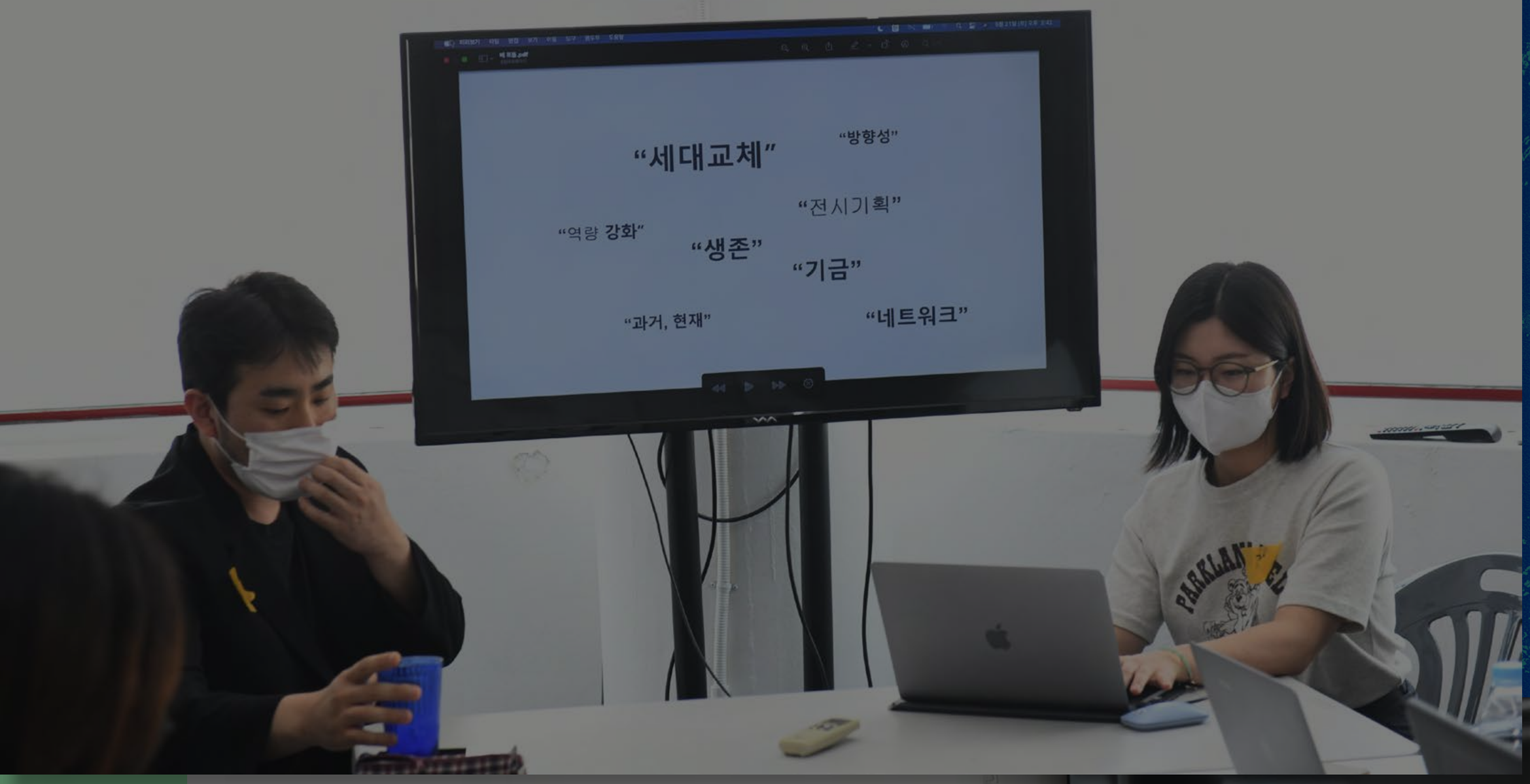
김정훈



오픈스페

동기와 운

지역에서



오픈스퍼

동기와 윤

지역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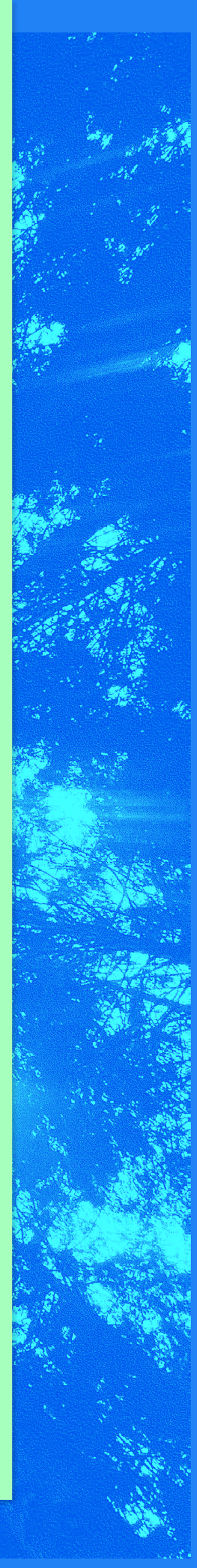
#세대교체

#동료_혹은_용병

일곱 번째 만남 5/28

삶의 공간이 된 마을 책방 '책과 아이들'

지식을 교환하고 삶을 공유하는 공간이 된 마을 어린이 서점을 방문해본다
초청: 잠잠이선생님 강정아 × 구름아저씨 김영수(책과 아이들 공동 대표)
장소: 책과 아이들 구름빵



“우리는 지금 바깥 정원의 햇볕이 들어오는 공간에 둘러앉아 있는데요, 책과 아이들의 책사랑방 ‘구름빵’입니다. ‘책과 아이들’은 1997년 문을 연 이래 25년째 수많은 어린이 독자와 동화 작가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역에 뿌리 내린 서점입니다. 책을 판매하는 서점 공간 외에도 아름드리 동백나무와 철 따라 다른 꽃이 피는 마당, 마당으로부터 서점 공간으로 들어와 있는 책과 말의 공간 구름빵, 책을 읽고 머물 수 있는 책사랑방, 원화 전시를 선보이는 갤러리, 숙소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작가와의 만남을 비롯해 연극, 그림책 교실, 이야기할머니에게서 옛이야기 듣는 시간, 독서 모임, 강연, 워크숍, 캠프 등이 열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직접 공연에 출연하신다고 해요. 이 놀라운 공간과 수많은 알찬 프로그램을 두 분이 꾸려오고 계시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강정아, 김영수 대표님께서는 서점에서 잠잠이 선생님, 구름아저씨라는 이름을 사용하시는데요, 두 분 이름에 얽힌 이야기 소개해 주시면서 서점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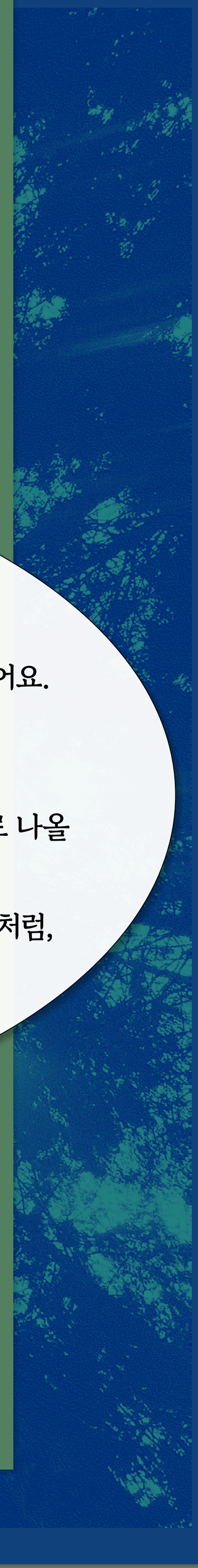
일곱 번째 만남 5/28

삶의 공간이 된 마을 책방 '책과 아이들'

지식을 교환하고 삶을 공유하는 공간이 된 마을 어린이 서점을 방문해본다

초청: 잠잠이선생님 강정아 × 구름아저씨 김영수(책과 아이들 공동 대표)

장소: 책과 아이들 구름빵



“우리는 지금 바깥 정원의 햇볕이 들어오는 공간에 둘러앉아 있는데요, 책과 아이들의 책사랑방 ‘구름빵’입니다. ‘책과아이들’은 1997년 문을 연 이래 25년째 수많은 어린이 독자와 동화 작가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역에 뿌리 내린 서점입니다. 책을 판매하는 서점 공간 외에도 아름드리 동백나무와 철 따라 다른 꽃이 피는 마당, 마당으로부터 서점 공간으로 들어와 있는 책과 말의 공간 구름빵, 책을 읽고 머물 수 있는 책사랑방, 원형 자리를 서점이 가져다 주는 공간이 있어 이곳에서 작가와의 만남을 비롯해 연구 그림책 교실 이야기 할머니에게서 옛이야기 듣는 시간 동서 모임 강연 [illegible] 수많은 알찬 [illegible] 강정아, 김영수 대표 [illegible] 두 분 이름에 얽힌 [illegible]

“서점은 어린이 전문 서점으로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며 청소년이 되니 청소년 책도 갖추게 되었고
가족이 함께 오니까 어른들도 볼 수 있는 책을 구비해 이제는 동네 책방이 됐어요.
책은 특정 주제에 맞게 수집해서 사람들이 잘 볼 수 있게 차려 놓고,
항상 그 배열을 바꾸어 둡니다. 북 큐레이션이라는 말을 일찍부터 썼어요.
아이들의 관심사에 따라 주제 연구 워크숍도 진행해요. 올해는 동물권이 주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너는 시인이구나!” 라는 말에 부끄러워하며
“나도 알아”라고 말했던 레오 리오니의 『잠잠이(Frederick)』의 주인공 잠잠이처럼,
내가 나를 알고 아이들도 자기를 알게 키우고 싶어요.”

—

강정아

39

책은 특정 주제
항상 그 배열을 바
아이들의 관심사에 따라
것 같습니다. 친
“나도 알아”라고 말했던
내가 나를

41

#마당

#신발벗는서점

#이야기할머니

여덟 번째 만남 6/4

로컬 속으로 들어온 큐레이터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이 부산의 현장과 사람들에게 접속했던 여러 방법을 청해 듣는다
초청: 로저 브뤼겔(2012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
장소: ZOOM

“오늘은 오랜만에 줌에서 만났습니다. 로저 브뤼겔 2012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 모시고 8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로저 브뤼겔은 철학과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큐레이터로서 역사·철학·예술·교육 등 다양한 지적 분야를 시각예술과 접목해 다각적인 시각과 공동의 경험을 제시하는 독창적인 큐레토리얼을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2007년 도큐멘타 12의 예술감독으로 선정되어 ‘삶, 교육, 모더니티’를 주제로 지역의 정치·경제·역사적 문제를 복합적으로 다룬 전시를 보여줬습니다. 이 주제들이 2012년 부산비엔날레 전시 기획으로 이어져 ‘배움, 정원, 관객’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민들로 이루어진 ‘배움 위원회’와 함께 꾸린 《배움의 정원》을 기획하기에 이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2012년 당시 배움위원회에서 코디네이터로서 사람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신 이현민 님, 배움위원회에 참여하셨던 박세희, 김민지, 김지호, 박은숙, 성은아, 손태권, 채규현 님이 함께 참여합니다. 로저 브뤼겔 감독님의 강연 소식에 10년전 멤버들이 다시 모인 것을 보며, 문득 2022년 현재 워크숍에서 모인 우리들은 어떤 우리로 미래에 기억될지 궁금해 집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청해 듣겠습니다.”

여덟 번째 만남 6/4

로컬 속으로 들어온 큐레이터

2012부산비엔날레 <배움의 정원>이 부산의 현장과 사람들에게 접속했던 여러 방법을 청해 듣는다

초청: 로저 브뤼겔(2012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

장소: Z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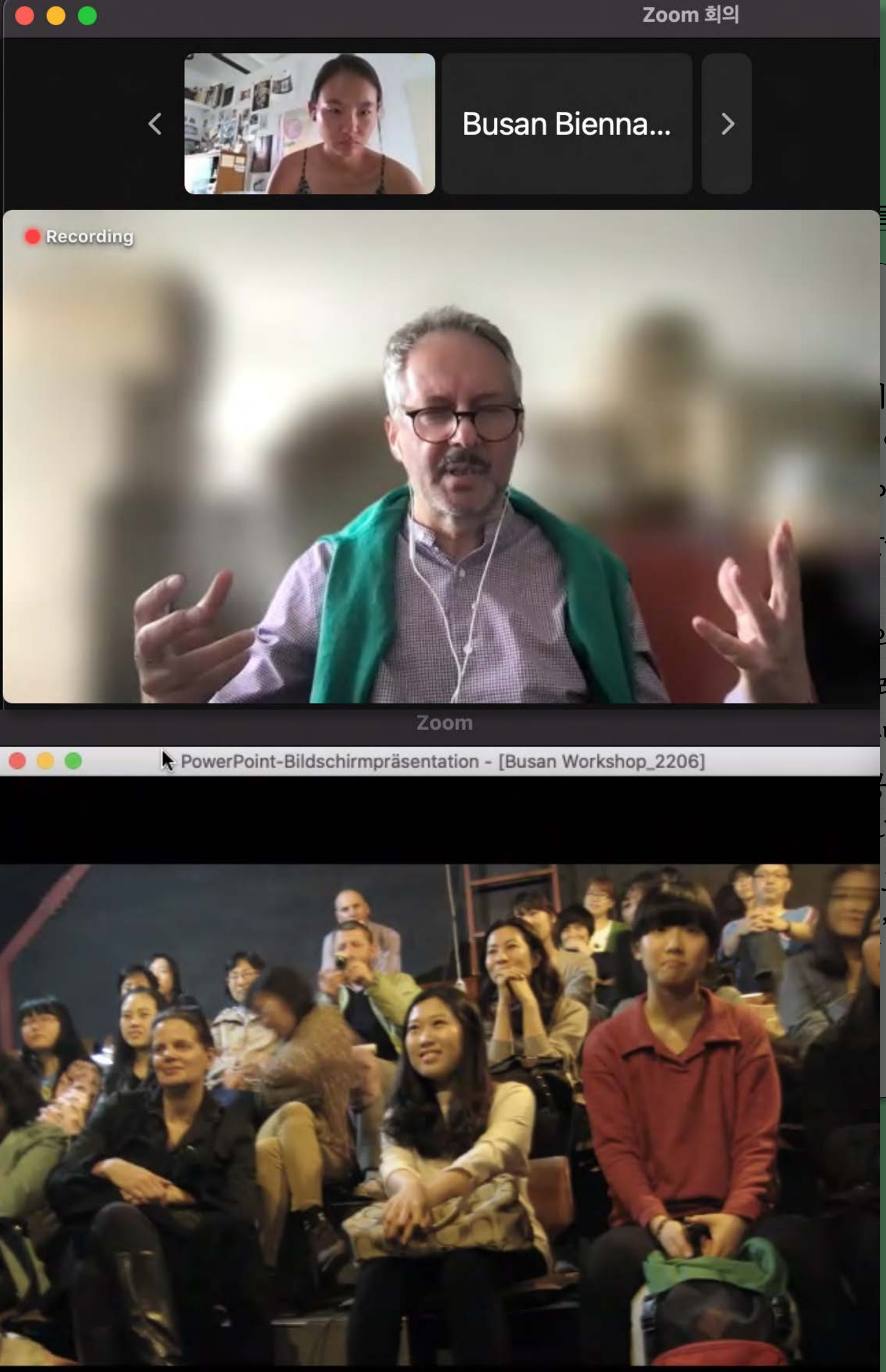
“예술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완성된 이후에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도중에 바꿀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엔날레에서는 처음부터 배움위원회의 사람들과 함께 이 교육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큐레이터가 작가들과 처음부터 같이 전시를 만들 듯이 말입니다.”

“큐레이터는 예술가도 공무원도 아닙니다. 큐레이터의 아이디어는 중요하지만 전시 제작 과정에서 생성되며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큐레이터는 과정의 함수가 되어야 합니다. 큐레이터는 기관이나 관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원칙적으로는요. 전시를 만드는 과정에는 손에 잡히는 생산물은 없지만, 공통된 정신, 분위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아이스크림, 새 차, 돈)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당신의 일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좋은 예술과 좋은 전시는 ‘진실’에 관한 것입니다.”

—

로저 브뤼겔

44



들는다

| 완성된 이후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들 듯이 말입니다."

의 아이디어는 중요하지만
레이터는 과정의 함수가 되어야 합니다.
닙니다. 적어도 원칙적으로는요.
통된 정신,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에 관한 것입니다."

| 완성된 이후에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교육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들 듯이 말입니다."

의 아이디어는 중요하지만
레이터는 과정의 함수가 되어야 합니다.
니다. 적어도 원칙적으로는요.
통된 정신,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에 관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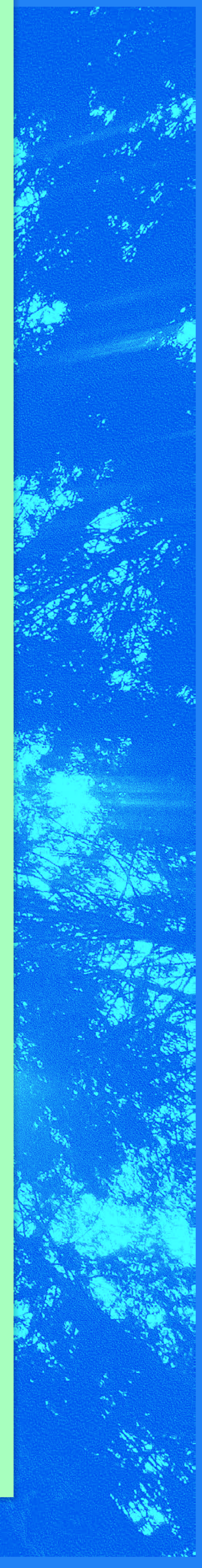
#즉흥 #교육 #소통

아홉 번째 만남 6/11

로컬 산책

지역, 예술, 자연이 어우러진 시간을 선사해 온 실험실 C의 가이드와 함께 산책한다
초청: 숲 큐레이터 박미라 × 아트 디렉터 창파(실험실 C)
장소: 수정산

“오늘 우리는 수정산 입구에서 만났습니다. 산복도로의 도시인 부산에서 산길을 걸으며 도시를 내려다보면서 그간의 워크숍에서 나눈 대화를 기억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실험실 C에 수정산에서 진행되었던《소요의 시간》프로그램을 다시 진행해주실 수 있을지 요청드렸습니다. 실험실 C는 박미라 숲 큐레이터와 창파 아트디렉터 두 분의 협업으로 ‘식물, 지역, 예술’을 키워드 삼아 활동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산과 바다의 한 조각을 오랜 시간 공들여 바라보고 장소에서의 경험을 기획합니다. 수정산 일대에서의《소요의 시간》, 영도에서의《부유의 시간》, 다대포에서의《1제곱미터의 우주》까지 경험을 기획하는 큐레토리얼 프로그램을 선보여왔습니다. 오늘은 실험실 C의 첫 프로젝트인《소요의 시간》의 기획을 풀어보는 워크숍입니다. 2020년 진행했던《소요의 시간》은 참여작가, 지역 전문가와 함께 수정산 일대를 리서치하고, 그 결과를 작품 전시와 숲 해설로 엮어 지역 주민과 함께 여름 산책과 가을 산책을 통해 경험의 시간으로 풀어낸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실험실 C에게 당시의 리서치 이야기와 산에 놓였던 전시 작품 소개를 들으며 산길을 걷겠습니다.
스트레칭도 마쳤으니 산길을 산책할 준비가 된 것 같네요. 이제 출발해 볼까요?”



아홉 번째 만남 6/11

로컬 산책

지역, 예술, 자연이 어우러진 시간을 선사해 온 실험실 C의 가이드와 함께 산책한다

촉진: 숲 큐레이터 박미라 × 아트 디렉터 창파(실험실 C)

장소: 수정산

“오랜만에 오니 같은 장소 같은 나무인데도
다르게 보여요. 그때는 이 숲이 이렇게 이상했는지 몰랐어요.
이후에 리서치했던 영도나 다대포는 비교적 야생의 모습인데
수정산에는 인간의 손이 많이 닿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 중간에
한때 가로수로 유행했던 개잎갈나무가 있고, 편백나무 숲이 조성돼
있다든지 길따라 산수유가 나 있다든지.. ”

—

박미라

다대포에서의 《1제곱미터의 우주》까지 경험을 기획하는 큐레토리얼 프로그램을 선보여왔습니다.

오늘은 실험실 C의 첫 프로젝트인 《소요의 시간》을 참여작가, 지역 전문가와 함께 수정산 일대를 리서치하고,

2020년 진행했던 《소요의 시간》은 해설로 엮어 지역 주민과 함께 여름 산책과 가을 산책을 통해 경험의

그 결과를 작품 전시와

시간으로 풀어낸 프

전시 작품 소개를

스트레칭도 마

“도시와 자연의 경계는 끊임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다양한 계기가 있어요. 인간의 개입이 굉장히 많은 거죠.
보통의 지역 리서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 도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저희의 큐레토리얼은 생태를 바라보면서 그 경계를 와해시키거나
조직해 나가는 방법론인 것 같아요.”

—

창파

아홉 번째

로컬 산

지역, 예술

초등: 숲 큐

장소: 수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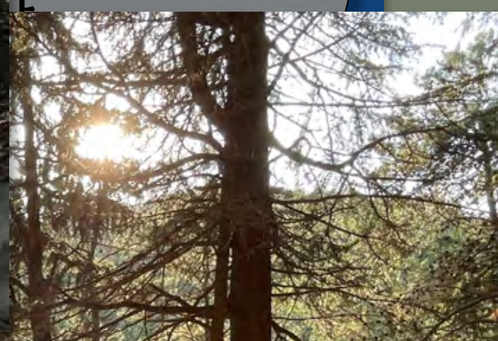
다

이

수정산에는 인간의 손

한때 가로수로 유행

있다든



#수정산

#도시_산_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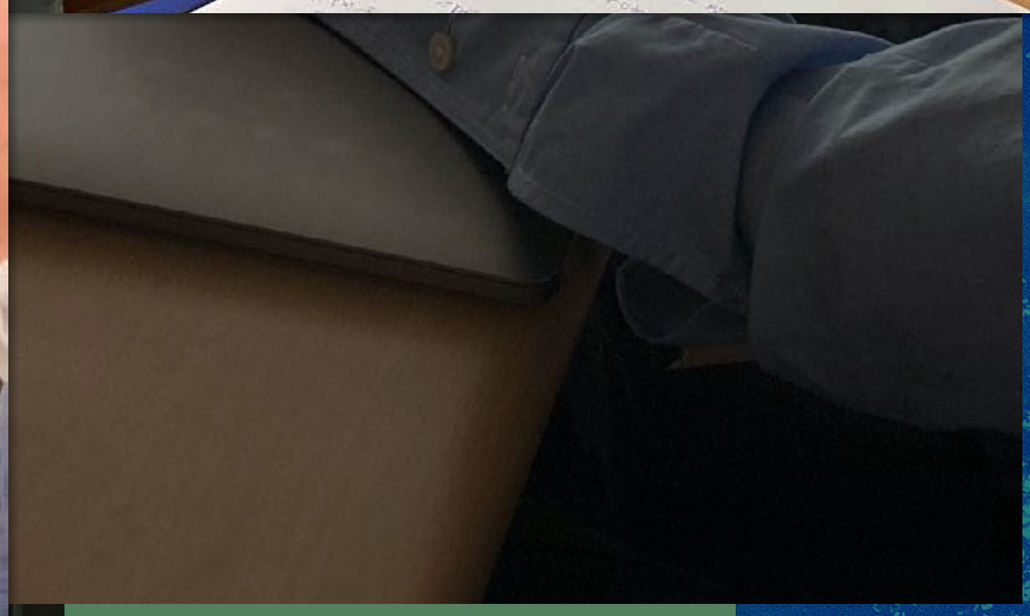
열 번째 만남 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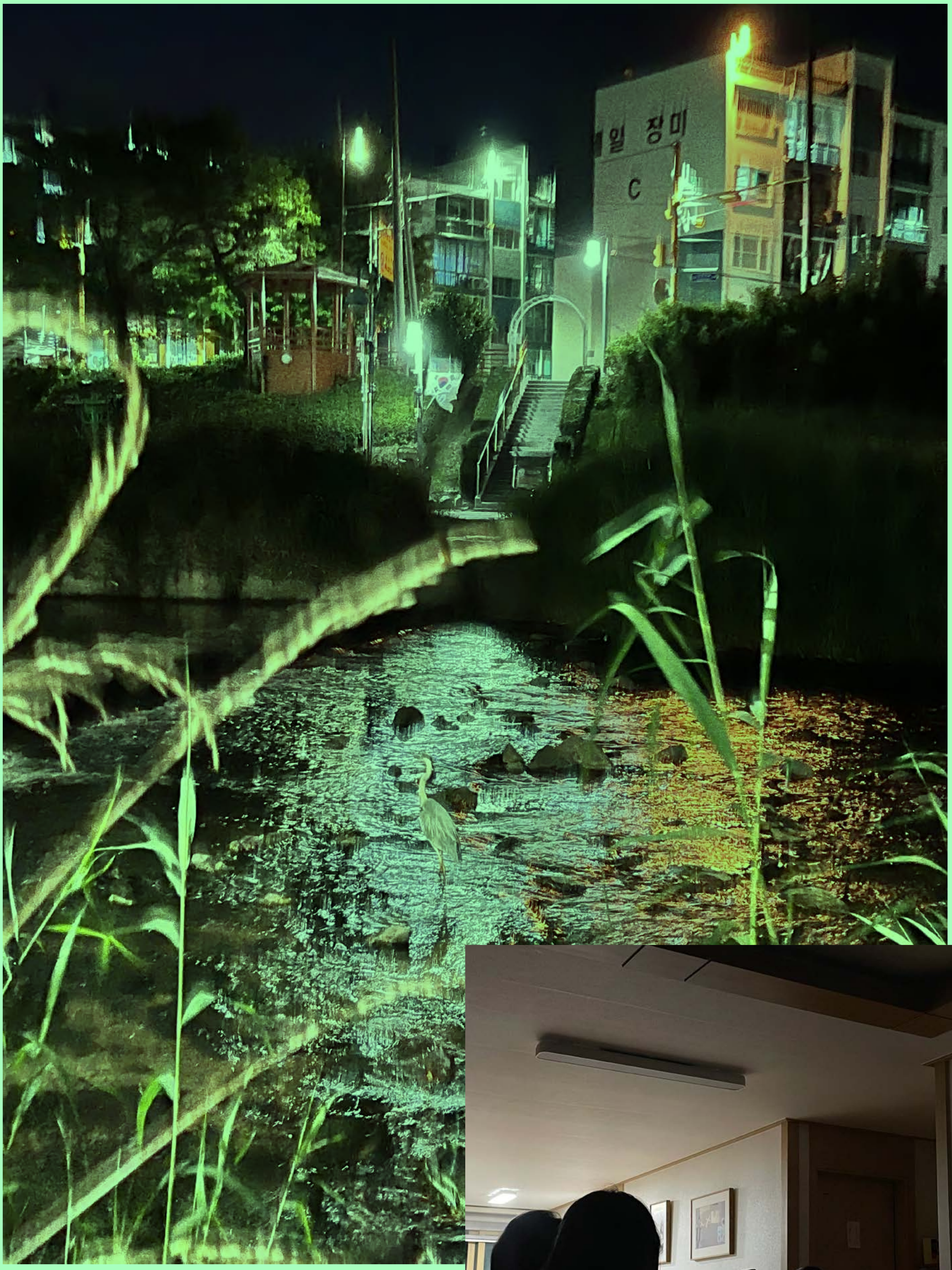
원 없는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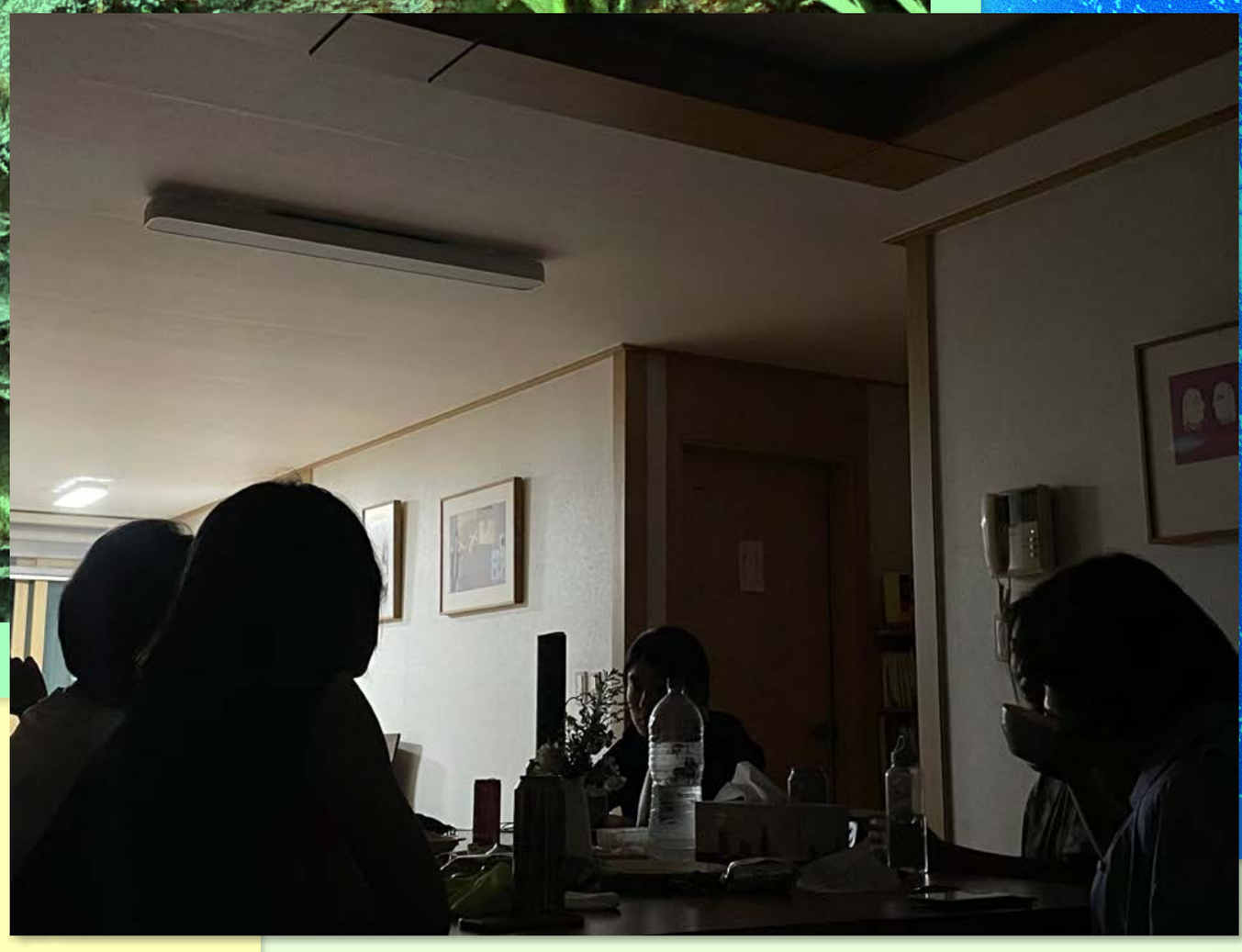
워크숍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며 원 없이 대화한다
참여: 「우리가 되는 방법들」 참여자 전원
장소: 책과 아이들 숙소

“마지막 워크숍에서는 시간제한 없이 대화하고 싶다는 여러분의 공동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책과 아이들에 숙소 공간이 있어 다시 찾았네요. 오늘은 기록집에 들어갈 글쓰기에 관해 결정해 보고, 음식과 술을 나누며 못다 한 이야기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오늘은 촬영 기사님이 계시지 않으니 우리가 직접 기념하고 싶은 순간을 찍기로 해요. 배경 영상은 다나카 고키(Tanaka Koki)의 작업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How to Live Together)〉인데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공동체가 되는 과정을 다룬 이 작업에서도 우리처럼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 작업에서 ‘우리’는 모두 한자리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카메라에 담긴다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계기에서 출발해요. 오늘 우리도 마음껏 서로를 찍고, 피사체가 되어 주기로 해요.”

입시: 2022. 5. 4. ~ 7. 20.




일 장미
C



FOLK ARCHIVE

우리

우리가

우리가 되는 방법들

우리가 될 수 없는 이유

이제 **우리**

참가하는 **우리**

우리가 될 수 없는 이유들

우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되고 싶지만

우리가 되려고 하면 뭔가 해야 하는

제목의 '**우리**'

좀 더 큰 **우리**

굉장히 작은 스케일의 **우리**

우리를 이루는 것

우리가 되는 것

공동체 **우리**

우리라는 이야기

조그마한 **우리**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는 시간

우리라는 거대 담론

억지로 **우리**를 만들려는 사람

우리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닌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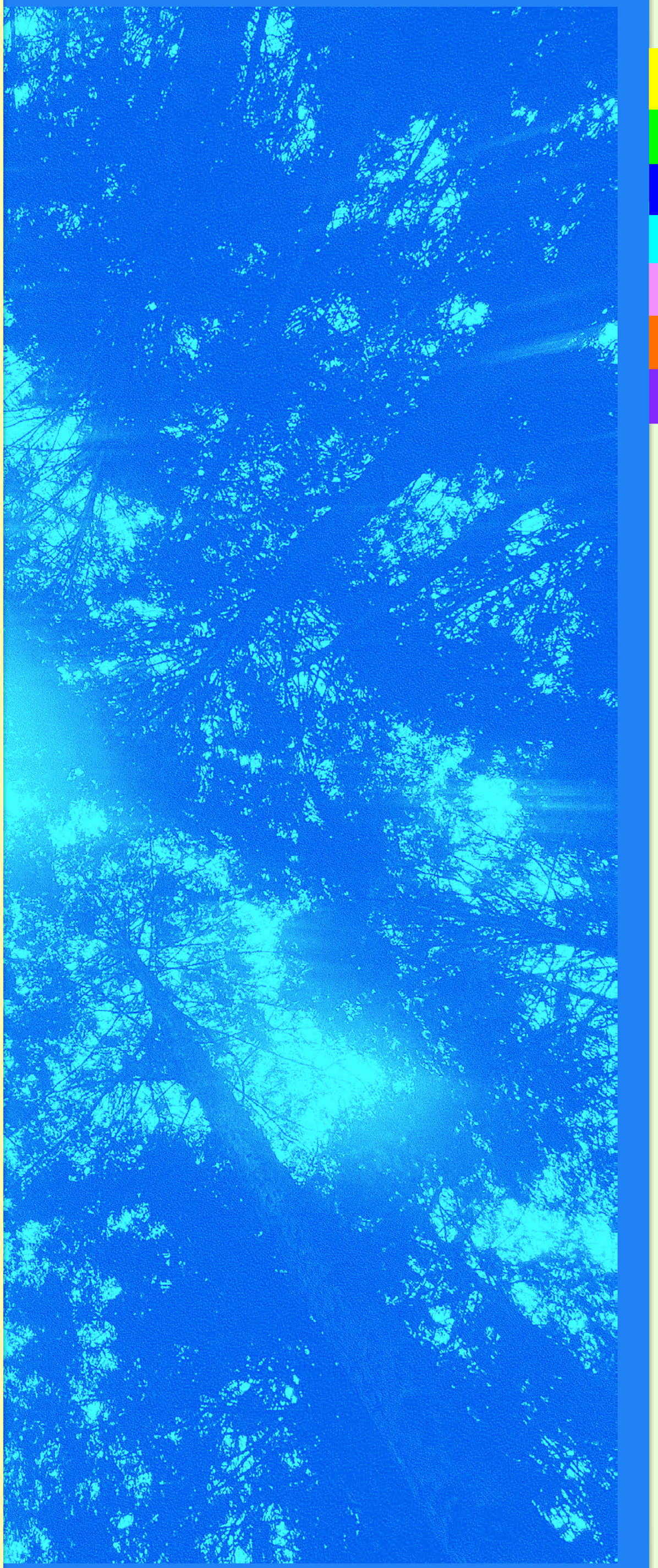
각자에게 이상적인 **우리**

우리의 형태

우리들 사이의 거리

그러면 **우리**

우리



대화

5/28

7회차 워크숍 마친 후 발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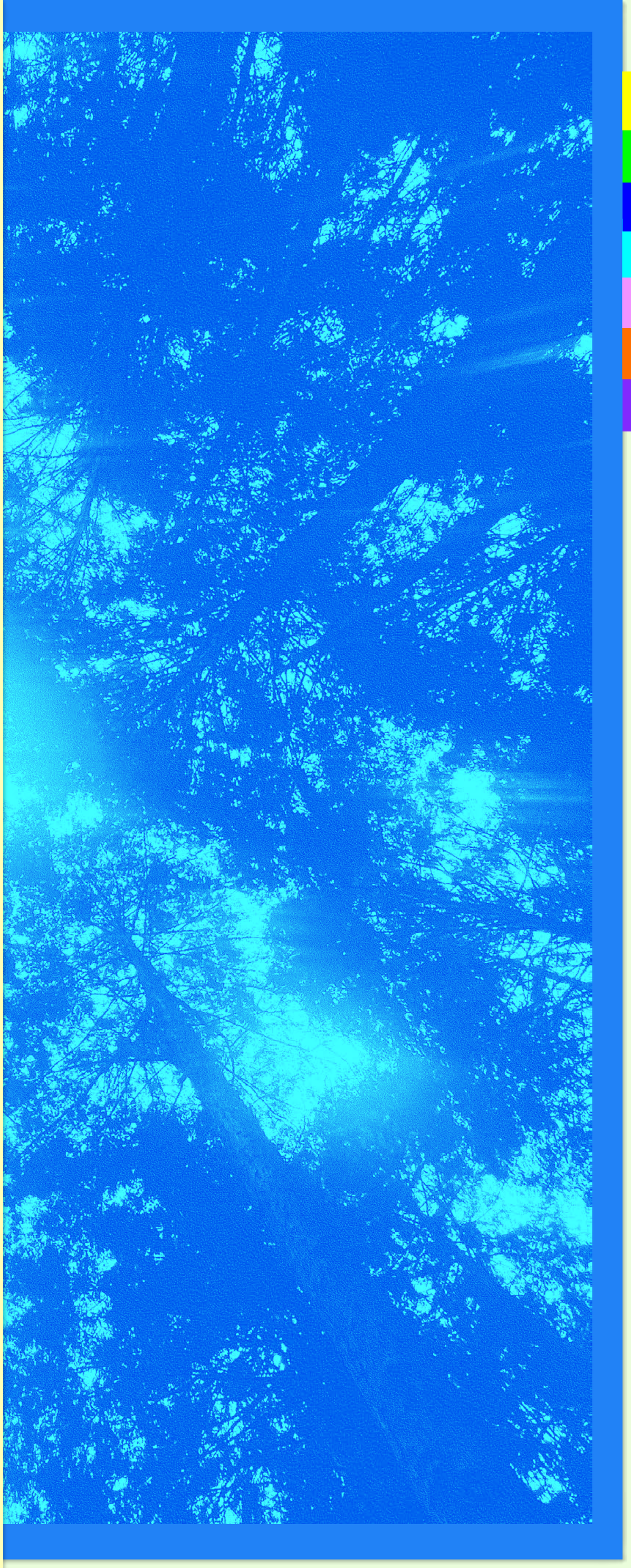
참여자들의 대화의 순간

-

워크숍의 중반을 넘어서는 무렵부터

참여자 간의 대화가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순간이라는 생각에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대화

이유진

'우리가 되는 방법들'이라는 주제로 각자 글을 쓰기로 했는데, 추가로 공동의 글을 쓴다면, '우리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써보면 어떨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될 수 없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참여자들도 보면 다양한 이유로 여기에 모여있지만, 동시에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자 선택한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연히 모이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 학교나 여타 기관에 모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각자의 글에서는 우리가 되는 방법들이라는 긍정적인 글을 쓰고, 공동의 글에서는 그럼에도 우리가 되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 지점은 어디인가에 대해서 한 문장씩 쓰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니까.

우아름

우리가 되는 방법들과 우리가 될 수 없는 이유들?

이유진

우리가 되지 못하는 이유들!

김경민

사실 저는 개별 글로만 쓰면 제가 우리가 되는 게 서툰 이유에 대해서 쓰려고 했어요. 사실 워크숍 제목에 끌려서 왔는데, 저도 우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되고 싶지만 나의 어떤 면들 때문에 오히려 거리감을 두는 게 더 편하고, 우리가 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뭔가 해야 하는 게 무섭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방법도 되게 좋은 게,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이 워크숍에 더 끌렸었던 것 같거든요.

김보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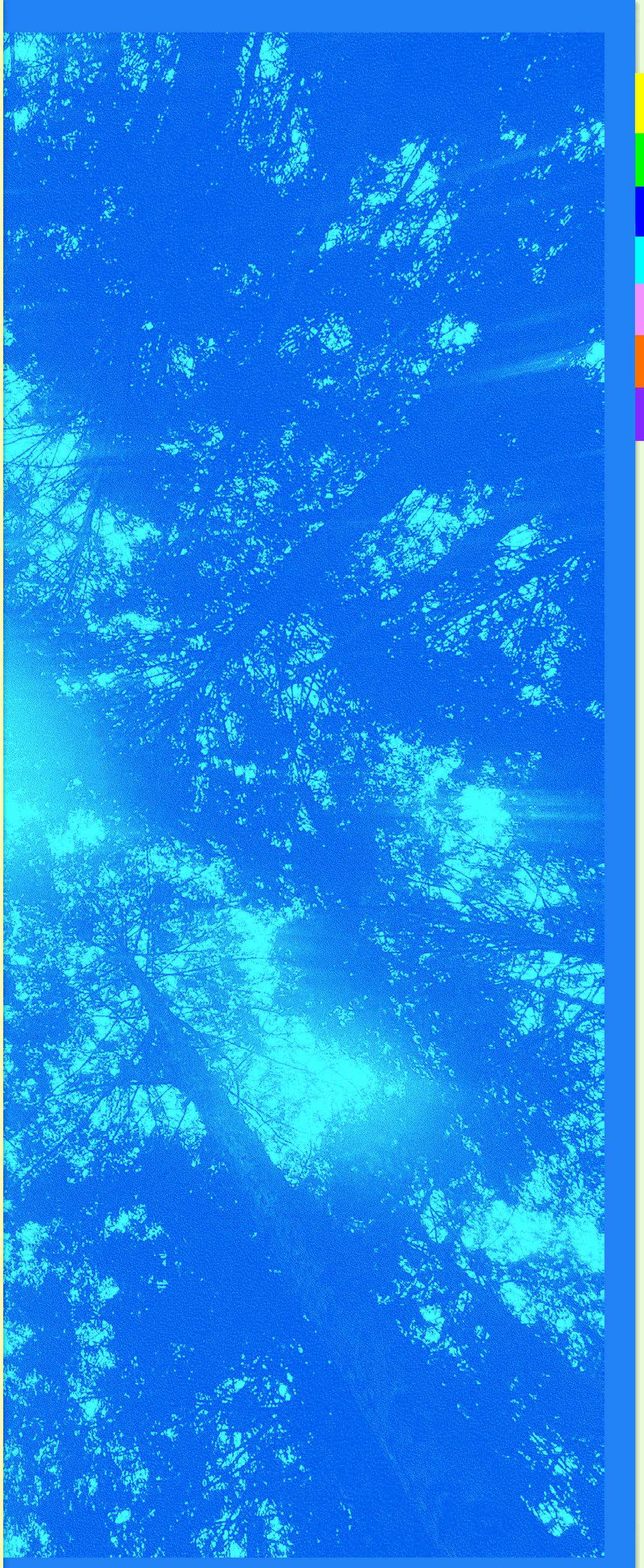
각자 이 워크숍에 지원했던 이유와 기대했던 것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김얼터

전 부산에 자주 오기 위해서 왔어요.

이솜이

저도 제목에 끌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되는 것을 너무 많이 실패해서요. 서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거나 많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참여자 분들과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일부러 거리를 두면서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대화

김경민

저는 우리가 되는 방법들을 알고 싶어서 왔어요. 사실 내가 너무 못하니까, 저랑 다른 목적으로 온 분들은 어떻게 그걸 잘 하고 있고, 내가 거기에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왔어요.

정수진

저는 제목의 '우리'를 참가하는 우리들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좀 더 큰 우리를 생각했고 이 워크숍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제가 워낙 관심 있는 주제들이라서 참여한거라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한수정

저는 일단 부산에서 뭔가 한다고 하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저도 참여자들 간의 우리라고 떠올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워크숍 공고에 나온 프로그램을 보니 더 큰 우리가 되는 방법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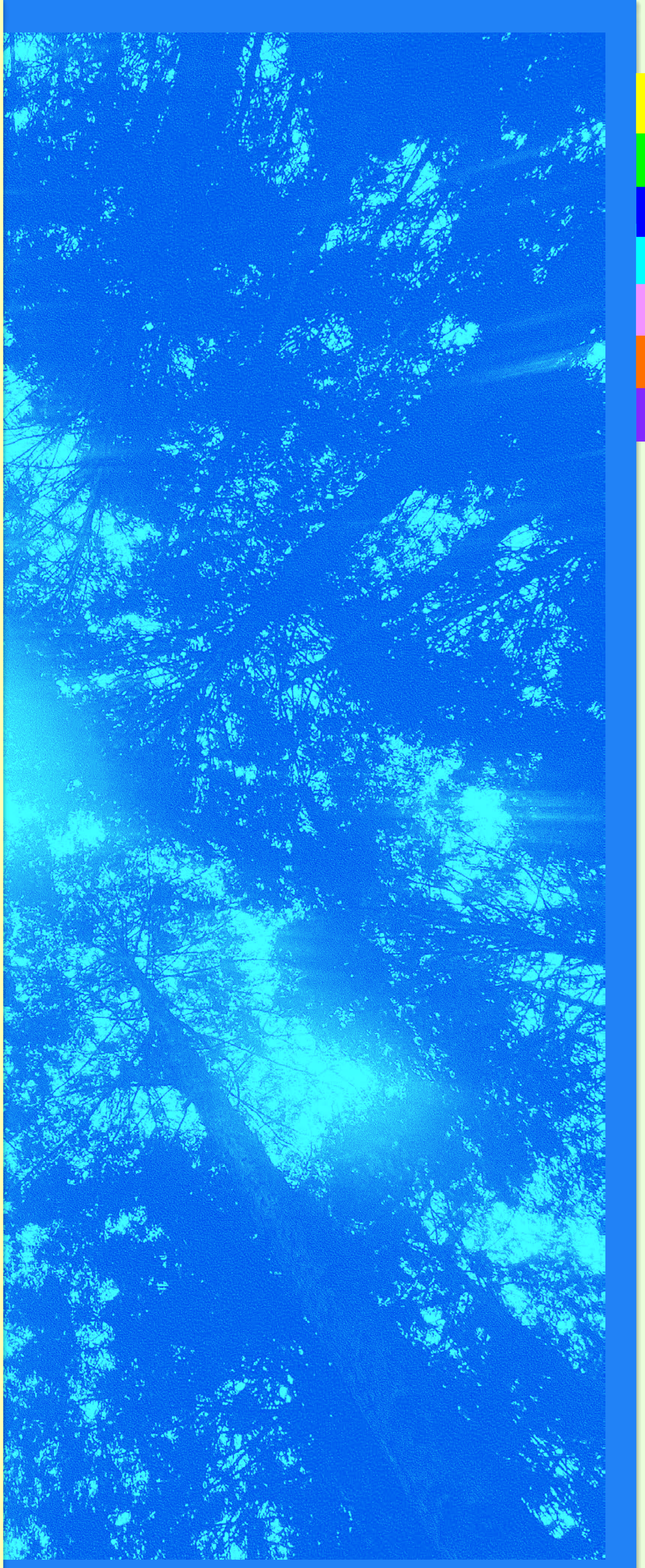
이유진

저는 개인적인 삶에서는 '우리를 이루는 것'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고, 근래에는 나름 그것에 실패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작은 스케일의 우리를 만들어서 인 것 같아요. 내 집을 중심으로 내가 같이 사는 사람들, 내 집에 오는 친구들, 지인들의 지인들. 그래서 한편으론 그걸 공동체, 사회, 나라, 세계 이렇게 확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로컬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어디까지가 로컬인지에 대해서요. 그 지점에서 저는 '우리가 되는 것'이 개인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넓어질수록 어려워진다는 지점에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김창재

일단 저는 기록자 제안을 받았을 때 되게 흥미로웠어요. 개인적으로 작업적인 면에서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 공동의 시간, 공동의 장소에 관심이 많아요. 한편으로 미술을 하면서 생기는 병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책과 아이들에서도 이질감 같은 걸 느꼈어요.

뜨거운 사명감으로 이게 내 일이라고 뜨겁게 헌신해 들어갈 수 있는 일의 영역과 달리 동시대 미술 작업에서는 메타자아를 발달시켜서 자기를 관찰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 몰입하기보다 빠져나와서 어떤 의미론을 가져야 되고 어떤 지점을 만들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 도시에서의 삶과 유사한 지점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해요. 도시에서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도록 하는 데 집중할 때 잠깐 잠깐씩 우리가 발현된다고 생각해요.



대화

워크숍에서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잡아서 활동을 하시는 사례들을 들여다보면서 힌트를 많이 얻고 싶었어요. 그런데 발표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인물론을 더 생각하게 되었어요. 즉 개인의 성취라는 느낌이 더 들고, 공동의 뭔가가 일어난 것인가? 과연 이 사람들이 빠졌을 때 이 활동들이 유지되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지점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처음에 기대했던 물리적인 장소에 대한 관심에서 점점 인물론을 보게 되는 현상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김보경

저는 처음에는 섭외하신 모든 분들이 가장 관심 있었던 분들이라서 이 분들은 어떻게 그간의 과정들을 거쳤을까 궁금했던 게 가장 컸어요. '우리'는 사실 미술에서 되게 거대하게 다루는 주제잖아요. 별 일이 다 일어나는 세상에서 공동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 남아서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을지 주장을 하는데, 사실 현실에서는 내 삶을 유지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급급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커다란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같이 행동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면서도 정작 저는 개인주의적이거든요. 그런 저 스스로에 대한 딜레마도 있었다보니까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 나는 계속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가는 건지 스스로 계속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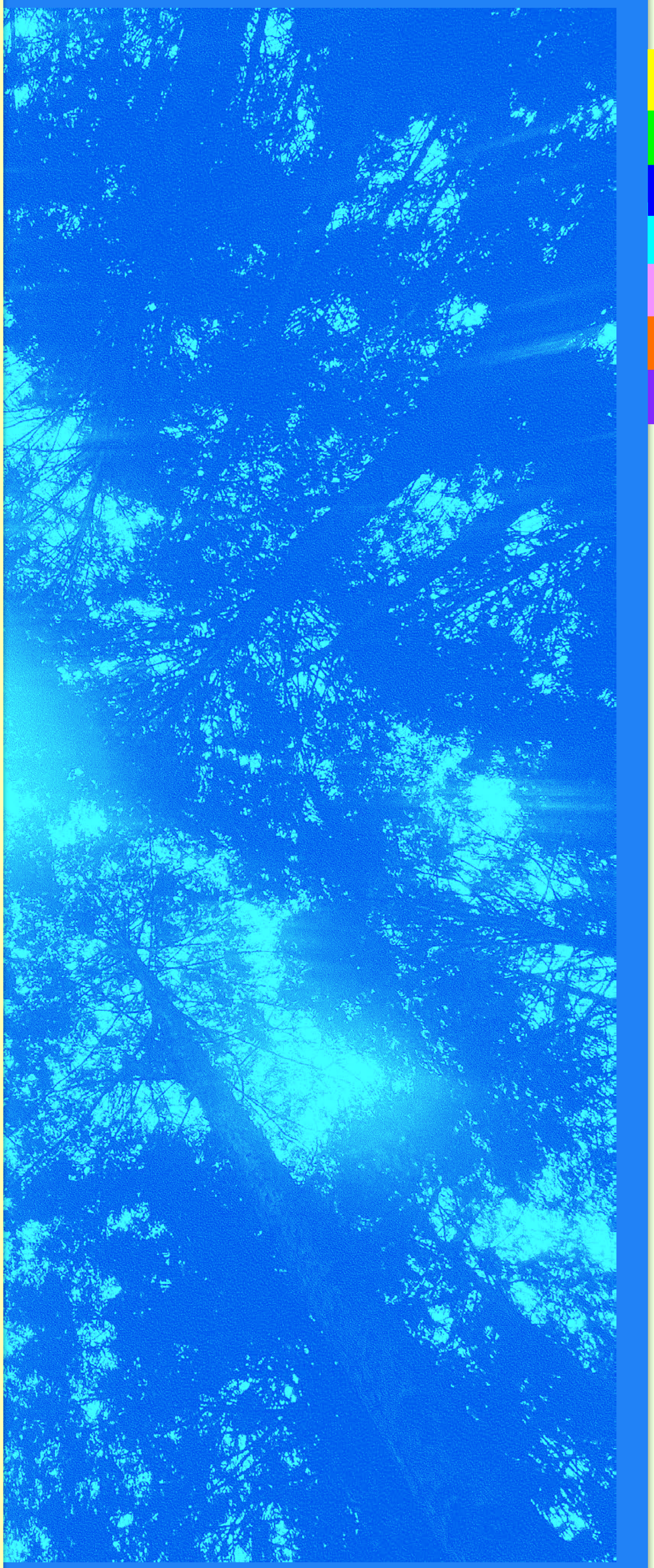
사실 우리라는 게 일종의 공산주의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공산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조그마한 우리가 소규모의 시스템을 만들고 그걸 유지해 나갈 약속을 가지려고 했던 게 결국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걸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남용된 것이 공산주의라고 생각해요.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러면서 나는 왜 개인주의적인가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관계를 갖고 갈지 궁금하고 들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제 개인주의를 좀 털어낼 수 있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게 있을지에 대해서요.

김얼터

왜 털어 내려고 하시죠? 우리가 구조적 폭력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생긴 대로 살고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그 문제로 괴로웠는데 오히려 그냥 제가 그걸 받아들일 때 더 많은 우리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굳이 자기의 개인적인 성향을 이기적이라거나 도덕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김보경

네. 최근에는 개인들이 보이고, 각자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가 되는 거구나 싶어요. 개개인 각자가 다 다르고 갈등이 생기니까 이 갈등이 생긴 게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갈등이 생겨서 우리가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대화

김얼터

저는 억지로 우리를 만들려는 사람보다 오히려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타인을 훨씬 존중한다고 생각해요. 예를들면 공동 지면을 만들어야 된다고 우기는 것보다 그냥 '저 사람은 저게 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걸 하고 싶은 것만큼' 이렇게 생각할 때 오히려 그게 옳은 방식의 우리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보경

네. 개인주의 너무 좋아요.

이유진

귀가 너무 얇은 거 아닌가요? (농담)

우아름

그렇군요. 재밌네요. 이 대화를 워크숍 기록집에 실어도 되겠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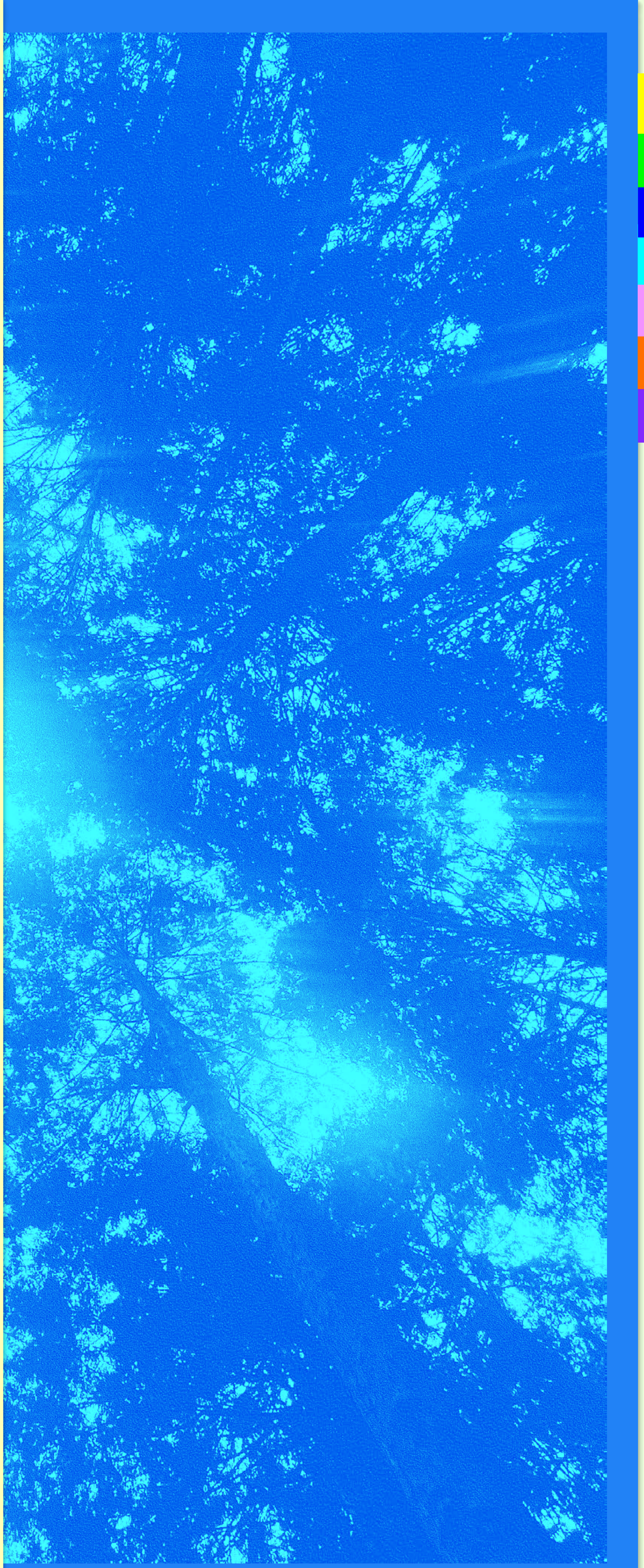
이유진

윤지 님도 말씀해 주세요.

이윤지

두 사람이 연인으로 만나도 얼마나 다른지 정말 많이 싸우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0명이 모여서 뭔가 공동의 뭔가를 만든다는 게 사실 기적처럼 느껴져요. 저희가 드리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죄송하기도 해요. 여기 모인 분들 중 글 쓰는 게 본업인 사람도 있으니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지난 주 워크숍 마치고 같이 처음으로 카페 가서 얘기하면서 다들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계셔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작업이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에 참여자로서 참여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솜이 님 말씀처럼 우연에 기댈 것 같아요. 우리라는 거대 담론에 함몰되면 더 부담되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요.

개인적으로는 미술계 바깥에 있는 친구들이 미술계 이야기를 되게 궁금해 하는데 그런 편한 이야기를 오프더레코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지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말씀하셨듯이 마인드맵도 좋고 사진도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넣을 지면이 있다는 사실이 좋으면서도 부담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공동의 결과물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공공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정반대의 것이 나올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개인이 천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풀어주시는 형태로 쓰면 부담도 되지 않고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봤어요.



대화

김보경

아예 우리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아 볼까요? 누구나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근데 펼쳐보니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닌 이야기를 써도 더 마음이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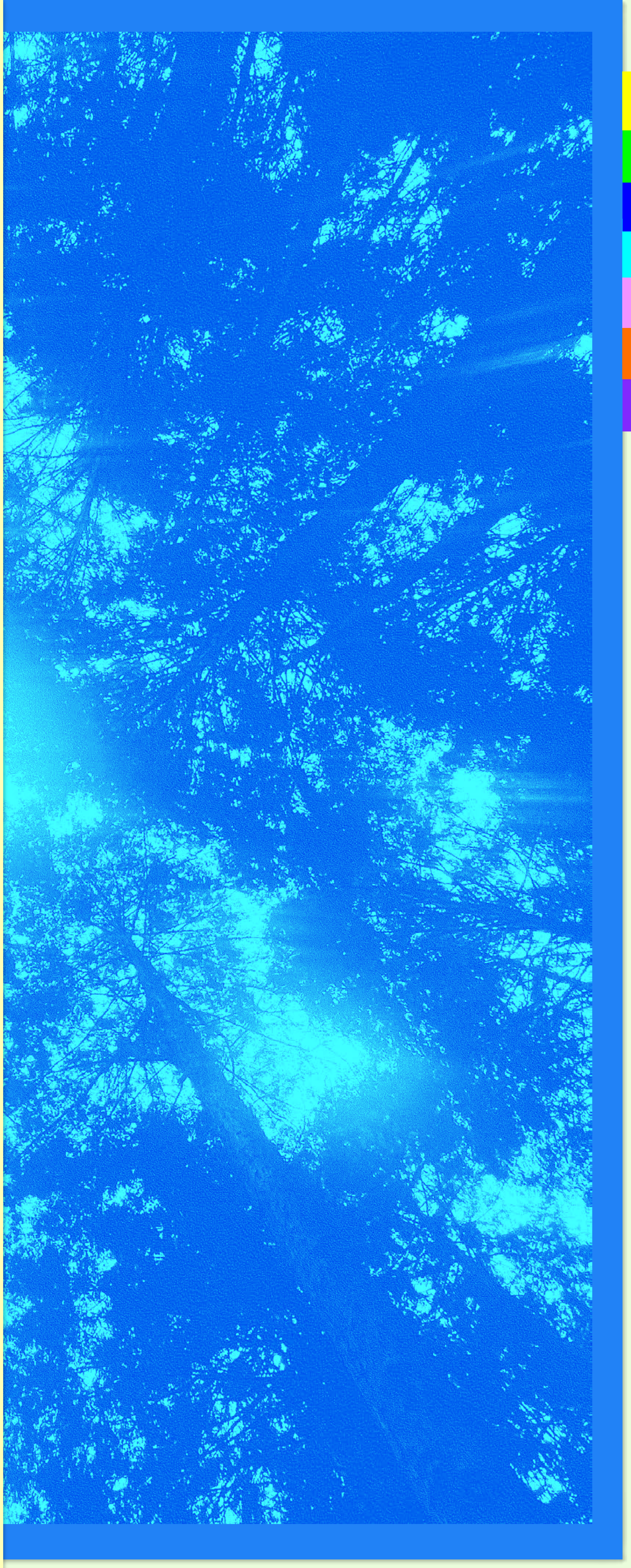
우아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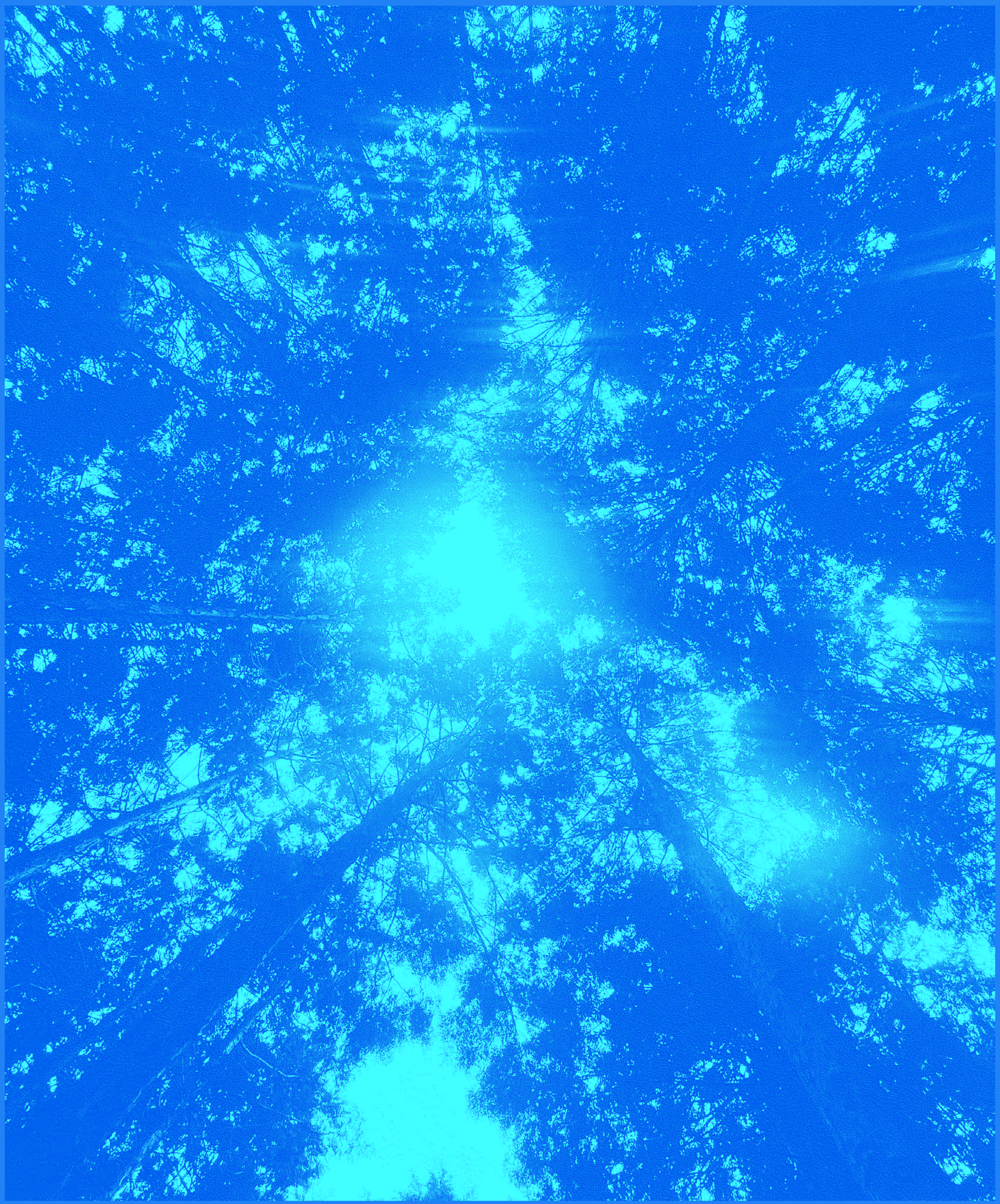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각자에게 이상적인 우리도 다 다르고 이상적인 우리의 거리감도 다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워크숍에서 상정하는 이상적인 우리의 형태라든가 우리들 사이의 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를 놓고 이야기해볼 수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록집을 생각하면서 책장을 뒤적여 보다가 『우적』이라는 책을 발견하고 여러분께 얘기해야겠다 생각했어요. 양혜규 작가 김장언 선생님 김현진 선생님 이주요 작가.. 이분들이 서로한테 보낸 글들을 모아서 낸 책에 '우적friendly enemies' 라는 제목을 단 거에요. 사실 친구이면서 적인 것이 이상적인 관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료는 서로 가까운 사이이지만, 때로는 가장 날카롭게 서로를 봐줘야 하는 관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우리라는 단어를 개념을 놓고 봤을 때 드는 생각들에서 개인 글쓰기를 시작해주시면 어떨까, 각자 쓰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글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아니면 말고요. '아니면 말고' 라는 가벼운 마음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체크해 볼까요. 일단 각자의 글을 쓴다는 건 모두가 다 동의를 한 것 같고요.





줌-인

참여자들의 무대. 우리에 관한 릴레이 글쓰기와
함께 각자의 지면에 자유 투고한 글의 모음입니다.
마지막 워크숍에서 릴레이 글쓰기의 규칙을 정하고,
워크숍이 종료된 후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열흘 간 함께 썼습니다.

개인 글쓰기

1. 지나치게 어려운 말이에요, 제겐. 김경민

2. 수정산, 박명薄明 속에서 신효진

3. 몸 있는 곳 이솜이

4. 나의 '우주 거미줄'을 구성하기 위해:

「우리가 되는 방법들」 참여 후기 정수진

5. 오버뷰, 접속 송효진

6. _____우리가 되는 방법들 이유진

7. 개인이어야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김보경

1. 지나치게 어려운 말이에요, 제겐. 김경민

우리(We) [대명사] 1. 말하는 이가 자기와 듣는 이, 또는 자기와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2.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자기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일인칭 대명사. 3. (일부 명사 앞에 쓰여)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

'우리'라는 단어가 지닌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를 알아보고자 사전을 살펴본다. '우리'라는 말은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이와의 거리가 매우 가깝다고, 둘 사이의 거리가 멀지 않다고 공표하는 행위에 가까운 걸까? 그렇다면 '우리'를 말한다는 건, 나와 네가 서로에게 가까이 있음을 이미 결정된 사실로 간주한 채 소리로 내는 용기가 필요한 일일 것이다. 그건 내 속을 내보이는 일이기에, 일종의 고백이기도 하다.

당신과 나의 거리는 꽤 가까워요. 나는 당신과 함께 묶인 '우리'를 쉽게 상상할 수 있으며, 당신에게 '우리'라 말할 수 있을 만큼 격의 없고, 서로의 관계에 확신이 있어요.

겁이 많은 나는 그 고백이 어려워서 먼 과거에 있거나, 미래에 있을지 모를 '우리'에 대해 자주 생각한다. 이미지로서의 '우리'. 내가 당신에게 용기 내어 말하지 못한 '우리'. 아직은 만나지 못했지만, 언젠가 마주할지도 모를 '우리'.

여러 사람과 함께일 때면, 나는 자주 좌절했다. 줄곧 누군가에게 '우리'라는 말을 건네기엔 아직은 먼 거리인 거 같아 서로의 틈이 좁아지기를 기다렸다. 몰래 각자의 모양을 겹쳐보며 아직 우리라 부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이내 마음을 접곤 했다.

당신과 내가 진정한 '우리'가 되는 합일의 순간만을 기다리며, 나는 '우리'를 놓치고, 또 놓치고, 놓치고. (...) 혼자 '우리'에 대해 떠들며 부산하게 서두르는 모습에 당신이 놀랄까 걱정되어 신중하게 관계를 규정하고자 했던 것인데, 어느샌가 '우리'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어려운 말이 되었다. 금방이라도 당신과 가까워질 수 있는 오늘날 모빌리티의 속도는 서로에게 '우리'라는 말을 허용하는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 불균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불균형, 혐오, 생태 위기, 생태 위기(...)

삶의 다양한 양태들을 발견하고, 스크랩하고, 천천히 오랫동안 곱씹으며 '우리'를 상상하는 정신 영역에서의 경험까지도 공동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을까? 지난한 시간을 거쳐 내적으로 확장된 그 무엇은 '우리'의 새로운 형태일까? 사월에서 유월까지, 나는 부산에서 만난 열 명의 사람들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고민을 나누었다. 이 내밀한 이야기는 단지 그들에게 건네는 수줍은 고백이다. '우리'가 되는 유일한 순간은 언제나 낯선 감정을 느끼면서도 기꺼이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당신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 당신과의 거리가 충분히 가깝다고 굳게 믿고, 지금의 낯선 감정/관계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일. 동시에 이 관계를 '우리'라는 말로 선언할 수 있는 용기.

동질성이 아닌 이질성으로 함께하기, 이웃 만들기, 낯선 곳에 나를 두기, 우연한 순간의 연속, 우연한 공동체. 마치 물결처럼. W, W, W. (...)

2. 수정산, 박명薄明 속에서　　신효진

잠에서 깬 A는 창밖을 바라보다 콘크리트 바닥으로 홀짝 뛰면 어떨까 생각했다. 그저 생각일 뿐이지 정말 그럴 요량은 아니었다. 스마트폰 화면에 보이는 시간은 3시 20분. 오늘도 시뻘건 핏줄이 가득한 눈으로 하루를 보낼 것이다. 그때 K가 건성으로 두어 번 노크를 하고는 대꾸도 기다리지 않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오늘 공간 힘에 가자."

"응? 오늘 거기서 뭐 해?"

"응 오늘 부산현대미술연구회에서 하는 포럼이 있어."

"주제가 뭔데?"

"비웃지 마. 지속가능성과 부산 현대미술."

머리가 지끈거린다는 표정을 과장되게 지어 보이며 A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놈의 지속가능성. 인간들은 무엇이든 왜 지속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일까? 인류가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타노스가 어벤져스를 이겼어야 했는데!

"같이 갈 거지?"

"아니. 너 혼자 가. 이름부터가 극혐이다. 지속가능성과 현대미술이 뭐야!"

"말로만 그렇지 같이 갈 것 다 아니까 8시까지 준비해."

어색한 웃음을 남기며 K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더는 오지 않는 잠을 뒤로하고 침대맡에 있는 책 한 권을 들었다.

커피는 재배생산지에서만 소비해야 한다는 언변으로 최근 많은 기사가 났던 P의 신간이다.

A는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커먼즈의 개념, 그리고 이를 통한 '좋은 삶'을 위한 필요 충족조건이 무엇일지 고민해보았다. 자연 뿐 아니라 미술의 영역에 있어 커먼즈의 개념이 어떻게 정립될 수 있을지, 그 속에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할지, 실천은 꼭 함께해야 효과적일지, 개인 단위의 실천은 의미가 없는 것일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찼다.

"아침 차렸어. 빨리 나와서 먹어."

머리가 복잡해져서 책을 덮고 다시 침대에 누우려는 순간 방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요거트와 과일 그리고 어제 먹다 남긴 피자 조각으로 배를 채운 A는 약속된 시간에 맞추어 나갈 채비를 마쳤다.

"우리 포럼 가기 전에 전시나 하나 볼래?"
"날도 더운데 자꾸 어디를 같이 가자는 거야?"
"전시 엄청 좋다고 하니까 같이 보자."

뉴욕과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Y의 개인전. A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전시는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연출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생각하는 작가의 마음씨가. 전시라는 외피를 쓰고 있으나 그 이면에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미래세대를 위한 고민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인류 모두가 접근할 수 있고 바라는 미래를 담지하고 있었다. 인류 멸절이 지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늘 꿈꿔왔던 A. 전시를 보며 타인을 향한 마음속 장벽의 높이가 약간은 낮아졌다는 것을 스스로는 알지 못하였다.

"전시는 어땠어? 엄청 좋았지?"

"뭐... 그럭저럭. 포럼 늦겠다. 빨리 움직이자."

공간 힘은 이미 포럼에 함께 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첫 발제자 B의 이야기는 기대와는 다르게 꽤 흥미로웠다. 외국인의 시각으로 비엔날레를 이끌었던 예술감독 B.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는 다양한 소통 방식을 통해 생산 중심적인 예술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주제가 아닌 방법론을 근간으로 전시를 꾸리고 그 과정을 공유하고자 노력한 B의 태도는 곱씹어볼 만했다. 그 이후 두어 명의 발제자가 더 있었으나 너무 원론적이라 생각한 A는 한시라도 빨리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다.

지겨움을 참지 못한 A가 K에게 귓속말을 했다.

"그만 듣고, 밀면이나 먹으러 가자. 나 배고파."

화장실을 가는 듯 자연스럽게, 그러나 신속하게 문밖으로 나온 두 사람.

"내 이럴 줄 알았어. 무슨 지속가능성과 현대미술이야. 흰소리만 가득하네."

"미안 미안. 나는 주말이니까 그냥 너랑 함께 뭐라도 하고 싶었어. 밥은 내가 살게."

포럼 장소에서 나와 평소 즐겨 가던 밀면 집에서 늦은 점심을 먹은 두 사람은 근처 책방에서 사고 싶은 책 한 권을 고르고, 소화를 시키기 위해 수정산에 오르기로 했다. 수정산 곳곳에는 자연과 어우러진 여러 조형물이 세워져 있었다. 과거 누군가가 인근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직조한 예술작품들. 근 십 년 만에 오른 수정산의 풍경들은 익숙한 듯 생경했다. 피톤치드 가득한 숲에는 누워서 쉴 수 있는 시설도 있었다. 한참을 누워서 부산의 하늘과 나무를 바라보는 두 사람.

"야. 이제 해지겠다. 빨리 집에 가자."

"여기 예전에는 이런 높은 건물이 많이 없었는데."
"응응 나 어릴 때 올라왔을 때는 바다가 잘 보였던 것 같아."

하산하는 도중 커다랗고 뜨거운 해는 어느새 수많은 건물 틈 사이로 사라져 버렸다. 어슴푸레한 빛의 시간 속에서 A는 눈물이 터져버렸다. 이유는 알 수가 없었다. 뚝뚝. 오랜 시간 같이 살았지만 A의 눈물을 처음 본 K는 당황한 기력이 역력했다. 다만 그 자리에 왜 우냐는 말이 필요 없다는 사실만은 알 수 있었다. K는 말없이 A의 손을 잡았다. 평소 같았으면 손을 뿌리칠 A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손을 잡을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그리고는 생각했다. 무언가. 조금은.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만 같다고.

3. 몸 있는 곳 이솜이

"육체 없는 눈. 깨끗하고 하얀 공간 속에 육체를 위한 자리는 없다."[1]

미켈 엘밍(Mikkel Elming)은 동시대 미술관은 이성의 공간이며 시각만을 우위에 둔 채로 '육체에서 분리된 관객'만을 맞이한다고 말한다.[2] 나에게도 미술관은 나의 눈과 이성만이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아픈 몸이나 어지러운 일상을 달고 갈 수는 없는 곳. 정갈하지 않은 몸과는 어울리지 않는 곳.

이젠 매일 이곳에 몸을 달고 오게 되었다. 미술관의 직원이 되면서 9시에서 6시까지, 주 40시간 동안 몸을 두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아침이면 오르막에 있는 집에서 지하로 통하는 굴로 향한 후, 안개가 묵직하게 낀 큰 숲을 지나 야외에 서있는 몇 개의 큰 조각상들을 스쳐 건물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며 몸에 묻은 지난 저녁의 시간들을 바닥에 뿌리기 바쁘다. 이곳에선 눈만 굴렸던 관성 때문일까. 전시실과 수장고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흐트러진 자세로 휴식을 취하고, 양치를 하고, 밥을 먹는 내 몸이 드러나는 것이 어색하다. 그렇게 몸을 품고 있는 공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부산비엔날레 큐레토리얼 워크숍, 「우리가 되는 방법들」에서 동네서점 책과 아이들[3]을 두 차례 방문했다. 처음 갔을 때는 공간을 산책하며 반나절을 보냈고, 두 번째 갔을 때는 하루 밤 하고도 아침을 꼬박을 보냈다. 이곳과 미술관의 구조는 닮아 있다. 미술관의 존재 이유를 미술 작품과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조사, 연구, 그리고 이에 관한 교류 및 미술활동의 보급[4]"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여기에도 책을 수집,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가 있고, 그림책 원화를 소개하는 전시실이, 책을 두고 교류할 수 있는 라운지와 방들이 있다.

1 미켈 엘밍, 「올가 베네딕테의 예술 실천에 관하여」, 『리틀 아트선재센터 × 리틀 쿤스트할오르후스』, (아트선재센터, 2021), p.115.

2 위의 글, pp.113-118

3 책과 아이들은 1997년 부산광역시에서 시작된 서점이자 문화 공간으로, 현재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위치한다. 좋은 책을 전시, 홍보, 판매하며 '한반나들이', '책 사랑방', '서점에서 1박 2일' 등의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11년 기준 18,000권의 책이 서점에, 10,000권이 책 사랑방에 수집되었다., http://cafe.daum.net/bookandkid(2022년 06월 24일 검색).

4 「국립현대미술관 규정집」(국립현대미술관, 2022), 제 2장 제 3조(소관업무).

나는 서로 닮은 두 공간을 겹쳐보면서 깨끗한 성전과 같은 미술관이 얼마나 몸을 가리는지, 반대로 책과 아이들에는 몸을 둘 곳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했다. 책과 아이들에는 구획이 없다. 이곳은 아이들이 자신이 서있는 곳 너머를 볼 수 있도록 담장이 낮고, 내·외부, 사방이 개방된 정원(구름빵: 마을도서관)이 있다. 1층의 서점과 2층, 이곳에서 3층 프로그램이 열리는 방(책 사랑방)으로 연결되는 계단은 서로를 통과해야지만 이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조금씩 다른 역할을 하는 공간들은 각자의 테두리를 드러내기 보다는 그 다음의 창과 층으로, 그 다음의 공간으로 연결된다. 여기선 공간 곳곳에 흩어진 몸들의 머리카락 끄트머리나, 발끝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곳에 수집된 책을 만질 수 있고, 몸을 기대 함께 잠(1박 2일 독서캠프)에 들 수도 있다. 미술관이 수집한 작품들이 누워있는 수장고는 그 작품을 옮기는 이들, 관리하는 이들의 지문, 부산물, 먼지 등의 흔적을 지우고, 작품을 위한 체온으로 공간을 덮는다. 책과 아이들에 수집된 것들은 점차 아이들의 몸과 밀착되며 낡아가는 사이, 미술관의 소장품은 수집이 결정된 순간부터 해충의 몸을 밀어내는 훈증, 인간의 몸과는 완벽히 분리된 수장고 내의 자리로 배정되는 과정들 속에서 점차 몸들로부터 멀어진다.

미술관이 육체 없는 눈을 위한 곳이라면, 책과 아이들은 몸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얼마 전 한 작품[5]에서 2014년 터키의 디야르바크르 시립미술관(the municipal art gellary of Diyarbakir)이 난민 수용소로 사용된 사례를 보았다. 그곳은 분명 몸이 있는 곳이다. 미술관에서 몸을 기대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 미술관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작품을 벽에 걸까.

5 히토슈타이얼, <면세 미술>, 2015, 3채널 HD 디지털 비디오, 컬러, 사운드, 샌드박스, 38분 21초, 작가 소장

4. 나의 '우주 거미줄'을 구성하기 위해:
「우리가 되는 방법들」 참여 후기

정수진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는 '예술과 정치에서의 몇 가지 실험'이라는 제목의 이플럭스(e-flux) 에세이에서 토마스 사라세노(Tomas Saraceno)의 대형 설치 작업 〈거미줄을 따라 맺히는 물방울처럼 필라멘트를 따라 형성되는 은하계(Galaxies Forming along Filaments, Like Droplets along the Strands of a Spider's Web)〉(2008)을 통해 '구성'에 대해 논한다.[1] 이 에세이에서 라투르는 검은 고무밴드로 만들어진 사라세노의 거대한 '우주 거미줄(cosmic web)'에 대해 "내부가 없는 변두리들"이라고 표현하며, "오직 연결지점만을 파생시키는 네트워크들"이라고 말한다.[2] 즉 사라세노의 우주 거미줄은 "하나의 완성된 구조가 아닌 또다시 연결될 수 있는 지점들"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그러한 또 다른 연결의 가능성으로서 "가장자리들을 따라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다".[3] 라투르는 이를 통해 내부를 향한 탐색은 외부와의 연결과 항상 연관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말해 로컬과 글로벌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넘어서는 새로운 방식의 사고—구성—가 필요함을 논한다.[4]

나는 이러한 '우주 거미줄'을 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고, '우리'와 '로컬'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이번 큐레토리얼 워크숍을 통해 많은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내부—개인—와 외부—각자의 '우리' 혹은 그 너머—를 뫼비우스의 띠처럼 엮으며 자기만의 '우주 거미줄'을 짜왔는지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접근성과 포용성'이라는 두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며 더 넓은 '우리'를 만들어가는 최태윤 작가의 대체 텍스트 워크숍, '낯선 곳에 자신을 두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며, 중심은 단단하지만 겉은 말랑말랑해 계속 불어나는 올챙이알처럼 활동해 온' 홍보라 디렉터. 외부의 '제약'을 뛰어넘어 '새로운 배치'를 통해 연결지점을 발산시키는 김윤익 디렉터,

1 Bruno Latour, "Some Experiments in Art and Politics," e-flux journal, (Mar 2011), https://www.e-flux.com/journal/23/67790/some-experiments-in-art-and-politics/.

2 Latour, "Some Experiments in Art and Politics."

3 Latour, "Some Experiments in Art and Politics."

4 See, Latour, "Some Experiments in Art and Politics."

부산의 역사와 울창한 편백 나무, 땅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고마리 등의 수정산의 식물 그룹들, 그리고 예술을 잇고 있는 창파, 박미라 큐레이터 등… 「우리가 되는 방법들」에는 여러 형태의 '외부' 혹은 '우리' 그리고 다양한 방식의 '연결방식'이 존재했고, 이들 중 일부는 나의 '우주 거미줄'로 들러붙었다.

워크숍이 끝난 지금, 나의 '우주 거미줄'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지 여전히 고민이 많다. 그러나 더 많은 끝점들이 생겼고, 이를 어떻게 이어 나가야 할지 조금 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속박됨 없이 낯선 곳으로 뻗어나가고 이어 나갈 수 있는 탄력성과 유연성, 또 제약을 넘어 기존의 영토를 재배치 혹은 새로운 영토를 조성할 수 있는 힘을 지닌 끝점들, 그리고 포식자의 덫이 아닌 돌봄을 파생시키는 그물… 그렇게 한 올 한 올 만들어가고자 한다.

5. 오버뷰, 접속[1]　　송효진

워크숍 첫날, 기차에서 내려 만남을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는 길인 영도 다리에서 수많은 항만산업의 산물들과 동시에 전개되는 드넓은 해양을 마주했다. 너울거리는 물결을 바라보며 찬찬히 머릿속으로 이곳의 지도를 그렸다. 강과 바다와 산이 둘러싸인 마을, 바로 삼포지향이 공존하는 특수한 생태 감각에 감응되었다. 그렇게 부산역에서 영도로 가는 길은 지리적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기에 적합한 경로였다. 근대적 문명의 항구에는 상인과 유학생, 나아가 도항자들이 분주하게 문물과 함께 왕래되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적 질서가 와해하는 양가적인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부산과 같은 개항도시는 혼종성이 반영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그렇게 나는 해양-내륙, 유동-정착, 이주-토착, 식민-자유, 도시-농어촌 등 서로 이질적인 문화들이 교차하는 곳[2]인 부산에 도착했다.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되기

워크숍 프로그램 중 반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영향으로 온라인 화상 회의 플랫폼을 이용해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했다. 같은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디지털 매체를 통해 만남을 가지는 우리는 실재의 서로가 아닌 스크린 속 픽셀화된 이미지를 서로라 칭하며 바라보았다. 이는 인간의 감각체계인 오감의 자극을 넘어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인간과 기계가 형성하는 공감각(synesthesia)[3]을 포착해 증폭시키는 행위다.

우리는 이전 경험과 또 다른 방식으로 상호소통을 구현할 수 있었을까?

나의 신체는 디지털 기기와 밀착되어 매개를 넘어 한 부분이 되었다. 그렇기에

1 2022부산비엔날레 큐레토리얼 워크숍 첫회차 프로그램명으로 김해주 전시감독이 발제를 맡았다.

2 구모룡, 「부산 : 식민도시와 근대도시를 넘어서-부산연구의 문화론적 접근」, 『인천학연구』(2008), 3-32쪽.

3 이수안, 「감각중심 디지털 문화와 포스트휴먼 징후로서 '호모 센수스(homo sensus)의 출현」, 『문화와 사회』(2015), 127-168쪽.

전화, 문자, 카톡, 인스타그램 등 각종 애플리케이션으로 누군가와 소통하는 것은 익숙한 일이다. 그럼에도 디지털 공간에서 눈빛의 교환, 감정의 소통은 실재의 몸을 통해 교류하는 감각과는 다른 혼종적이고 무수한 차원의 감각을 필요로 하는 문제였다. 어쩌면 지식의 교류 면에선 효과적이었을 수도. 우리의 대화는 휘발되지 않고 영상 기록과 텍스트로 남아 영구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워크숍은 진행 과정에 있었다.

자연 속 비인간 요소와 우리-되기

우리의 만남은 촉지성(tactility)을 가진다. 공동의 글에 담긴 수정산에서 포착된 사진 이미지[4]는 흥미롭게 다가오는데 이유인즉슨 모두 인간과 자연물이 맞닿아 연결된 모습이 담겼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진 속 자연물은 중앙에 위치해 주체가 되어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는 작은 손들이 야트막하게 붙잡거나 혹은 그것에 기대고 있다. 비인간이 주도하는 소통이다. 우리는 수정산에서 산책의 시간을 보낸 후, 서로에게 깃듦을 고백했다.

다시 돌아와 영도 다리에서 마주한 물결이다. 이번 부산비엔날레 전시 명에도 포함된 '물결'은 다양한 의미를 제공한다. 물결의 사전적 의미는 파도처럼 움직이는 어떤 모양이나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둘째는 우리가 존재했던 부산 특유의 지형적 특성인 구릉성 산지의 모습이 마치 물결과 같다. 굴곡진 고개는 발걸음을 신중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위아래로 운동하는 물결의 울렁임에 나를 위치시키는 하나의 실험이다. 일렁임 속을 부유하는 중, 바닥에 위치한 시선에 응답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다.

4 85쪽

6. _____우리가 되는 방법들 이유진

1인칭 복수 대명사 '우리'와 '울', '울타리'는 같은 뿌리를 가진 말이다. '울'은 풀이나 나무 등을 엮어서 바깥과 경계를 한 안쪽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 안에 있는 여러 사람의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1]

가족 공동체는 가부장제 사회의 근간이 되는 '우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비혼주의를 선언한 지 오래다. 미국의 페미니스트이자 느슨한 포스트 모더니스트인 도나 해러웨이는 자식이 아니라 "범주를 벗어나 있는 기이한 친척(Oddkin)"[2]을 만들자고 외치면서 친척을 "낯설고, 불가사의하고, 끊임없이 출몰하는, 활동적인 무엇"[3]이라고 정의했다. 현재 나의 식구[4]는 일곱 마리의 닭, 세 마리의 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상 돌담이라는 울타리를 무색하게 만드는 다양한 종들과 '기이한 친척'을 맺고 살아가고 있다.

1 최기호, 『어원을 찾아 떠나는 세계문화여행(아시아편)』, 박문사, 2009

2 도나 해러웨이, 『트러블과 함께하기: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 마농지, 2021, p. 296. Donna J. Haraway, Staying with the Trouble: Making Kin in the Chthulucene, Duke University Press, 2016 "Oddkin—non-natalist and off-category"

3 Ibid. "Kin are unfamiliar, [...] uncanny, haunting, active."

4 제주도 옛 농가에 살면서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운영하는 나에게 '식구'라는 단어는 새삼 특별하다. 매번 한 명의 예술가를 집으로 초청해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하면서 작업을 하는 환경인데, 각자 떨어져서 작업을 하다가도 끼니때가 되면 거실에서 함께 식사하며 작업 혹은 삶에 대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간다. 어떻게 보면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가족 공동체'보다 매일 모닝커피, 점심, 저녁, 그리고 시원한 맥주 한 캔을 함께하는 '식사 공동'가 내게는 더 붙잡고 싶은 '우리'가 되었다. 여기서 문득 '우연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4회차 발제자 홍보라(팩토리2 디렉터) 님의 가스트로노미(gastronomie)에 대한 언급이 생각난다. 맛있는 요리를 매개로 한시적인 공동의 순간(공동의 상상)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여느 날과 다름없이, 닭장 문을 열어 달걀을 꺼내는데, 익숙하지 않은 검은 덩어리가 시야에 들어왔다. 황급히 손을 빼고 시선을 돌려보니 꽤 큰 뱀 한 마리가 똬리를 틀고 있었다. 뭔가를 입안 한가득 물고 있던 뱀도 나를 발견하고선 놀란 듯 입에 물고 있던 것을 천천히 내뱉었는데, 뱀의 침으로 반질거리는 것은 다름 아닌 달걀이었다. 이후 뱀은 한동안 꼼짝달싹하지 않았는데, 그의 자태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아름다웠고, 왜 예로부터 제주에서 뱀신을 모셨는지 알 것만 같은 신성함이 있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위태로운 상황을 인지했는지 뱀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옆에서 지켜보던 남자친구가 농기구로 잽싸게 뱀을 낚아채서 잔디에 내동댕이쳤다. 이때, 호기심 많은 반려견 치노가 촐싹대며 뱀의 머리 쪽으로 자신의 코를 들이밀자, 뱀은 잽싸게 목을 치켜세우더니 사나운 태세로 입을 쩍 벌리는 것이다. 이 작은 행동에 놀란 남자친구는 삽을 집어 뱀을 마구 내려치기 시작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의 존재에 매료되었던 나는 미동도 없이 코앞에서 맞아 죽는 그를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돌담 안으로 들어온 순간부터 뱀은 이미 죽을 운명이었어. 뱀과 함께 살 순 없잖아?'라고 변변치 못한 자기 정당화로 죄책감을 씻으려 애써봤지만, 사실은 어느덧 '우리(울)' 안에 들어온 그를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몰랐기에 극단적이고 잔인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뱀의 출몰(出沒)은 미국 인류학자 애나 칭의 저서 『세상 끝의 버섯』[5]에 소개된 '다성 집합체(polyphonic assemblages)'를 떠올리게 한다. '다성 집합체'란 개별 존재의 고유한 멜로디뿐만 아니라 여러 멜로디가 모여 생성되는 산발적이고 순간적인 화음 또는 불협화음을 일컫는다. 환경적 변화에 반응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현할지 예상하기 힘들며 복잡한 모순들로 가득 찬 삶과 죽음(出沒)의 상황[6]을 연출한다. 이러한 '다성 집합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라는 개념에 대한 '탈 학습(unlearning)'[7]이 필요할 텐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되는 방법들」이란 제목의 본 큐레토리얼 워크숍이 바로 이 '탈 학습'의 과정이 아니었나 싶다.

매 회차에 초청된 발제자들의 다양한 '우리가 되는 방법들'을 곱씹으면서도 나는 이상하게 '방법들'보다는 '우리'라는 주어에 자꾸 마음이 갔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5 애나 칭, 『세상 끝의 버섯』, 2015

6 Ibid. "livable—or killing—situation"

7 캠브리지 사전은 '탈학습(unlearning)'을 "새로운 혹은 더 나은 방식을 습득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을 잊으려는 노력(To make an effort to forget your usual way of doing something so that you can learn a new and sometimes better way)"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워크숍 3회차에 장애예술을 주제로 "예술의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해 이야기한 최태윤 작가는 2018년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진행한 탈학습 워크숍 소개글에서 "탈학습은 하나가 둘이 되어 나눠지는 감각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학습은 둘이 하나가 되어 합쳐지는 감각에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학습과 탈학습 사이를 반복하는 과정을 통한 새로운 경험과 발견을 강조한다.

되려고 하는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또한, '우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워크숍의 멤버가 되는 것처럼 '우리'라는 공통된 신분을 가지는 것? 얼음이 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로 바뀌거나 변하는 것? 어쩌다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운명, 규칙, 혹은 절차 따위로 '우리'가 정해지는 것? 등등 흥미로운 생각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긴 했지만, 불현듯 '되다'라는 동사가 매우 결과론적으로 다가왔다. 10주간의 워크숍을 마무리한 '우리'.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되는' 결과를 얻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된 이후에는…?

워크숍을 통해 참여자들과 나눈 대화를 돌이켜보니 '우리'라는 주어 앞에 여러 가지의 수식어가 붙어 있었다: '이곳저곳에서 출몰하는' 우리, '낯설고 기이한' 우리, '느슨한' 우리, '사후적' 우리 등등. 해러웨이 해설서를 쓴 저자 최유미가 주역의 마지막 괘인 64 미제괘를 언급하면서 "실패가 만들어내는 틈은 결말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가는 문이다. […] 새로운 관계는 이렇게 시작된다."[8]고 한 것처럼, 워크숍 타이틀에 다음과 같은 빈틈을 추가하고 싶어진다: 「_____우리가 되는 방법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또 어떤 수식어를 붙일지 상상해본다.

8 최유미, 『해러웨이, 공-산의 사유』, 도서출판비, 2020

7. 개인이어야 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김보경

모두가 같은 걸 좋아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선 모두 똑같이 좋아하는 걸로 신기해하겠지. 그리고 같이 좋아하는 걸 더 찾아보며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모두가 좋아하는 결과가 나오니 해피엔딩이 되는 걸까. 마냥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비슷한 질문을 가진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작가 고든 리빙스턴(Gordon Livingston)은 저서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I』에서, 만약 사람들의 생활이 단순해서 모두가 같은 것을 좋아한다면 '사랑'에 대해 정의할 수도, 나아가 감정과 욕망을 구별할 수 없어 혼돈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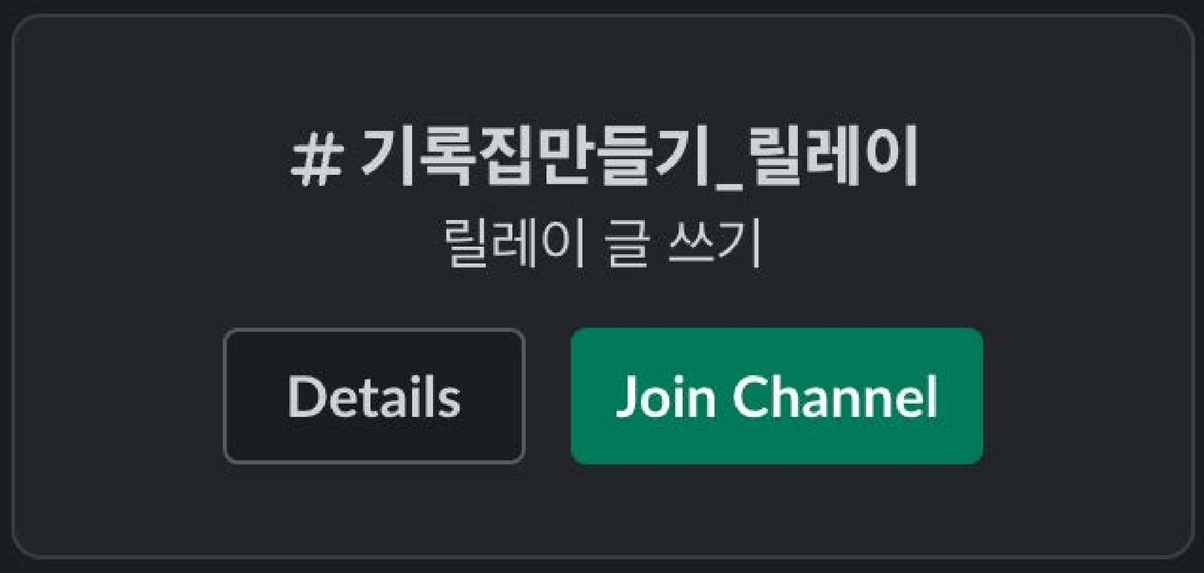
개인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태계에서 이야기하는 회복탄력성(resilience) 개념을 대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거나, 혹은 안정적인 상태가 무너졌을 때, 모두가 같은 감수성과 같은 능력과 역할, 선호도, 수용성을 갖고 있다면 위험의 상황을 맞닿게 되었을 때 '괜찮'을 수 있을까요.

공동체가 지속하고 존재하기 위해 새롭거나 다양한 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고 또 필수적이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앞서 이야기한 회복탄력성, 즉 리질리언스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는 사회와 환경, 사람과 상호 관계를 맺는 큰 시스템 안에 속해있고, 또 감정과 욕망이 있는 인간이기에, 내부의 흔들림이 발생할 수도, 외부에 의한 흔들림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계속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개별로 존재할 수 있었던 생물다양성(biodiversity) 때문인데요.

불안전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다 같이 홍수에 쓸려가 버리더라도, 그중 다른 어떤 개인의 뿌리와 기둥이 다른 누군가는 쓸려가는 존재를 붙잡아주거나 또

다른 개인은 충격을 완화해 주는 버퍼(buffer)가 되어주기도,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기도, 그늘이 되어주기도 하는 다기능적 공동체로서 지속가능성과 다양성을 형성해 줍니다. 또 다른 생물 예로, 마찬가지로 단일 식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효율적이면서 식생의 기능이 한정적이지만, 다중 식생을 하게 되면 다양한 먹이사슬의 구조와 각자의 순환 시스템이 생기게 되는 활발한 다중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큰 사슬 중 한 종이 멸종 위기이거나 사라졌더라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는 지속성을 가지고, 없어진 자리를 채우기 위한 변화가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통제 아닌 통제의 공동체 속 각 다양한 개인이 주요 자원이 되어서 어떤 위기에서도 단단히 버텨 돌아오고 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제각기의 속도와 방법으로 조합이 이루어졌다가, 흩어졌다가,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적절히 가지는 자성처럼 끌어들이는 힘과 동시에 밀어내는 힘이 있는 긴장감을 가졌을 때 안정적인 분자 구조를 지닌 하나의 물질 덩어리로서 존재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우리” 공동 글쓰기 규칙

1. “우리”에 관한 하나의 글을 모두가 이어서 써 본다.
2. 글은 한 줄기로 이어질 수도, 여러 줄기가 될 수도 있다.
3. 본 글은 슬랙에 ‘게시물 쓰기’로 쓴다.
4. 턴을 놓쳐 위로 밀려난 글은 ‘댓글 쓰기’로 이을 수 있다.

    댓글은 참여 제한 없이 얼마든지 달 수 있다.
5. 댓글은 여러 글에 동시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6. 각자 1번 이상 참여한다.
7. 한번 쓸 때 분량은 최소 250-최대 500자로 쓰며, 본인의 생각을 글 안에서 마무리짓는다.
8. 글의 끝은 6월 30일 자정이다. 이 시간 이후로는 글을 이을 수 없다(본글, 댓글 모두 종료).
9. 글의 시작은 이솜이 님이 한다.
10. 공동 글쓰기의 갱신 시간은 매일 오전 9시이다.

#기록집만들기_릴레이

Join Channel | Start a Call

About | Members 13 | Integrations | Settings

Find members

A **Alter Kim** ○ Alter Kim

Bogyung Kim ○ Bogyung Kim

Kyungmin Kim ○

Sujin Jung ○ Sujin Jung

Y **YeunJi Lee** ● YeunJi Lee

김경민 ○

송효진 ○

신효진 ○ 신효진

아름 ○ amie Woo

유진 ☾z

이솜이 ○ 이솜이

창재 ○ Chongjae

한수정 ○ Sujeong Sage Han

84

Monday, June 20th

이솜이 12:23 PM

함께 수정산에 올랐던 6월 11일.

그 이후, 나는 울창한 숲길을 줄지어 지나고 있는 열댓명의 뒤 꽁무니를 쫓아 같은 길을 여러번 따라 오르고 있다. 지난 산행을 거듭하는 이유는 흘러간 시간을 다시 떠올리거나 기록하기 위함은 아니다. 당시 촬영한 이미지에서 어떤 중간 매개를 경유해 서로의 신체가 접촉하는 장면들을 발견했고 나도 모르게,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서로의 몸이 접촉하는 사건이 있었음을 함께했던 이들에게 고백하기 위해서다.

나에게 신체란 사랑이나 욕망, 때로는 오염 등 내 의식을 흔들어놓는 것들이 쉽게 침투하기 쉬운 취약한 공간이다. 그렇기에 특히 다른 신체와 접촉하는 것은 개별적인 개인들이 하나의 시공간에서 가까운 거리감을 유지해야한다는 점, 그리고 개인이 다른 신체와의 접촉을 지나치게 경계하고 있지 않을 때야 비로소 촉발된다는 점에서 좀처럼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늘 생각해왔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찍힌 사진에서 보았다. 나의 손가락이 닿은 하나의 잎사귀에 그것을 사방에서 붙들고 있는 7개의 손가락이 붙어 있었고, 등을 기댔던 커다란 기둥엔 나무의 몸에 덧댄 다른 몸들이 있었다. 조금씩 떨어져 누워 편백나무 숲의 공기를 들이마실 때에는 각자의 몸에서 나온 날숨이 숲에서 나오는 공기와 함께 섞인 형태로 서로의 몸에 다시 들어갔음을 (이제서야) 발견한다.

(사진 첨부 가능하다면 첨부!) (edited)

2 files

❤️ 7

4 replies

4 replies

Bogyung Kim 2 months ago

애정이 느껴지는 시선의 글이라 마음이 간질간질합니다.😚

유진 2 months ago

화학에서 접촉이란 어떤 촉매를 통해 반응을 일으키는 일이다. 몸과 몸이 맞닿았을 때, 손과 나무껍질이 닿았을 때는 어떤 촉매가 작용한 것일까?

신효진 3:37 PM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서로의 신체가 그리고 정신이 맞닿는 순간들. 그 순간에서 파생된 우리가 되기 위한(혹은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에너지는 즉각적으로 알아채기 어렵다. 그것은 편백나무 숲에서 뿜어져나오는 피톤치드와 같이 마음속에 서서히 차오른다. 그날 수정산에서 서로를 침투하였던 마음들 그리고 나를 둘러싼 (비)인간과의 관계맺음은 인생 그 어딘가의 지점에서 문득 생각날 것이다. 그러나 2022년 6월 11일 바로 그 날, 숲속에서 마주한 흥미로운 이야기와 땀으로 얼굴진 우리들의 얼굴들을 마주한 순간 인식은 확장되었다. 서로의 내뱉은 날숨들이 내 폐속으로 들어오면서 새로운 나는 작게나마 변화한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변화할 것이다.

❤️ 6

1 reply 1 month ago

Wednesday, June 22nd

Alter Kim 2:12 AM
어떤 나무들은 가지 끝으로 갈수록 서로에게 닿지 않도록 서로를 피해 가며 자란다고 한다. 수관기피(樹冠忌避, crown shyness)라는 현상이다. 참나무과, 소나무과, 도금양과의 이 나무들은 각자의 영역과 경계선을 지키면서 자란다. 나무들이 서로를 움켜쥐고 엉켜서 자라든 서로를 피해 가며 자라든 인간에게 그것은 숲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으로부터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무언가를 상상해 본다. 우리의 사회를 지칭하는 이름이 무엇이든, 우리가 서로 다투고 화해하고 다시 싸우고 사랑하는 개별적인 과정들이 모두 '인간'이라는 말로 퉁쳐질 것을 생각하면 약간은 쓸쓸하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의 최종적인 형태를 고안할 때, 여러 개체가 섞여 버리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한 이 나무들은 충분히 참조할 만한 사례이다.

❤️ 7

Friday, June 24th

Bogyung Kim 12:36 AM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는 산업혁명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자본주의와 개인주의, 신자유주의의 강화에 따라 사회 불평등의 양극화와 분열, 불안정한 상황의 노출 증가와 함께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기후변화와 환경오염까지 더해져, 불안한 삶에서 윤리를, 생의 유지에 대한 목적과 방향, 존재의 본질적 가치를 찾게 되면서 모호한 미래가 아닌 단단한 현재를 만들어 다 같이 평등하게 가치를 채워나갈 수 있는 커먼스(commons)라는 공동체를 찾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단단하고 가치 있는 사회를 위해 '다 같이', 혹은 '우리 모두'의 범위는 인간 넘어서 감정, 철학, 지식, 문화, 식물, 동물, 자연시스템, 우주시스템 등 모든 것을 자원화해서 포함하고, 그것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수직적 거래 형태의 것이 아닌 '공유'라는 동일 선상에서 주고받는 수평적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본질적 가치와 시스템을 포함해서 고찰하고 탐구할 뿐만 아니라 유지, 지속가능성, 공유, 협력과 같은 가치가 녹아있는 공동체는 여러 활동을 통해 그들만의 방식대로 나타나게 되지요. 국가에 속해 새로운 방안의 시스템을 만드는 여러 활동과 맥락에서 그들만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제기하고,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활동을 이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활동은 왜 중요할까요. (edited)

2 ❤️ 5

2 replies Last reply 1 month ago

Bogyung Kim 2 months ago
여기서 문득 드는 궁금증🤔
'우리'와 '공동체'는 다른걸까요? 다르다면 무엇이 다르고, 같은 것이라면 무엇을 보고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걸까요? (edited)

유진 1 month ago
"모호한 미래"에 대한 공상적 상태가 아니라 "단단한 현재"를 일구는 실질적 노동이 '공동체'의 기반이라면, '우리'란 '단단한 관념'으로 '모호한 현재'에 형태를 부여하는 구조로, 다소 불안하지만 동시에 임파워링(empowering)한 것이 아닐까요.

송효진 6:23 PM
우리가 되기 위해 부단하게 노력하는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단하게 노력하는 활동은 신자유주의적 경쟁의 이념에서 우리가 아닌, 각자의 시선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응답하며 다시금 묻는 행위다. 이제야 말하지만 우리가 되러 몇 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이동하는 일은 자기 수련의 과정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대부분 나보다 더 먼 곳에서 오기에 그들의 지난함이 예상된다. 결국 그 오랜 이동 끝에 모여서 보낸 서로가 옆에 있는 시간, 대화하고, 같이 걷고, 서로의 어깨에 의지하고, 짝지어 스트레칭을 하는 경험, 하다못해 침묵의 시간에서도 마음에 새겨지는 무언가가 있다. 또한 함께-되기의 과정은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까지도 포함하여 전개되었다. 수정산에서 보았던 식물군락들은 서로 연속적 상관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제각기 독특한 형태를 띄었다. 식물사회도 서로의 고유한 특성을 존중하면서 공존한다. 다른 존재자들이 발산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기록하는 행위들에서 우리가 되는 과정임을 의식한다. (edited)

❤️ 3

1 reply 1 month ago

Kyungmin Kim 2 months ago
어쩌면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할지도 모를 '우리'라는 형태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매주 만났다. '당신은 내게 어떠한(중요한, 필요한, 소중한... 끈적이고 밀착된 수식어의) 존재'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이인 우리는 사적인 친밀감보다 고차원적인 우리-되기를 꿈꿨으며, 꽤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되는 방법들을 알고자 애썼으나, 그 길에 쉽게 당도할 수 있는 지도 같은 것은 갖고 있지 않았다.
각자의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 두 달간의 주말을 기꺼이 내어준다는 것은 어떤 일인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버스로 이동하면 왕복 10시간, 비행기로는 그보다 짧은 왕복 3시간 정도, 그러나 '우리'의 시간이 이동 거리로 인해 쌓인 피로감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 정도의 여유를 두고 미리 도착하는 편이 낫다는 사실을 터득했다. 나는 '우리'에 대해 탐험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돈을 지불하고, 수많은 약속을 포기해야 했다.
이 모든 것은 고작 2시간 남짓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수정산을 함께 올랐고, 부산의 책방에 모여 앉아 시간을 보냈으며, 로컬리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우리'를 정의하는 다른 방식, 태도, 온도를 매주 확인하는 일은 서로의 이질성을 발견하는 시간에 가까웠지만, 일상에서 이 모임에 대해 떠올리는 순간이 많아졌다. 수정산의 흔적만 남은 집터가 떠올랐고, 문득 줌 화면 너머로 이야기에 집중하던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으며, 마주 앉아 주고

받던 어색한 대화가 생각났다. 섬광처럼 짧은 순간, '우리'는 줄곧 만났다. 직접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때도 있었지만, 혼자 있을 때도 나는 자주 '우리'가 되었다. 우리가 되는 방법이 온전한 내 몫의 일부를 내어주는 일에 가깝다면, 정말 그러했다. (edited)

❤️ 4

Monday, June 27th

한수정 10:21 PM

부산에서 만난 '우리' 중 부산 사투리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당연히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대화했다. 각자 살아온 곳의 언어로, 그 사람들의 언어로. 나는 그것이 특수 목적을 위해 급조된 언어의 형태(피진어)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어떻게든 소통해야 해서 쓰고 있고 대강 뜻은 통하는데 섬세하게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언어.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점차 문법이 발생하였고, 공감하고 웃음을 터트릴 수 있는 공통의 단어들이 생겨나는 중이었다. 나는 이 언어를 피진어와 크레올의 중간에 있는 무언가로 부른다. 무언가.

❤️ 4 🧡 1

Wednesday, June 29th

Sujin Jung 11:46 PM

워크숍 동안 나는 누구와 어떤 '공통의 단어'를 만들고 있었던 것일까?
더 큰 "우리"가 되는 방법을 같이 탐색하고자 부산으로 모인 "우리들". 자기만의 "우리"를 어떻게 찾게 되었는지 공유해준 혹은 자기만의 "우리"를 찾기 위해 모인 "우리들".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 서운해하면서도 이해해주고 응원해준 나의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우리들". 항상 고군분투 중인 독립연구자를 배려해 일정을 조정해주신 그리고 워크숍에 잘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셨던 감사한 "우리들". 부산이라는 공간에 얽혀 있는 다소 무거웠던 개인적인 내러티브를 완전히 뒤바꿔준 울퉁불퉁한 길 곳곳, 알록달록한 건물들, 빽빽한 편백 숲, 저 멀리 보이던 울렁이는 바다, 그러한 "우리들".
여러 "우리들"과 함께 분명히 무언가를 공유했던 시간.

❤️ 3

Thursday, June 30th

유진 7:51 PM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우연히 혹은 의식적으로 함께 존재한다고 해서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 앞 문단을 곱씹어보니, '우리'가 되는 것은 '무언가를 공유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공동 소유'의 의미에서는 물질적인 것을 공유할 수도 있겠고,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생각 혹은 시간을 공유할 수도 있겠다. 참여자들이 함께 만드는 기록집은 우리의 공동 소유물이니, 우리는 기록집으로 '우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두 달 반 동안 매주 토요일 온/오프라인으로 만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생각을 나누었으니, 우리는 각자의 기억과 추억 속에서 '우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워크숍의 두 번째 게스트였던 홍기빈 경제학자는 '코스모로컬리즘(글로벌라이제이션+로컬리티)'을 유형(물질)과 무형(정신)으로 분리하여 설명했는데, 문득, 나도 같은 논리로 유형의 '우리'와 무형의 '우리'를 범주화하여 이해하려는 옛 습관이 작동했다는 자의식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이러한 이분법적 범주가 틀렸다기보다, 울창한 숲의 '수관기피' 현상과 숲(곶)의 덩굴(자왈)이 얼키고설켜 있는 상태가 공존하는, 정의할 수도 없고 표현하기도 애매한데다 범주화란 불가능한, 그런 '우리'는 무엇일까...

모호함은 흥미롭지만 오래 머물기에는 다소 힘에 겨운 탓에 다시 분명한 것으로 돌아가본다. '우리'는 하나의 교차점(#부산 #부산비엔날레)에서 만났다. '우리'는 이 교차점을 '타생지연'으로 간주하여 단지 동시에 통과하는 데 의미를 두지 않고, 어색하게 혹은 기대에 찬 상태로 그 교차점에서 잠시 혹은 한참을 머물렀다. 그리고 그 후... 한 명 한 명 가려던 길을 가는 자도,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자도, 원래의 계획에서 벗어난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자도, 혹은 교차점에 더 오래 머무는 자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되는 과정은 이렇듯 진화생물학자 린 마굴리스의 말처럼 공생발생적으로(symbiotically) '나/너/우리'를 통해 지속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edited)

❤️ 4 🧡 1

1 reply 1 month ago

Sujin Jung 1 month ago

수고스럽게 '모호함'에 더 머물고 싶다. 이후의 경로에—어떠한 방향이든 그 무엇에도—관심을 두지 않고. '모호함' 그 자체가 "어떤 일을 함께 도모하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 (edited)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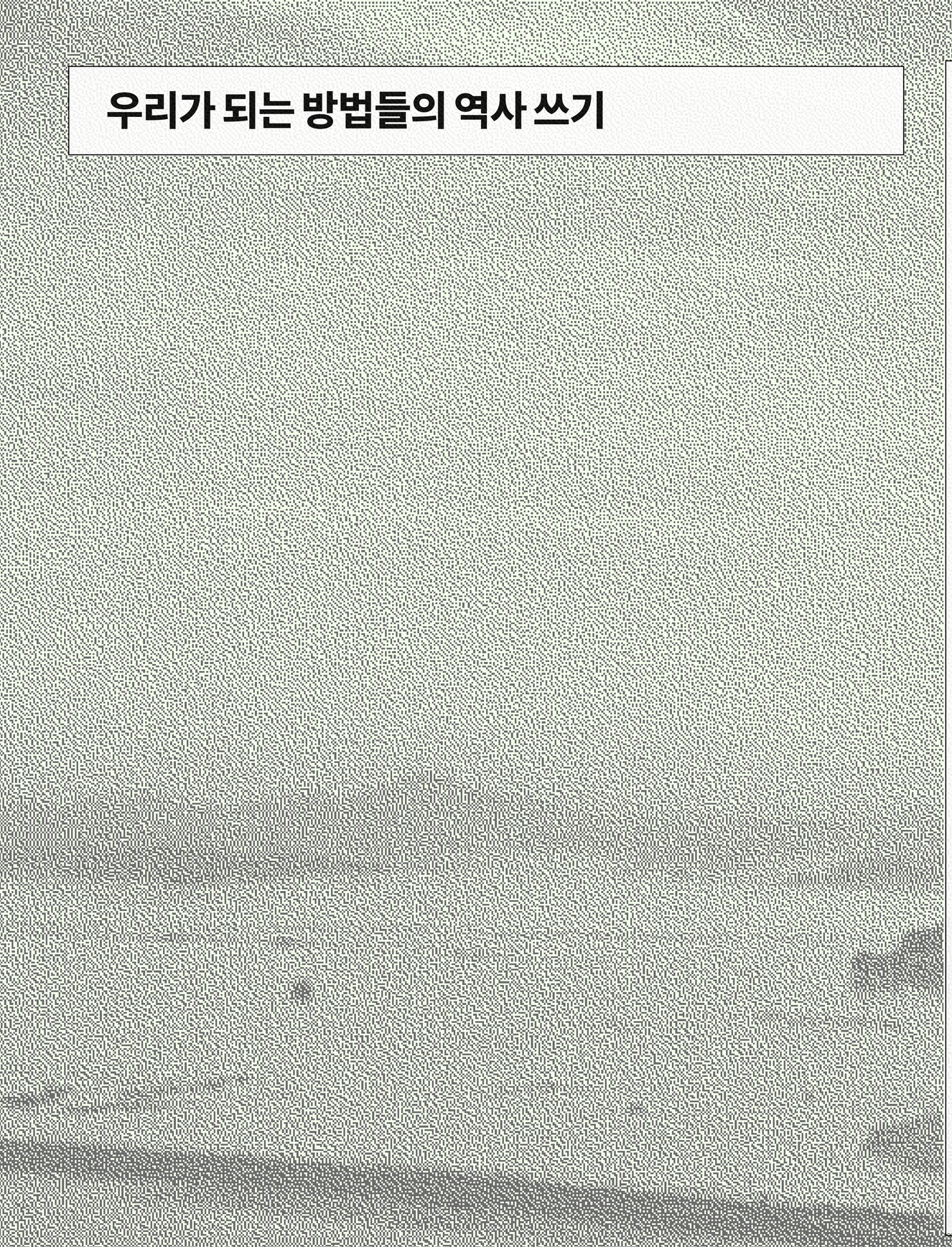
줌-아웃

이 워크숍에는 기록자라는 제3의 인물의 시선이 처음부터 함께했습니다. 기록자 김창재의 기록의 글과 제안을 소개합니다.

기록의 글

기록자가 「우리가 되는 방법들」 워크숍에 참여 관찰하며 남긴 기록의 글입니다. 워크숍의 키워드였던 '로컬'과 '우리'라는 주제에 관한 생각, 개인적인 관점에서 발췌해 엮은 초청인사와 워크숍 참여자들의 말들의 더미입니다.

우리가 되는 방법들의 역사 쓰기



워크숍 「우리가 되는 방법들」은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개최된 첫 부산비엔날레인 《물결 위 우리》에서 기획한 큐레토리얼 워크숍이다. 김해주 감독은 지역의 젊은 기획자들이 지금 변화하는 기획의 다양한 갈래와 요구를 경험할 기회로 비엔날레의 자원을 활용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우아름 기획자는 '로컬'과 '우리'를 열쇠 말로 삶과 큐레이팅이 밀접하게 연결된 사례들을 엮어 10회의 워크숍을 기획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큐레이터를 대상으로 부산의 다양한 현장에서 주로 진행되었으나, 연사의 활동 무대가 부산이 아닌 경우 줌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나는 공동의 장소와 시간에 관심 갖고 역사적 기록으로 미술 창작에 접근한다는 이유로 이 워크숍 프로그램에 초대되어 기록을 맡게 되었다. **발제자의 말과 참여자들의 질문, 그리고 나의 코멘트를 뒤섞어 곤죽 같은 글쓰기를 한다. 이 글은 함께한 우리의 합의를 전제하지 않는다. 여러 목소리로 서사를 쓴다.**

김해주(2022부산비엔날레)의 접속, 오버뷰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첫 회차는 부산의 구도심이자 비엔날레의 주 무대 중 하나인 부산항 제1 부두를 바다 건너 조망할 수 있는 영도의 산 중턱에서 모였다. 이날 참여자들의 소개와 관심사의 공유가 이뤄졌다. 우리의 확장, 기억하는 방식, 자본주의, 자연 생태환경, 비인간 전환, 지속가능한 미술관, 길들여진 경험, 퀴어, 커뮤니티, 대안공간의 기록, 사적인 레지던시, 부산 지역, 경계 허물기.

도시 부산은 생각보다 역사가 짧다.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다소 모순적이다. 도시의 시간은 항상 새로워지기 위한 욕망으로 갱신되어야 하지만, 이번 부산비엔날레가 주목하는 장소는 동시대의 시간을 따르는 장소가 아니다. **몰랐던 부산, 시간이 정체되는 장소와 남겨져 있는 것을 주목한다.** 비엔날레는 어느 미술 행사보다 기획이 주목받고 기획자에게 더 큰 권한이 주어지는 축제다. 비엔날레의 산업적인 효용가치는 충분히 인정돼야 하지만 과도하게 집중적이고 단발적이기 때문에 무엇을 남기는지 질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시에도 필요한 질문이다.

홍기빈의 코스모로컬리즘

코스모로컬리즘은 지식과 정보를 커먼스화하고 유형

코스모로컬리즘은 지식과 정보를 커먼스화하고 유형의 것은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게 세계질서를 재편하자는 것으로, 글로벌리즘 이후 초국주의 전환이 야기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아나키스트적 해법이다.가 국가의 (여전한 동시에 무의미해진) 유일한 형태가 되어버렸다. 지구는 영토로 분할되어 나뉘어있다. 상품과 자본은 자유로이 국경을 넘나든다. 특히 상품은 다양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산된 원자재와 부품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전 지구적으로 유통된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지역 간의 불균형은 다른 것보다 지식이 집중되는 정도로 발생한다.

세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기획에서 개인의 실천은 무의미한가, 개인의 감각만을 예민하게 만들 뿐인가. 실천이 사회적으로 조직되지 않고 개인의 특이성을 전시하려는 목표, 또는 효과만을 갖는다면 시장에 종속적이기 때문에 아나키스트적이라 할 수 없다. 물론 기업은 변화하는 개인에 맞춰 상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변경한다. 기업은 세계를 바꾸고 혁신하지만, 질서를 재편하려는 목적을 갖지 않는다. 사회운동이 제도를 재편하기 위해선 유혹해야 한다.

최태윤의 예술의 접근성과 포용성을 함께 만들기

장애 예술가의 범주는 주로 그 예술가가 장애 신체를 가졌는지, 또는 주제로 장애를 다루는지로 이해되지만, 협력하는 비장애 예술가도 포함한다. 예술이 장애를 다루는 것은 장애를 극복하거나 사라지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갈등은 회피되지 않아야 하며, 감정은 해소되지 않아야 한다. 예술을 정치적으로 만들기와 정치적으로 올바른 예술을 구분하자. 정치적으로 만드는 것은 실제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다.[1] 이는 장애인만의 과제가 아니다.

전시는 조금 특별해질 수 있다. **지역단체와 커뮤니티들에는 항상 필요한 것이 있다. 예술기획은 그것과 공존해야한다.** 예술은 단발에 그치지 않고, 창작자는 함께하는 커뮤니티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1 장 뤽 고다르, 「무엇을 할 것인가(What is to be done?)」, 1970.1970.

홍보라(팩토리2)의 우리의 모양들

우리 각자는 모두 개인이다. 개인성과 아름다움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각자의 핵심이 있지만 그 경계는 올챙이알 같아서 겉은 말랑말랑하고 끈적끈적하게 서로 서로가 붙어서 마음껏 확장될 수 있는 상태를 보고 싶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연결고리를 만들어간다. 공동의 경험이 두터워져야 한다. 공공은 개인들 간에 실핏줄처럼 연결된 망으로, 우연한 일들이 벌어지는 장이다(반대로 공공에 대해 교조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해 강요하는 목소리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를 위해 기획하고 공간을 운영한다. **다정하게 이야기를 건네고 우리만의 친밀한 어투를 만든다.** 뉴스레터를 공들여 만들고 발송한다. 이는 홍보와 다르다. 나는 정체성을 강화하기보다 규정되지 않고 유연하게 남고 싶다. 운영하는 공간도 규정되지 않는다. 기획자들은 스스로를 얽매지 말고 각자 자신이 재미를 느끼는 것들을 찾아 하면 된다. 용기를 갖자.

김윤익(공간사일삼, 팩)의 우리의 매뉴얼

알고리즘은 우리를 밀어내고 있으며, 우리는 플랫폼 기업을 위한 구성물로 살아간다. 예술가들은 (부동산적인 것을 비롯해) 비슷한 제약 아래 있다. 각자 나름대로 없는 것을 가지고 노는 비평적인 놀이를 해왔다. 우리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이게 새로운 기본값이 되었다. 생태계를 만드는데 예술가는 왜 배제되어있나. 공감대와 교감을 형성할 예술창작 커뮤니티를 만들어가고, 미술이 사회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을 새롭게 개발하려 한다. 공간사일삼의 공간사용 매뉴얼을 리뉴얼한다. **우리의 매뉴얼 만들기는 주어진 제약을 이해하고 투명하고 평등하게 자원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전시장은 사회에서 당연하지 않은 규칙을 실연해볼 수 있는 유일한 시공간이다. 쾌적하고 평등한 자율성을 위해 60센티의 정육면체 팩(PACK)을 예술가들에게 제공하고 유통한다. 부피는 축소되었으나 기능적으로는 축소되지 않는다. 미술로 문화를 만들고 사업이 되고자 한다.

김정훈(오픈스페이스 배)과 김선영(공간 힘)의

부산, 미술, 현재

큐레이터가 되기 위해선 유학이나 서울에 가야한다. 지역에서 공간을 운영하는 것은 여기서 함께할 동료를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혼자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방식을 만든다. 지역작가를 인큐베이팅하는 것은 운영진의 세대교체에도 핵심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역할이다. 과거 기성작가의 네트워크는 수명을 다했다. 새로운 네트워크가 필요하지만 아직 그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간은 지역성 외에 또 다른 의제를 갖춰야한다. 지역의 한계를 넘어 용병처럼 도움을 주러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공간을 운영하는 것은 때론 재원 마련이 전부다. 자생하기 위한 여러 실험을 하고 있지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기금은 운영에 핵심적이다. 동시에 기금을 받으면 의존하게 되며 많은 제약을 떠안게 된다. 일종의 검열이 된다. 올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된 바에 개인들 사이 친밀하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기회로 삼자.

강정아, 김영수의 삶의 공간이 된 마을 책방, '책과 아이들'

책방을 운영하는 일은 외롭다. 우리는 꼭 섬에 있는 것 같다. 터전을 세 번째 옮기면서 마당이 있는 곳에 건물을 새로 지었다. 우주에 버려진 것 같았다. 공간을 충분히 사용하기 위해 신발을 벗고 들어온다.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뛰어 들어오지만, 어른들은 신발을 벗으라고 하면 이상해서 못 들어온다. 낯선 것을 거부한다, 남자는 더더욱. 들어와서 얘기를 나누면 동지가 된다. 신발을 신고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바뀐다. 여럿 떠나갔다.

작가와의 만남을 기획한다.**한번은 초대하고 싶은 작가가 있어 전화했다. 셋째가 젖먹이라서 못나온다 했다. 나는 넷째가 젖먹이라고, 아기 업고 사회 볼 거라 했다. 아, 그래도 돼요? 아기 둘러 업고 사인하고 있는 모습이 이 사진이다. 이젠 한 식구다.** 빚이 산더미지만 하다 보면 헤쳐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우리는 그림책에 특별한 애정이 있지만 그림책 전문 도서관이나 책방이 되진 않는다. 오히려 연극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욕망한다. 지역공동체 활동의 문화공간은 대개 집단이 만들어낸다. 소수의 운영진에게 일이 집중되지 않게 매뉴얼을 만들고 새로운 인적 자원을 꾸준히 동원해야 하는 과제를 갖는다. 또한, 매력적으로 갱신되지 않으면 경제적인 이유에서 사라진다. 그에 비해, 책과아이들은 특별한 개인의 비전과 헌신이 이뤄낸 업적이다.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여기의 큰 원동력이다. **사람을 키우고 가꾸는 일이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로저 브뤼겔(2012부산비엔날레)의 로컬 속으로 들어온 큐레이터

부산은 모순적인 도시다. 전쟁은 피난민의 거처와 무계획적으로 지어진 집들을 도시에 남겼으며, 이는 현대도시의 판타지와 뒤섞인다. **부산에서 본 미술 공간은 과시적이었고 백화점과 경쟁하는 곳이었다. 그 욕망을 무효화하고 미술이 미래를 구성하게끔 하기 위해선 전시 공간을 진행 중인 상태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했다, 공사판의 언어로.** 비엔날레와 같은 큰 규모의 미술 행사에서 미술교육은 늘 있어왔다. 하지만 항상 전시가 완성된 이후 뒤따르는 부차적인 것으로 다뤄졌다. 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미술교육이 진행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배움위원회의 첫 만남 날, 일흔에서 여든 명 정도가 강당에 모였다. 우리는 서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들의 세션은 고장 난 엘리베이터에 갇힌 상황과 같아서, 대화를 나눌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의 연속이었다. 언어 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번역이 필요로 했지만, 직관적으로 누군가와 연결되는 순간이 있었다. 결국 이 배움위원회는 비엔날레의 주인이 되었다. 전시에 초대된 작가의 작업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도슨트가 되어 모두에게 설명한다. 대화를 하고 사람을 설득하는 것은 전략에 따르는 행위가 아니다. 즉흥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항상 주의 깊게 사람들을 살피고 나 자신을 보살피는 것이 대화의 덕목이다.

박미라, 창파(실험실 C)의 로컬 산책

숲 큐레이터 박미라와 아트디렉터 창파로 구성된 실험실 C는 9회차 세션을 위해 2020년에 진행한 《소요의 시간》을 다시 준비해 우리를 초대했다. 《소요의 시간》은 작가, 지역 전문가와 함께 동구에 위치한 수정산 일대를 리서치하고, 그 결과를 전시와 숲 해설로 엮어 산책을 통해 경험의 시간으로 풀어낸 큐레토리얼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두 시간가량 함께 걸었다. 이 지역의 식생, 거주하던 사람의 흔적들과 설치되었던 미술작품에 대한 이야기가 개인의 피부로 흡수되었다.

수정산의 숲은 이상하다. 자연인데 인간의 손이 너무 많이 닿아있다. 산 중간에 한때 가로수로 유행했던 개잎갈나무가 있고, 편백나무 숲이 조성돼 있다든지 길 따라 산수유가 나 있다. 나무에 구역이 있다. 철도 용지를 표시하는 비석이 있고 산까지 올라와 집 짓고 살던 터도 남아있다. **도시와 자연의 경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거기에는 다양한 계기가 있다. 사람은 굉장히 많이 개입하고 또 방치한다. 지역 리서치는 대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 도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생태를 바라보면서 경계를 와해시키거나 조직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큐레토리얼인 것 같다.**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식물의 문화사가 연결되는 지점이 누군가에게는 다른 경험이 되어 의식을 바꿀 수 있으며,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참여자 전원의 원 없는 대화

마지막 세션은 그간 프로그램에 대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기록집에 들어갈 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시 책과아이들에 방문했다. 그간 비대면으로 서로 공유했던 자료와 참고가 될 것들을 가져왔다. 공동으로 글쓰기를 결정하고 방식에 합의했다.

또한 식사와 술이 준비되었다. **연회, 정해진 시간 없이 다 같이 먹고 마시는 시간을 처음 가졌다. 브뤼겔의 비유를 빌리자면, 워크숍 「우리가 되는 방법들」의 엘리베이터는 그간 고장 나지 않았다.** 정해진 시간에 엘리베이터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달할 거라는 약속이 있었고 승객은 안도하며 각자의 목적지에 내렸다. 말은 하지만 대화는 쉬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음식을 나누고 함께 활동하는 시간은 서로의 말에 반응해야 하는 순간의 연속이고, 정해진 것이 없었다. 서로의 다른 언어를 조정하고 설득하며 협상해야 했다. 공생공락 conviviality의 시작이다. 우리의 규모는 무한히 확장될 필요 없고 개방적일 필요도 없다.

잠깐 조직된 우리에게 앞으로의 만남에 대한 약속은 없으며, 이 우리를 키우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유지할 책임은 없다. 다만 어떤 특별한 일을 하려 할 때, 섬에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 지역에서 무언가를 하려 할 때, 실핏줄 같은 관계망인 친밀한 우리 만들기를 멈추지 않고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이와 순간을 생산해야 한다. 계속 새롭게 갱신하는 도시의 욕망과 동시대의 시간에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덕목은 우리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에게 공동의 과제가 있다면 이를 위한 방안을 만드는 것일 테다. 「우리가 되는 방법들」이 요청하는 큐레토리얼 실천은 함께 다른 것이 되는 시간을 향한다.

홍수의 흔적

기록자가 '우리'와 '지역'을 키워드로 했던 워크숍에서 발전시킨 새로운 예술 프로젝트를 위한 제안입니다. 도시가 내보이려는 풍경에 묻혀, 존재하지만 잊혀진 공동의 기억을 되새기는 예술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 공동체를 도모해 봅니다. 프로젝트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풍경을 우리를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수정할 수 있을까?

서울의 북서쪽에 인접한 신도시 고양에는 홍수흔적비가 세워져있어 이 지역에 큰 재난이 있었음을 알리고 있다. 1990년 유난히 강한 태풍이 몰려왔다. 한강의 범람을 방지하던 둑이 무너지고 일대가 물에 잠겼다. 격류에 지류와 지형이 변했다.

지형을 복구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앞으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는 공동의 사건일 수 있었다. 둑은 더 크고 더 높게 복구되었다. 그러나 그 위에 도로가 놓이며 자유라고 이름 지어지면서, 이 풍경은 국가의 이념 대결의 도구로 작동하게 된다.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서로를 보살피고 키워가는 대화의 시간이나 우연한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우리'가 아니라 국가가 교조적으로 정의한 '국민'이다.

재난을 기억하는 것은 그 끔찍한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있지만 역사가 되지 못하던 우리를 되살려 포용하고, 강박적으로 갱신되는 도시의 시간에 맞서 우리를 만드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기억의 방식은 일반화될 수 없다. 지역마다 재난을 이겨낸 서사가 다르듯 한 지역의 풍경과 우리는 다른 지역의 풍경과 우리와 다르다. 기억하는 시간을 만들어 도시의 풍경이 우리를 증언하도록 되돌리는 것이 예술의 일이다.

홍수흔적기념비, 1990 제작 추정. (2022년 사진 촬영)

신평리, 무너진 둑, 1990. (사진 고양시 홈페이지, 2006년 접속)

우리의 확장

자연 환경
생태

자본주의

기억하는 방식

"지속가능한
미술관"

비인간
전환

(길들여진)
경험

퀴어

커뮤니티

대안공간
기록

사적인
레지던시

부산 지역

"경계
허물기"

참여자 소개

김경민
참여자
intuition.min@gmail.com

대학에서 미술이론을, 대학원에서 시각문화이론을 공부했다. 2021년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의 <아틀라스Atlas>의 기원과 이미지적 사유」로 논문을 썼다. 장 폴 사르트르의 이미지론으로부터 출발하여, '정신 이미지(Imagination)'와 현상학을 토대로 형성된 이미지 이론들에 관한 탐구를 지속하고 있다. 학문과 예술 사이의 관계에 끊임없이 주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애학, 로컬리티, 커먼즈적 실천, 경계선 자체에 대한 사유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인천아트플랫폼에서 근무 중이다.

김보경
참여자
kimbogyung.wordpress.com

서울과 광주에 기반을 둔 독립 연구자. 경험의 불평등과 편향성에 관해 이야기한다. 익숙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형성된 우리의 경험이 무엇으로부터 구축되었는지, 그 과정에 지배적 영향을 미친 힘은 무엇인지 탐구한다. 개인과 공동체, 제도들이 형성해 나가고 있는 사회적·공간적 영역 속에서 변화하는 가치와 가치화되는 맥락을 인식하고, 조화와 균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실천적 형태의 다양한 기획과 프로그램을 포함한 작업, 그리고 작업 과정과 작업자의 철학, 태도에 관심을 가지며, 모두의 보다 더 조화로운 경험을 위해 질문을 갖고 접근 방법을 연구한다. 그 방법에 대한 형태는 되도록 다양성과 포괄성을 지닐 수 있는 기존의 장르를 벗어난 형식을 추구한다. 유아교육학과 미술이론을 공부하고 현재는 환경생태공학과 석사과정에 있으며, 생태조경설계연구실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환경과 생태를 바탕으로 경험의 설계를 연구하고 있다.

김얼터
참여자
v9xwzr@gmail.com

시험에 들게 하는 사물을 좋아한다. 미술 전시 제작과 글쓰기로 일한다.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리얼리즘을 돌파하기 위해 전시를 제작하고 하나의 사건에 따라붙는 다면성을 추적하기 위해 글을 쓴다. 《크림(cream)》(아카이브봄, 2020)과 《무저갱(Abyss)》(Hall1, 2022)의 기획자고, 유령회사의 설립자다. 언파운디드(2021~)와 abs(2021~)를 공동 운영 중이다.

송효진
참여자

학부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예술학을 공부한다. 작년 학부 졸업과 동시에 미술관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했으며, 특정 장소를 바탕으로 기획되는 전시를 수행하면서 로컬, 생태, 자연 등의 리서치를 진행했다(2021). 이를 계기로 환경과 지역에 기반한 예술적 실천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단순히 동시대 이슈인 환경 파괴 등 현상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타자화된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허무는 쟁점들을 탐색해 미술 언어와 결합하여 확장하는 지점에 주목하고 있다. 나아가 포스트휴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그간의 역사와 논의들을 탐색하고 동시대 미술과 연결되는 지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신효진
참여자

퍼포먼스와 영상 매체를 기반으로 기획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한국퀴어영화제에서 2014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집행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기획으로는 댄스필름 프로젝트 《모든 것이 다르게 될 때까지》(2020~2021), 렉처 퍼포먼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2021), 《흰 글씨, 검은 픽셀》(2022) 등이 있다.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현상을 가시화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에 적합한 형식과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다.

이솜이
참여자
bit.ly/SomiLeePractice
somi7tomi@gmail.com

이솜이는 전시의 조건들을 설정하고 그곳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지켜본다. 소장품이 갖는 시제, 퍼포먼스를 둘러싼 조건, 시각 언어로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 다양한 몸이 접근할 수 있는 미술에 마음을 둔다. 작품 수집을 둘러싼 연구와 실천을 모색하는 가상의 수집기관, 'Practice of Collection'을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PCS 2021》(performplace.org), 《HOLE》(윈드밀, 2021), 《piercer》(SeMA창고, 2021), 《Perform 2019: Linkin-out》(국립아시아문화전당·일민미술관, 2019), 《best regards, Weave Wave》(공동기획, 중간지점, 2021), 점자 드로잉북 『black spell hotel』(2022)을 기획하고 《그레이박스: 수집에서 전시까지》(부산현대미술관, 2022)에 참여했다.

이유진
참여자
IG@jejuanarchist
yujinleeart.myportfolio.com

이유진은 '관계 예술'을 창작 및 기획 활동, 그리고 생활 속에 녹아내는 시각 예술가이자 협력(기획)자이다.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순수미술을 전공하고 뉴욕 컬럼비아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시각예술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9년부터는 제주도 옛 농가를 고쳐 마련한 '미술관 옆집 제주'라는 창작공간 및 아티스트 레지던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7명의 국내외 예술가가 입주하여 짧게는 열흘, 길게는 두 달간 이유진과 동거하며 서로의 예술과 삶에 영향을 주고받았다.

정수진
참여자
@cueoq

정수진은 독립연구자로 서울과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 중이다. 멜버른 대학교(University of Melbourne)에서 석사논문으로 애들레이드 호주 미술 비엔날레(Adelaide biennial of Australian Art)를 생태학적, 포스트식민주의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글을 썼다. 현재는 동시대 미술과 정치생태학, 비인간 전환 담론,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지역의 비엔날레 내 행위자(actor)들의 역할 및 관계 등을 주요 연구주제로 삼고 있다. 2021년 멜버른(Melbourne/Naarm)에 있는 George Paton Gallery에서 그룹전 *Sailing Stones in Death Valley* 를 기획했고, 최근 3년간 『un Magazine』, 『Farrago magazine』, 그리고 『Ocula magazine』 등의 여러 잡지 및 저널에 글을 활발하게 기고해왔다. 주요 수상 경력으로 2021년 Eugenie La Gerche Scholarship을 받았고, 2022년 <제5회 Gravity Effect 미술비평공모>에서 1위를 수상했다. 'Cue O Q'라는 개인 블로그를 운영 중이다.

한수정
참여자
@working_sage
sjsagehan@gmail.com

한수정은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독립 기획자이다. 연세대학교에서 철학과 인지과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미술경영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로컬리티, 시간성, 인간의 집단적 심리구조 등 다방면에 관심을 두고 전시를 기획하고 있다. 제15회 부산 국제 비디오아트페어에 협력 큐레이터로 참가하여 《무향실(Dead Room)》(2021)을 기획하였으며, 이외에 《에코 챔버(Echo Chamber)》(2022), 《비미래(Non-future)》(2022) 등을 기획했다.

김창재
기록자
www.chjae.net
22chjae@gmail.com

1984년생. 미술작가-기획자.
위스콘신주립대학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서양화과 판화전공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사회 문제에 대한 실천과 개입으로서의 시민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작업한다. 관객참여의 형식으로 공공성의 문제를 다룬 작업을 주로 진행하며, 비평적이고 다층적인 기록으로 미술을 추구한다. 종종 강연과 출판을 기획해 공동의 과제를 만들고 비평적 공동체를 도모한다. 2010년 커뮤니티스페이스 리트머스를 통해 신진작가로 데뷔했으며, 아르코미술관 담벼락을 허무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협업으로 진행했고(2013), 서울문화재단의 후원으로 담배를 키우고 만드는 취미 활동을 개인전의 방식으로 유통했다(2016). 국내 거주 난민공동체의 퍼레이드를 기획했으며(2018), 현재 도시 풍경이 비판적인 기능을 갖도록 수정하는 작업과 풍경화 연구에 관심이 있다.

우아름
진행자
amie.arwoo@gmail.com
@ahreum.w

문학과 미술이론을 공부한 후 미술 글쓰기를 지속해 왔다. 비평과 창작의 경계에서 작가의 조형 언어를 찾아주는 글을 쓴다. 이미지 아카이브를 연구했고, 예술의 사용과 창작 생태계 설계에 관한 관심으로 예술 대학의 레지던시와 기업의 혁신 센터 등에서 일했다. 현재는 프리랜서로 글과 말을 사용해 일한다. 최근 편저에 『밤이 낮으로 변할 때(Night Turns to Day)』(2020), 『Yangachi Says』(2021), 『프로포즈: 바람산 연립하기』(2021) 등이 있다.

우리가 되는 방법들

2022부산비엔날레 큐레토리얼 워크숍 기록집

글쓴이

김경민, 김보경, 김창재, 우아름, 김얼터, 송효진, 신효진, 이솜이
이유진, 정수진, 한수정

편집

우아름

디자인

곽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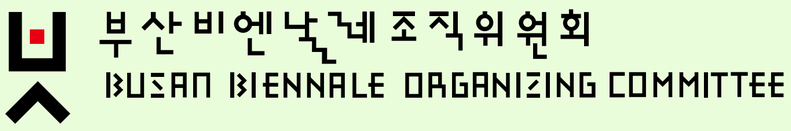
사진

전웅배

웹뷰어

최진훈(ZZE)

발행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아시아드경기장 38호 (47500)
051 503 6111
www.busanbiennale.org

우리가 되는 방법들

2022부산비엔날레 큐레토리얼 워크숍

참여자

김경민, 김보경, 김얼터, 송효진, 신효진, 이솜이, 이유진, 정수진, 한수정

기록자

김창재

초청인

김해주, 홍기빈, 최태윤, 홍보라(팩토리2), 김윤익(공간사일삼/팩)
김정훈(오픈스페이스 배), 김선영(공간 힘), 강정아×김영수(책과아이들)
로저 브뤼겔, 박미라×창파(실험실 C)

진행

우아름 프로그램 매니저

코디네이터

이윤지 부산비엔날레 전시팀

장소 제공

끄티봉산 RTBP얼라이언스
부산 영도구 하나길 788

공간 힘
부산 수영구 수미로 50번가길 3

책과 아이들
부산 연제구 교대로 16번길 20

운영 대행

커뮤니티 콤마

우리가 되는 방법들

2022부산비엔날레 큐레토리얼 워크숍 기록집

글쓴이

김경민, 김보경, 김창재, 우아름, 김얼터, 송효진, 신효진, 이솜이
이유진, 정수진, 한수정

편집

우아름

디자인

곽지현

사진

전웅배

웹뷰어

최진훈(ZZE)

발행

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BUSAN BIENNALE ORGANIZING COMMITTEE

(사)부산비엔날레조직위원회
부산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아시아드경기장 38호 (47500)
051 503 6111
www.busanbiennale.org

우리가 되는 방법들

2022부산비엔날레 큐레토리얼 워크숍

참여자

김경민, 김보경, 김얼터, 송효진, 신효진, 이솜이, 이유진, 정수진, 한수정

기록자

김창재

초청인

김해주, 홍기빈, 최태윤, 홍보라(팩토리2), 김윤익(공간사일삼/팩)
김정훈(오픈스페이스 배), 김선영(공간 힘), 강정아×김영수(책과아이들)
로저 브뤼겔, 박미라×창파(실험실 C)

진행

우아름 프로그램 매니저

코디네이터

이윤지 부산비엔날레 전시팀

장소 제공

끄티봉산 RTBP얼라이언스
부산 영도구 하나길 788

공간 힘
부산 수영구 수미로 50번가길 3

책과 아이들
부산 연제구 교대로 16번길 20

운영 대행

커뮤니티 콤마

9 791195 899081 95600
ISBN 979-11-958990-8-1 (PDF)